

속표지

발 간 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반복하고, 울기도 하고 웃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소통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널리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을 수업 과정에서 느끼며 몸에 익히는 과정을 통해 진정 우리가 바라는 지식정보화사회의 인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원에서도 학생들이 교과별로 다양한 토의토론형식을 통해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주도적 학습의 일환으로 토의토론을 통한 수업 방법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일선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연계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 중 수업방법 개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발하였습니다. 교과의 성취도에 맞춰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거리를 제시하고 서로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경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학생 참여 토의토론 수업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였습니다. 수업을 맡아서 설계하시는 선생님들과 초등학교를 이제 벗어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급적 수업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대화형식으로 집필하였습니다. 토의토론을 어떻게 교과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토의 토론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도출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개의 교과영역에 적용시킨 토의 토론 형식은 다른 교과에서도 교과의 특성에 맞춰 변형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토의토론 자료집을 통하여 학생들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창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02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강 성 봉**



CONTENTS

I 일러두기	1
II 토의·토론 기본에 대한 이해	7
III 직소모형을 활용한 찬반토론 수업(국어과)	31
IV 원탁토론 수업(기술·가정과)	55
V 찬반논쟁 협동학습(Pro-Con) 토론 수업(도덕과)	87
VI 하바드 모형을 변형한 쟁점토론 수업(사회과)	113
VII 역사적 쟁점을 활용한 패널 토론 수업(역사과)	137

1. 일러 두기



1. 자료개발의 필요성

2. 자료의 구성

3. 자료의 특징

I. 일러 두기

1. 자료 개발의 필요성

지식과 정보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은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의 아이디어 생산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은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꼽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생산은 더불어 살 줄 아는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글로벌 사회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이라 한다면 ‘인성’은 ‘창의성을 사회 속에서 의미 있게 발현시킬 수 있는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는 수업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수업은 교육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시키고, 더 나아가 꿈과 끼를 발휘하도록 하는 실현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교실 수업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업 방법 중에서 토의·토론 수업은 개인적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합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석력, 비판력,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와 타인에 대한 공감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실천하여 나와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실 수업 속에서 지속적이며 단계적으로 토의·토론 수업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는 토의·토론 수업의 긍정적인 면을 잘 알고 있어도 교실에서 구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연계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 중 수업방법과 관련하여 토의·토론 수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즐거운 토의·토론, 행복한 수업」을 수업 운영 지원 자료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 자료의 구성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에 따른 토의·토론 수업 방법별 운영 지원 자료 「즐거운 토의·토론, 행복한 수업」은 마중물, 본 수업의 주안점,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 토의·토론 수업 모형에 따라 본 수업 전개, 정리 및 평가, 확대 적용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자료의 특징

가. 마중물



마중물은 펌프에서 물이 잘 안 나올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 마중물은 수업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기유발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 본 수업의 주안점

이 자료에서 다루는 토의 토론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소 모형 활용 찬반 토론, 패널 토론, 찬반 논쟁 협동학습 프로콘(Pro-Con) 토론, 하버드 모형을 변형한 논쟁 토론, 원탁 토론 등입니다.

본 수업의 주안점에서는 이와 같은 토론 방법을 적용하게 된 이유와 단위 설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모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념 이해는 주로 토의·토론 수업 방법별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을 이해하게 하고 토의·토론 수업의 전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성취 기준 및 학습 목표

성취 기준 및 학습 목표에서는 선택한 단원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적용되는 성취기준을 제시하여 교과서 중심이 아닌 목표 중심 수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시된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수업 설계 시 목표를 구현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적절한 교실 환경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교실 환경에서 모둠 구성은 그림으로 표현하여 모둠 배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라. 본 수업 전개

본 수업 전개에서는 수업 따라하기를 할 수 있도록 토론 수업 전개과정을 안내한 것으로 준비 과정, 준비물, 토론 주제 제시, 대립된 입장에 따른 논거와 사회자(교사)의 지도 과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시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토의·토론 수업이 교실 수업에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기 위함이며, 토론 주제에 따른 학생들의 입장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논거가 비슷하게 제시될 수 있으므로 수업 따라하기를 통해 토론 수업의 친근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 정리 및 평가

정리 및 평가는 제시된 성취기준에 따라 구현된 토의·토론 수업 후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취도달도는 성취평가제에 근거하여 평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토의·토론 수업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 단위는 수

업별로 다를 수 있으나 되도록 5단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성취평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생 세부 능력을 기록하는데 있어 관찰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4. 확대 및 적용

이 길잡이는 교과별로 수록된 토의·토론 수업 방법을 동일 교과에서 더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원이나 토론 주제를 확대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수업 지도 시 편리하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교사의 입장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길잡이에 수록된 토의·토론 수업 방법은 해당 교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교과에 적용된 토의·토론 수업 방법을 다른 교과에서도 유형에 맞추어 주제 또는 논제를 정하고, 재설계 및 변형 적용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중학교 1학년의 내용과 방법을 수록한 자료집이지만 중학교 2·3학년에서도 적용하고 싶은 교과마다 토의·토론 수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Ⅱ. 토의·토론 기본에 대한 이해



- Ⅰ. 토의와 토론
- Ⅱ. 토론의 요소
- Ⅲ. 토론의 규칙 및 예절
- Ⅳ. 토론의 기본개념 및 구조
- Ⅴ. 논제의 분석 및 논증
- Ⅵ. 반박
- Ⅶ. 토론의 평가
- Ⅷ. 토론의 유형

토론은 분석력, 비판력, 논리력과 함께 사물의 원리를 통찰하게 함으로써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 주며, 학생들이 계획·협의·분석하고,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토론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원만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갈 줄 아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게 해 준다.

따라서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은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의 틀을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는 토의·토론 수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II. 토의·토론 기본에 대한 이해

I 토의와 토론

1. 토의와 토론의 차이

토론(debate)과 토의(discussion)를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집단이 모여 의견을 나눈다는 뜻으로 ‘집단적 말하기’의 의미로 통용된다. 하지만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 토의가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공통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협력적 말하기’라면,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긍정)과 반대(부정)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대립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부당성을 입증하는 ‘경쟁적 말하기’이다.

토론은 이미 시작 단계에서부터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갈등이 표면화 되어있는 ‘현재 상황’을 자료로 한다. 하지만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토의와 마찬가지로 의견의 일치에 도달해야 한다. 즉, 어느 한 쪽의 논리적 승리에 대하여 다른 한 쪽이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설복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의견의 일치이다.

토의와 토론의 차이는 팀활동에서도 여실히 다르다. 토의에서는 팀활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각 토의자는 개인별로 의견을 가지고 토의에 참여하며, 토의자들의 연합 또는 결합이 필수적이지 않다. 하지만 토론은 모둠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함께’ 힘을 합쳐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서 팀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토론자는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팀은 승리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 계주와도 비교된다. 각 구성원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나, 그들은 전체적으로 판단된다. 그들은 함께 일해야 한다. 팀 구성원은 찬성하든 반대하든, 하나의 논쟁거리에 대하여 각각 다른 부분을 책임진다.

	토 의(Discussion)	토 론(Debate)
말하기 종류	설 득	
설득의 요소	우선성	승/패
성 격	협력적 말하기	경쟁적 말하기
	비논쟁적	논쟁적
	대립 : 잠재적(없을 수도 있음)	대립 : 반드시 표면적
과정	우선성에 입각한 문제 해결과정	자신의 논리적 정당성 및 상대방의 논리적 부당성 입증
결론	최종 결론	1차 결론이 찬/반 형태로 주어지고 승자의 결론이 최종 결론

	토 의(Discussion)	토 론(Debate)
형식	자유로움(비형식적)	엄격한 형식과 절차가 요구됨(형식적)
사회자의 역할	아주 중요	절차에 따른 토론만 진행
팀활동	없음(각 개인별로 참여)	매우 중요(팀으로 참여)
협의시간	없음	있음
결과	사회적 다수(강자) 의견의 재생산 가능성 높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음
종류	심포지움, 콜로키움, 패널토의, 포럼, 버즈 집단토의, 위원회토의, 교육토의, 워킹토론, 이야기식 토론	아카데미 토론, CEDA 토론, 칼 포퍼 토론, 링컨 더글라스 토론, 의회 토론

2. 논리적 설득으로서의 토론

토론은 설득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설득이란 듣는 이의 태도, 신념, 가치, 행동 등을 변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목적을 가진 말하기의 방식으로 ‘동의를 행동화’를 꾀한다.

토론은 이성과 감성의 논리에 기반하여,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양측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는 양식이다. 각 측에 부여된 입증책임(burden of proof)과 반증부담(burden of rebuttal)을 가지고, 반박과 교차 조사를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설득의 한 종류이다.

‘에토스’란 말하는 이의 인격이나 내용의 신뢰성을 말하며 ‘인격’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파토스’란 감성적 설득으로서 이성적 논리에 의하지 않고 주로 감성적 논리에 바탕하여 설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로고스’란 이성에 의한 설득으로서 이성적 논리에 바탕하여 말하는 이의 주장을 실증하는 방식이다. 어떤 중요한 일의 결정은 이성에도 뒷받침되지만 감정, 직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다.

3. 응용토론과 아카데미 토론의 차이

응용 토론(applied debate)은 특별한 관심이 있는 논제를 둘러싸고 정해진 규칙 아래 평가자와 청중 앞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다. 실제로 응용토론 중에는 기본 설정만 찬성/반대 형태로 분리되어 있고 진행은 토의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각 TV가 운영하는 TV토론 프로그램들은 토의와 토론의 절충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카데미 토론은 학생들에게 토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기관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토론을 말한다. 학급 회의, 학생회 주도의 토론, 모의재판, 모의국회, 학급 대항 토론 대회, 학교 대항 토론 대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카데미 토론은 엄격한 형식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토대로 한다. 즉 특정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배우고 엄격한 토론형식과 반대의 논리를 익힘으로써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응용토론	아카데미 토론
형식	비형식적	형식적
	정해진 시간, 순서, 역할이 없음	시간, 순서, 역할이 정해져 있음
	발언기회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발언기회 동일함
	토의와 토론의 절충형태	토의와 전혀 다름
단계	‘토론’의 본 단계만 있음	3단계 구성(토론 전, 중, 후)
	청중과 질의 응답 단계 필수아님	청중과 질의 응답 필수 단계
평가(순서)	없음	‘토론 후’ 단계에 포함
종류	패널토론, 2인토론, 이야기식토론	CEDA, 칼포퍼, 의회토론 등
형식	자유로움(비형식적)	절차와 형식이 요구됨
사회자의 역할	아주 중요	거의 없음
승패	없음(무승부 가능)	부차적 목적
협의 시간	없음	있음

II 토론의 요소

주장폐기 활동(argumentation)은 사람들이 서로 이성적으로 주장을 교환하기 위한 절차라고 정의된다. 토론에서의 주장폐기는 이성애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점이 다른 수사학과 주장폐기가 다른 점이다. 주장폐기는 토론의 기본적인 도구지만 다른 역할도 한다. 협상이나 갈등 해결, 설득에서 그들의 차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길잡이가 되는 중요한 도구이다. 몇몇 상황에서, 차이는 내적으로 극복될 수 없고 외적 주재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토론은 서로 주장을 관철하는 가운데 외적 주재자가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툴민(Toulmin)은 토론을 구성하는 내적 요소와 외적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내적요소 6가지는 자료(data), 논거(warrant), 주장(claim), 논거보강(backing), 확률치(modality), 유보조건(reservation)이며, 이 중 자료, 논거, 주장을 ‘주장폐기의 3요소’라고 했다. 외적요소는 동등한 경쟁자, 동등하고 적절한 시간, 대결과 규칙의 지배라고 설명했다.

1. 자료 (data)

자료는 ‘주장을 정당화 하는 사유(reason)’로서 증거(evidence)이며 주장폐기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주장은 정당화 시키고자 하는 주장폐기의 결론이자 목적지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자료는 건물의 재료나 기초를 제공하는 것과 같으며 어떤 주장폐기에서나 필수적이다. 자료는 토론자가 수업시간에 ‘배운 것’이나 토론을 준비하면서 ‘읽은 것’도 포함할 수 있으며,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행동’ 혹은 생물학이나 물리학에서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나 이론’일 수도 있다. 자료는 또한 ‘개인적 가치, 가치 위계, 가치의 범위에 대한 가정’을 포함할 수도 있다.

2. 논거 (Warrant)

자료가 주장퍼기의 시작이고 주장이 목표라면, 논거는 그 수단이 된다. 그것은 한 장소(자료)에서 다른 장소(주장)로 옮겨주는 수단이다. 논거는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료를 이용해 자료와 주장 사이의 관계를 만든다.

가장 분명하고 명백한 주장퍼기의 부분은 주장이다. 주장은 논자의 입장을 밝힌다. 입장이 드러난 뒤에는 자료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주장퍼기의 두 번째 요소인 논거는 때때로 주장퍼기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주장퍼기는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았건, 이성적으로 자료와 주장을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논거의 몇몇 종류는 ‘유추’ 논거에 의한 주장퍼기에 규칙적으로 나타나며, 다른 것들은 ‘논거에 의한 주장퍼기’에 쓰이기도 한다.

자료와 주장은 명백히 주장퍼기의 한 부분으로 드러나나, 논거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 다음 표에 나타난 논거들은 자료와 주장을 연결할 때 매우 자주 쓰이는 방법들이다.

논거의 카테고리	정의	예
예시	특별한 예와 좀 더 일반적인 규칙의 관계를 만들어 낸	낙제점 받은 3명의 토론자가 있었기에, 나는 그들이 얼마나 수업에 진지하게 임했는지 질문하기 시작했다.
유추	유사하거나 서로 다른 것을 엮음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새로운 베트남 전쟁이 되고 말았다.
인과관계	인과 관계를 형성	흡연은 심장병으로 이어진다.
권위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해 주장을 뒷받침함	코피아난(Fofi Annan)은 아프리카에서 수백만명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리	특별한 경우를 일반적인 원리와 연결함	사형은 그것이 삶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언제나 부적절하다.
비양립성	어떤 것이 다른 것과 양립할 수 없음을 이야기 함	생명을 빼앗는 것이 비도덕적이라면 낙태에 반대하는 자들은 논리적으로 사형에도 반대해야 한다.
분리	이전의 카테고리를 두 가지의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리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낙태는 ‘살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살아갈 권리’의 문제이다

3. 주장 (Claim)

주장은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이며, 토론의 이면에 내재해 있는 토론의 목적이다. 즉 주장은 토론의 핵심이다. 주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왜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의 주장보다 가치 있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그 자료를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한다. 그 다음은 상대방 주장의 결점을 상대방보다 먼저 발견하고 그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잘 전개된 주장은 확실한 자료, 구성,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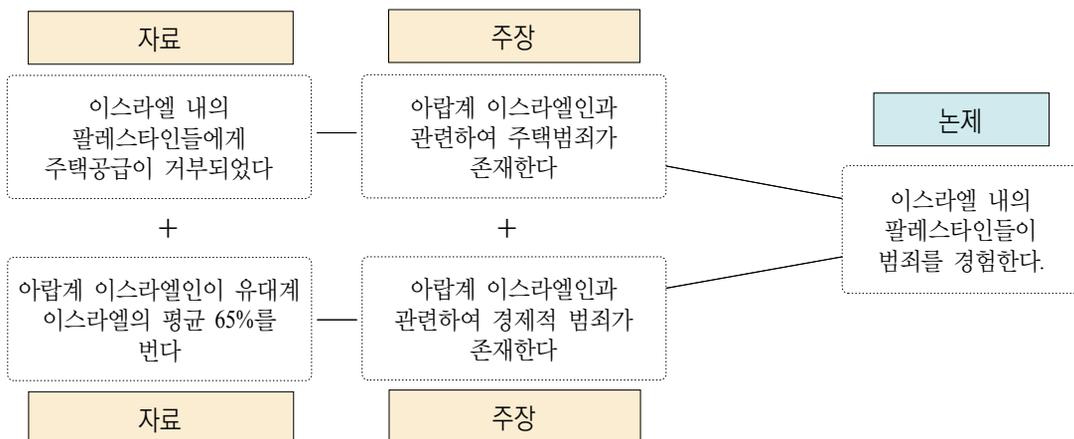
이를 주장의 3조건이라고 부르며 이 3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주장이 타당하다.

토론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주장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주장이나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논거에 있다. 논거 없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좋은 주장퍼기는 논거가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논거와 주장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관계란 관련성, 충분한 논거, 논거의 참, 반박 잠재우기의 네 가지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주장과 관계없는 논거가 등장해서는 안 되며,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꼭 필요한 논거가 빠져서는 안 되고 논거들은 거짓이 아니거나 적어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반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을 미리 생각해서 이것을 주장 펴기의 논거 안에서 해소해야 한다.

주장과 논제는 주장퍼기를 사용해 찬성(혹은 반대)하고자 하는 논쟁적인 문장들이다. 둘은 기능적으로는 동일하다. 하지만 논제는 항상 주장이지만, 모든 주장이 논제는 아니다. 논제는 토론자가 이끌어 내는 궁극적인 주장이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몇몇 주장을 통해 뒷받침 된다.

논제가 되기 위해서는 문장이 논쟁적이어야 한다. 이유와 논거로 뒷받침되는 논쟁적인 문장을 주장이라고 하며, 토론자는 논제를 옹호하기 위해 몇몇 주장을 결합할 수 있다. 주장과 논제의 결정적 차이는 주장이 더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논제를 옹호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논제라는 용어는 토론자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주장이다. 논제는 보통 여러 주장에 의해 뒷받침 된다.

자료가 주장의 시작점이라면 주장은 논제의 시작점이다. 아래의 다이어그램은 자료와 주장과 논제의 관계를 보여주는 주장퍼기의 한 예이다.



Ⅲ 토론의 규칙 및 예절

토론을 흔히 ‘지적 스포츠’(intellectual sports)에 견주어 말하곤 한다. 스포츠는 규칙이 생명이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심지어 실격으로 패하게 되기까지 한다. 토론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특히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토론을 비롯하여 법정 토론에서는 규칙이 엄격하다. 모든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논제를 둘러싸고 논의해야 한다. 토론의 논제는 하나의 명제 형태로 표현된다. 명제는 한 마디로 주장이 담긴 문장이다. 모든 토론은 주어진 논제에서 동떨어진, 즉 논점에서 이탈된 논의를 할 수 없다. 모든 논의는 주어진 논제에 수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상대측의 공격을 받게 된다.

찬성(긍정)측과 반대(부정)측으로 나누어 대항한다. 찬성측은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반대측은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토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 토론에서 토론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절차에 따라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토론에서 제한된 시간의 안배는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 시간을 안배하든 찬성(긍정)측과 반대(부정)측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승패를 가린다. 열린 토론이 끝난 후에는 어느 쪽이 이겼는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판정인은 처음부터 객관적이고 세밀한 평가 기준을 세워 엄정하게 평가한 후 승패를 가려야 한다. 토론에서 무승부(tie)란 있을 수 없다. 만일 찬성(긍정)측과 반대(부정)측이 동점이라면 반대(부정)측이 승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찬성(긍정)측에 입증의 책임(burden of proof)이 있기 때문이다. 입증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토론의 시작은 언제나 찬성(긍정)측에서 먼저 하게 되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토론의 예절. 자유 민주 사회에서 토론은 예의바른 행동과 공정한 대우가 요구된다. 개방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토론자는 참여자의 목소리를 배제하거나 낙담케 하는 언어와 행동을 피해야 한다.

- ☞ 토론자는 준비된 자료, 메모지 및 필기도구를 지참한다.
- ☞ 토론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상대측과 어떠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없다. 다만, 사회자의 허락 아래 지정된 메모 용지만을 사용하여 짧은 용건만을 제시할 수 있다.
- ☞ 토론 연사는 청중을 바라보며(eye contact) 전달해야 한다.
- ☞ 토론 연사는 청중을 향해 바른 자세로 서서 준비된 자료만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 ☞ 토론자는 다른 토론 연사가 발표할 때에 얼굴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연사는 예의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상대를 빈정거리서는 안 되며, 자신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발표해야 한다.
- ☞ 토론회장에서 사회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토론에서 듣는 태도와 말하는 방법

구분	상황	요령
의견을 들을 때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 말하는 사람을 응시하면서 조용히 듣는다.
	내용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과 비교하며 주의 깊게 듣는다. • 상대방이 제시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생각한다.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키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 잘 모르는 것은 질문하도록 한다.
	메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것은 순서에 맞게 메모한다. • 질문할 내용은 “?” 표시를 하며 듣는다. • 발표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며 듣는 습관을 가진다.
의견을 발표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순한 사실을 발표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 □□입니다. • 그 이유는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의 까닭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이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음에 답을 잘 할 수 없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르겠습니다. • □□은 ○○이나 △△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할 때	모르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 왜 그렇습니까? •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다른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물음을 잘 알아들을 수 없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씀(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 묻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토론할 때	발표자와 의견이 같다는 뜻을 나타내고 싶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와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의 의견과 생각이 다릅니다. • 그 이유는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기 때문입니다. • ○○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그것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충 설명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설명 이외에도 또 ○○한 것이 있습니다. - ○○의 의견도 좋습니다만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의 의견 외에도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정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이라 하였는데 △△을 잘못 말한 것이 아닐까요?
	보충 설명을 요구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된 의견을 발표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발표한 ○○의 의견과 □□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V 토론의 기본 개념 및 구조

1. 토론의 기본 개념

가. 논쟁성

자유 민주 사회에서 토론은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수단이다.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있어야 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어떤 사실, 가치 또는 정책에 대하여 의견이 모두 일치한다면 토론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논쟁성(controversy)은 토론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나. 입증 책임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은 모든 토론의 근본적인 규칙이다. 입증 책임은 먼저 논제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긍정측에게 주어진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각 토론자에게 주어진다. 어떠한 주장도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 즉 토론자가 입증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은 모든 토론의 기본 원칙이다.

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도입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민사 소송에서의 판결은 보통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 토론에서도 입증 책임은 긍정측에 먼저 주어진다.

다. 반박 책임

반박(反駁; rebuttal)은 상대측의 주장을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증거와 논증을 포함한다. 토론에서 입증의 책임은 먼저 찬성(긍정)측에 주어지지만, 반박의 책임(burden of rebuttal)은 찬성(긍정)측과 반대(부정)측 모두에게 주어진다.

예컨대, '은행 강도 사건'의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현장부재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였을 때, 검사는 반박 책임을 가지게 된다. 검사가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을 석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 전달 책임

토론에 참여한 모든 토론자는 주장과 근거(증거)를 청중에게 전달할 책임(burden of communication)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토론자가 토론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속어나 은어 등을 사용한다면 토론자는 전달의 책임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교육 토론을 지도할 때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 토론의 구조

가. Status Quo(현 상황)와 논제 선정

토론은 Status Quo에서부터 출발한다. Status Quo란 ‘문제가 되는 현 상황’을 말한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현 상황으로 지각하지 못한다면,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Status Quo란 일종의 ‘갈등’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입장 및 시각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 사안에 대하여 문제적이라고 판단하는 일부가 탄생해야 성립되는 것이다. 즉 사회 내부의 일부가 특정 현상 또는 사건, 상황이 문제적임을 인지할 경우에 설정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스크린쿼터제의 축소가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는 경우라면,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Status Quo일 수 없다.

나. 논제 선정시 유의 사항

하나의 중심적인 논쟁점만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예 :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

현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야 한다.(예 : 소극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찬성(긍정)/반대(부정)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배제한다.

정서적인 감정표현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찬성(긍정)측에서 바라는 결정의 방향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급속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의문문이나 부정문 및 명사형 문장은 피하고 긍정의 단문 서술문으로 작성한다.

시의성,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다. 논제의 유형

논제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실 논제(proposition of fact) : 과거·현재·미래의 어떤 현상의 존재 유무에 관한 사실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다. 교육 토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법정 토론은 거의 사실 논제와 관련이 있다. 사실 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과거의 사실 : “갑돌이는 동작은행 지하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
- 현재의 사실 : “한국의 대중전달매체는 정부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 미래의 사실 : “인터넷은 우리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2) 가치 논제(proposition of value) : 가치 논제는 어떤 것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등 가치 판단이 토론의 대상이 된다.

가치 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TV의 폭력성은 어린이의 정서 발달에 해롭다.”
- “한국인은 근면하다.”

- 3) 정책 논제 : 정책 논제는 미래의 행동 방침 또는 정책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다.
 신념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실 논제 및 가치 논제와는 달리 정책 논제는 행동의 변화를 추구한다. 정책 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원의 정년 단축은 65세로 환원되어야 한다.”
- “동성동본 결혼 금지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V 논제의 분석 및 논증

1. 논제의 분석

논제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논의하려고 하는 실제의 쟁점(issues)을 찾아내는 데 있다. 실제의 쟁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 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 논제의 역사적 배경을 탐색하고,
- 논제의 핵심 용어의 정의 및 논제의 기본적인 추론을 만들고,
- 논쟁점이 되고 있는 실제의 쟁점을 결정하는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논증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claims)을 뒷받침하는 증거(evidence)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게 된다. 다시 말해 토론은 증거(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에, 증거와 주장 간에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 논리적 연관성을 추론이라 한다.

주장(claims) : 주장은 우리가 논증을 통해 입증하려고 하는 결론이다. 주장은 논제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별명은 친구 사이를 가깝게 한다.”, “정부에서는 대중 전달 매체의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학교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야 한다.” 등의 논제 자체가 주장이 될 수 있다.

증거(evidence) : 토론자가 일단 주장을 하면 주장의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증거’와 ‘추론’을 제시해야 한다. 토론자의 주장이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확립해 줄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추론 : 토론에서 토론자는 어떠한 주장도 논증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다. 논증은 증거와 ‘증거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였다면, 증거로부터 주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연관성·바꾸어 말하면 ‘증거에 대한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증거와 그 증거에 대한 해석, 그리고 주장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추론이라 한다.

VI 반박

1. 반박

반박(refutation)은 토론의 핵심 요소이다. 반박은 상대측 주장에 대한 오류 또는 부정확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반박의 목적은 상대측의 주장을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는 데 있다. 반박은 상대의 주장에 대한 공격과 자기 팀의 주장에 대한 방어에 활용된다. 상대의 주장에 대한 공격은 직접적 반박이요, 방어는 상대의 반박에 대한 반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간접적 반박이다. 상대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증거 및 추론을 비판적으로 경청하고 면밀히 추적하여 상대측이 범한 오류를 지적하여야 한다.

결국 적절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 과정에서 자주 드러나는 오류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오류

실제적인 토론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논지 부재의 오류 : 겉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따져보면 증거가 없는 오류이다.

1)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주장과 동의어로 증거를 내세우는 오류이다.(예: 김씨는 참말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물에 독약 치는 오류

자기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나쁜 행위라고 규정하는 오류이다.(예: 나의 주장은 양심적인 결론이므로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다.)

3) 복합 질문의 오류

겉으로는 하나의 질문처럼 보이나 다른 하나의 질문을 더 함축하고 있어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는 오류이다.(예: 당신은 자식을 사랑하죠? 당신은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죠? 그러니까 보험을 드셔야겠죠?)

나. 논지 부적절의 오류 : 증거가 있으나 적절하지 못한 경우의 오류이다.

1) 사람에게 호소하는 오류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비난하는 오류이다.(예: 베이컨의 철학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기 때문이다.)

2)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

감정을 움직여 부당한 자기주장에 동정하도록 하는 오류이다.(예: 피고는 가정형편이 어려우므로 석방되어야 한다.)

3) 무지로부터의 논증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참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그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하는 오류이다.(예: 귀신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4) 허수아비의 오류

상대가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상대의 주장인양 내세우고 반박하는 오류이다.

5) 힘에의 오류

약자에게 힘이나 위협으로 설득하려는 오류이다.

다. 논지 부실의 오류

1) 인과의 오류(거짓 원인의 오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원인으로 단언하는 오류이다.(예: 비료를 잘 주었더니 곡이 많이 열렸다.)

2) 우연의 오류

일반적인 원칙을 특수한 경우에도 무조건 적용하려는 오류이다.(예: 친구가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빌려 준 칼을 돌려달라고 할 때 ‘빌린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칼을 돌려주었다.)

3)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몇 가지의 사례만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맺는 오류이다.

라. 언어의 오류

1) 애매성

여러 의미로 쓰이는 낱말을 토론 중에 어느 의미로 쓰였는지 확실히 드러내지 않는 오류이다.

2) 모호성

하나의 뜻을 가진 낱말이지만 적용되는 한계가 분명치 않은 오류이다.(예: 키가 큰 사람이다.)

3) 강조의 오류

같은 문장이라도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오류이다.

4) 결함의 오류

부분의 성질로부터 전체에 성질을 잘못 추론하는 오류이다.(예: 산소는 불을 잘 타게 하는 성질이 있다. 물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물은 불을 잘 타게 하는 성질이 있다.)

5) 분할의 오류

전체의 성질로부터 그 부분들의 성질을 잘못 추리한 오류이다.(예: 우리 집안은 훌륭한 가문이다. 그러므로 나도 훌륭한 사람이다.)

VII 토론의 평가

열띤 공방의 토론이 끝난 후 어느 쪽이 이겼는가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두 팀이 거의 대등하게 경기를 펼쳤을 경우 아무리 주의 깊게 판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양 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토론에서는 심사 결과 동점이 된다 할지라도 무승부(tie)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찬성(긍정)측에 있기 때문에 동점일 경우에는 반대(부정)측이 승리하게 된다. 토론자는 토론이 끝난 후 승패에 관계없이 자신이 수행한 토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청중의 반응 또는 판정인의 판정을 통해 토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어쩌면 교육 토론은 토론이 끝나고 난 뒤 판정 이후부터 배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 토론에서 토론자는 토론에 대한 판정인의 판정뿐만 아니라, 토론에 대한 판정인의 심사평에 대해서도 경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 토론은 토론을 배우고 익히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1. 토론 판정의 준거

토론을 평가하는 잣대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토론을 판정하는 준거 또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토론을 판정하는 준거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장 : 주장이 확고하고, 주장을 구성하는데 사용한 추론이 바른가?

증거 :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건전하고 신뢰성이 있는가?

조직 : 토론이 논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반박 : 토론자가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는가?

전달 : 청중에게 전달하는 화술(話術 : 말의 빠르기, 어조, 말의 강도, 자세, 신체적 언어 등)이 적절한가?

교육 토론에서는 이 밖에 토론의 규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토론은 의사결정자 또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 내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제한된 시간을 넘길 수도 있다. 비공식 토론에서는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으나 공식 토론에서는 이것이 용인되지 않는다. 신체적 스포츠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을 가하듯이 토론에서도 제한 시간의 준수 등의 토론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감점 등의 조치가 따르게 마련이다.

2. 토론 심사표

토론 심사표는 토론의 유형과 학생의 수준에 적절한 심사표를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준형 토론의 판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심사표는 상황에 맞게 만들어 사용한다.

3. 토론 판정의 방법

가. 단수 판정인에 의한 심사

토론 평가에 조예가 깊은 토론 판정 전문가가 사전에 준비된 판정 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방법이다. 토론을 처음 지도할 때 지도교사가 하는 방법이다.

나. 복수 판정인에 의한 심사

토론 평가에 조예가 있는 토론 판정인이 사전에 준비된 판정 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방법이다. 보통 3인, 5인에 의한 평가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 청중에 의한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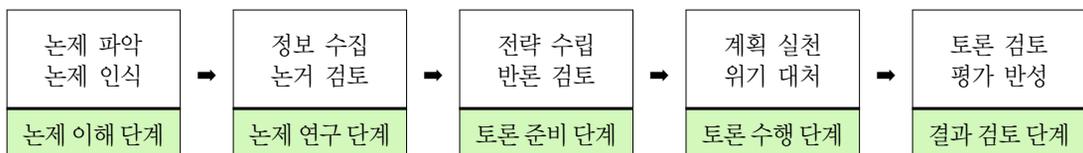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배부된 심사표 양식에 의거 청중이 심사하는 방법이다.

VIII 토론 학습

1. 토론 학습의 일반적 절차

토론은 승패만 가리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토론수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먼저 교과 내용을 분석하여 어떤 단원에 토론수업을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 적절한 논제를 설정한 후, 토론 유형과 집단 구성을 결정하고, 토론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도록 한다. 그리고 수업을 전개하고, 이를 종합, 정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 교실 상황에 적용 가능한 토론수업 모형은 많이 있지만, 민족사관고등학교 토론교육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 단계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각 단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논제 이해 단계 : 토론자들은 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논제가 왜 논쟁거리가 되는가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고, 쟁점으로 부각된 내용과 관련된 학생들의 경험을 조직하고 정리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라

는 논제라면, 언제부터 그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그것을 입안할 당시의 교육 상황과 정책 결정의 사회적 배경은 어떠하였는가를 조사해 보게 한다든가, 현재의 각종 사회 조사에서 나타나는 의견의 경향을 확인하는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나. 논제 연구 단계 : 토론자들은 논제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관련된 이론과 지식을 폭넓게 정리하여 소화하며, 쟁점의 논거를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이 단계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토론이 단순한 ‘말 연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논제와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고 조직하고 분석하는 경험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은 어떤 사회문제와 관련을 지니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게 하면, 거기에는 입시 위주의 교육의 폐해, 사교육비 부담, 학교 교육의 비정상화 등 교육적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생활 격차, 사회 경제적 계층 구조와 교육의 관련성, 학력 구조의 변천과 사회 변동의 형태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다. 토론 준비 단계 : 논제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를 잘 정한 후, 토론을 어떤 전략과 기법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논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실한 사실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완벽한 논리적 추론을 구사하는 전략을 세우야 하고, 심판이나 청중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바가 설득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토론자가 자신의 주장을 펴는 전략을 세우거나, 상대방의 반론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논거나 이유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같은 편의 토론자들을 지지하는 논거를 검토하는 과정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라. 토론 수행 단계 : 적정한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고 예상치 않은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면서 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토론을 하다 보면 토론 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때로는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상대팀의 비판이나 공격에 대응하는 순발력, 기동성, 적절성, 그리고 자극적 발언에 대한 인내심과 자제력도 토론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마. 결과 검토 단계 : 토론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돌이켜 검토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토론 그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혹은 부분적인 평가도 필요하지만, 토론자가 발언한 내용, 방법, 전략, 기술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토론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를 반성해 보는 일이다. 쟁점에 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으며, 어떤 면이 부각되었고, 결론은 어떻게 내려져야 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토의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2. 토론 학습의 단계

가. 준비 단계

1) 논제 선정

가) 논제 선정의 중요성

토론은 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논제를 선정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토론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수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논제를 선정할 때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토론 논제는 단 하나의 중심적인 쟁점만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찬반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표현은 배제해야 하며, 찬성 측에서 바라는 결정의 방향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¹⁾

어떤 논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토론 주제가 토의 주제로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가?’, ‘체벌은 정당한가?’와 같은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의 두 가지 대답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토론 논제가 된다. 그러나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처벌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혹은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것은 찬반이나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토의 주제가 된다.

나) 논제의 선정 기준

- (1)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논제 : 토론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잘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전개해야 한다. 논제는 교과서에서도 찾을 수 있고, 생활 경험이나 사회 문제를 반영한 시사적인 논제도 있을 수 있으나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도 ‘학생들의 다이어트 어떻게 볼 것인가?’, ‘친구의 별명을 불러도 되는가?’ 와 같이 가능하면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논제라면 더 좋을 것이다.
- (2) 구체적인 논제 : 좋은 논제라고 해도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한 문제를 선정하면 토론이 너무 간단하게 끝나거나, 시간만 무의미하게 흐를 수도 있다. 가능하면 학생들이 토론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떠오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3) 근거 자료가 많은 논제 :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자료 준비에서 오는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가 적은 논제보다는 자료가 풍부해야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 (4) 자기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논제 : 논제는 참여자들에게 나 또는 우리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어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는 논제라면 적어도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여 나의 삶이나 우리의 현실, 또는 교과과의 어떤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토론수업을 하려 할 때, 무엇을 논제로 선정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 강태완 외, 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37

2) 토론 유형 선정

다양하게 개발된 토론 유형 중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수업 모습이 달라진다. 따라서 교사는 여러 가지 변인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토론 유형을 선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은, 논제의 특성 및 성격, 학습자의 학년이나 발달 정도, 학습자의 토론 방법 숙달 정도, 토론 지도에 대한 교사의 숙달 정도, 학교 환경 및 교실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제의 특성 및 성격,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 유형을 선택하기에 앞서 토의나 토론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일반적으로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토론이 유용하고, 공동의 관심사이거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토의가 유용하다. 실제 수업 장면에서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의를 하기도 하고, 토론을 기본 설계로 하면서 교수 학습 과정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업 형태(강의, 협동 학습, 논술 등)를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3) 토론 모둠 편성

가) 집단의 크기 결정

집단의 크기는 토론의 목적, 논제의 성격, 공간적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단이 커지면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지 못하고, 개별 학습자들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토론에 있어서도 소집단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그 구성원 수는 과제의 성격, 학습자의 인지 능력, 학습자의 토론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6명 정도가 적당하다.

소집단 토론은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할 때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나) 집단 구성 방법

집단 구성의 기준으로는 논제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나 학업성취도, 발표력 및 관심도, 대인 관계 및 성별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토론 논제와 진행 절차 및 방법에 가장 적합한 집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 외에 번호 순서나 제비뽑기로 구성하는 방법,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둠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번호 순서나 제비뽑기로 모둠을 편성할 경우 리더를 할 만한 학생들이 어느 한 모둠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둠을 구성할 경우 모둠 편성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 구성원의 자리 배치

집단 구성원의 자리 배치는 소집단(모둠)별로 토론하는 경우와 대표 집단이 나와서 토론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집단(모둠) 토론수업을 진행하려면 집단의 구성원들이 책상을 돌려서 마주보고 앉는 것이 좋다. 대표 집단이 나와서 토론하는 경우에는 교실 환경이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전면 중앙에 사회자가 있고, 좌우로 토론자를 배치하고, 청중을 토론자와 마주 앉아서 토론자의 말과 행동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배심원이 청중과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토론자들을 관찰하기 유리한 청중석의 앞자리 등에 배심원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VIII 토론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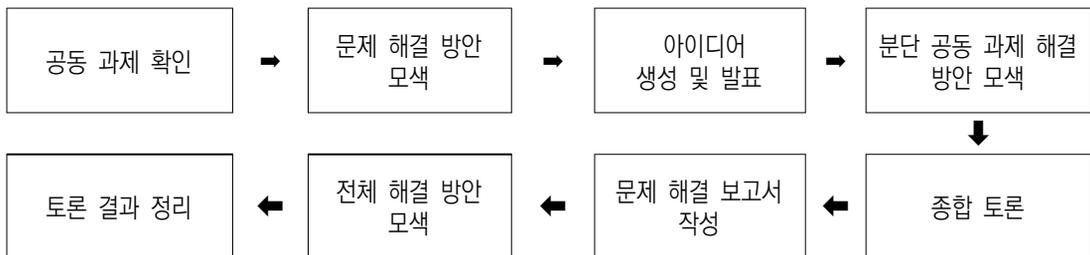
각 수업에서 제시된 토의 토론 방법은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러한 토의 토론 유형 외의 것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브레인 스토밍 (brainstorming)

1941년 매디슨 애버뉴(Madison Avenue)의 홍보팀 중역이던 Alex F.osborn이 광고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고안한 기법으로 처음 사용하였다. 자유롭고 제한 없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시키는 발산 기법이다. 자유 연상법에 속하며, 하나의 의견이 다른 의견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풍부한 의견을 발생시켜 창조적이 아이디어를 만들 때 사용한다.

여러 사람이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내놓고, 그 자극 작용에 의해 보다 나은 아이디어나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아이디어를 집단의 집중적 토론에 의해서 사고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 하는 것이다.

가. 단계



나. 참가자의 역할

- 1) 사회자 : 참석자들에게 토론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발언에 대한 판단은 뒤로 미뤄야 한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견해는 수용하고 격려하며 제출된 의견의 분량을 조절한다.
- 2) 참가자 : 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등의 의문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다. 수업 활용

‘이번 학교 축제에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할 것인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학급 규칙으로 무엇을 제정할 것인가?’ 와 같은 문제에 활용할 수 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연스럽게 발표하도록 하고, 사회자는 발표 내용에 대하여 지나친 조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 브레인 스토밍의 기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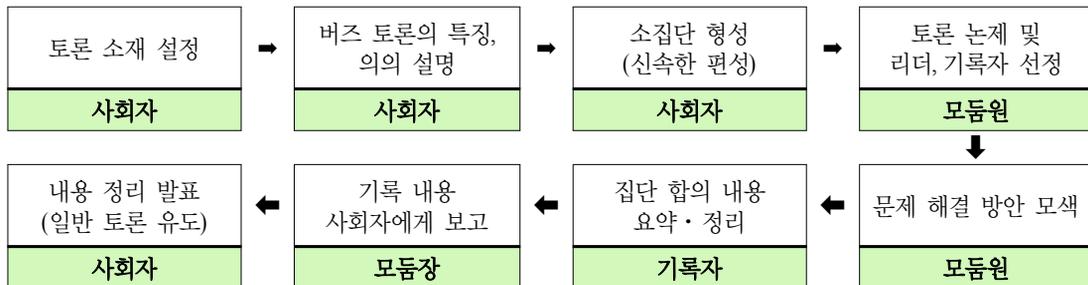
- 1) 비판 금지의 원칙 : 브레인 스토밍 과정이 끝날 때까지 타인과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에 대하여 비판을 금지한다.
- 2) 자유분방의 원칙 :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3) 질보다 양 우선의 법칙 : 바로 도움이 되는 질이 좋은 아이디어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제시한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이 높다.
- 4) 결합과 개선의 원칙 : 브레인 스토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공유 재산으로 본다. 한 구성원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개선하거나 결합하여 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은 집단 협력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

2. 버즈(buzz) 토론

버즈 토론은 원래 미시간 대학의 필립스(J. D.Phillips)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한 논제에 대하여 6명씩 구성된 각 모둠이 6분간 토론한다고 해서 6·6법이라고도 하는 데 대체로 3~6명으로 구성되는 소집단 토론 방식이다. Buzz란 ‘벌들이 웅웅’거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토론이 시작되면 벌집을 흔든 것처럼 떠들썩하다고 하여 ‘와글와글 학습’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소수 인원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참가자 상호간의 친근감을 갖게 하고 각자의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태도로 토론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 단계



나. 참가자의 역할

- 1) 사회자 : 논제를 선정하고 버즈 토론 방법을 설명하며, 제한 시간이 지나면 처음 상태로 다시 모여 합의된 의견을 한 가지씩 발표하도록 한다.
- 2) 모듬장 :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합의된 의견을 도출한다.
- 3) 기록자 : 팀원들이 제시한 견해를 기록하고 토론 시간이 끝난 후에 소집단의 견해를 전체에게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다. 수업 활용

이 방법은 문제나 개념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흥미를 갖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교실 수업 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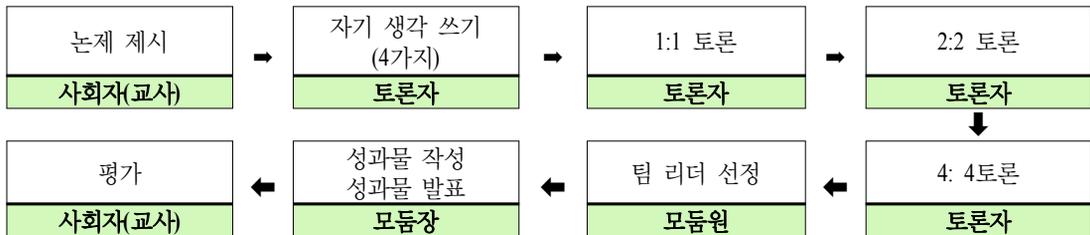
서 흔히 이루어지는 모둠 활동을 생각하면 되지만 다른 토론 형태와 달리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교사는 논제 설정, 집단 구성, 그리고 토론 활동을 관찰하며 활동이 끝난 후에 토론 활동에 대하여 학생들과 논의를 한다. 강연회, 배심토론, 영상물 감상 등이 끝난 후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토론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토론이나 강연회 등의 예비 토론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소집단별 토론 학업, 야영 활동 및 각종 수련회, 현장 수업 등 각종 행사나 행사 준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사용 가능하다.

3. 피라미드(pyramid) 토론

피라미드 토론이란 엄밀히 말하면 역피라미드 토론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루어 내는 토론 방식이다.

주어진 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브레인라이팅 기법에 의해 1인당 색종이 카드를 4매씩 작성한 후, 옆 사람과 1:1 토론 과정을 거쳐 카드 매수를 4매로 압축한 다음, 다시 다른 팀과 2:2 토론 과정을 거쳐 매수를 4매로 압축한다. 다시 다른 팀과 4:4의 토론 과정을 거쳐 매수를 4매로 압축하고 점차 확대해 간다. 참여자의 수에 따라 최종 2-4개 팀이 남을 때까지 진행하고, 팀별로 발표할 대표자를 선정한다. 마지막 4매의 카드를 종이에 붙이고 대표자가 전체 앞에서 발표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구성원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본인 주장을 상대방에게 이해, 설득시키는 훈련을 터득하며, 토론 내용에 대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준비물 : 색종이, 카드, 매직펜, 전지종이, 최종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핀 보드 2개와 핀 또는 자석)

가. 단계



피라미드 토론의 단계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기 생각 쓰기 :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1인당 4가지씩 찾아내 적는다.
- 2) 1:1토론 : 옆 사람과 1대 1로 짝을 짓고 상대방을 설득한다. 총 8개의 방안 중 4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다.
- 3) 2:2토론 : 옆 사람과 2대 2로 짝을 짓고 상대방을 설득한다. 총 8개의 방안 중 4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다.
- 4) 4:4토론 : 옆 사람과 4대 4로 짝을 짓고 상대방을 설득한다. 총 8개의 방안 중 4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다.
- 5) 모듬 성과물 작성 : 최종 8명이 한 팀이 되어 모듬 성과물을 작성하고, 모듬 대표자 1명을 선정한다.
- 6) 모듬 패널 발표 : 모듬 대표자가 성과물을 발표하고, 그 성과물 발표를 평가한다.

나. 참가자의 역할

- 1) 사회자 :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발표한 내용을 평가한다.
- 2) 모둠장 : 모둠에서 작성한 성과물을 발표한다.
- 3) 토론자 : 각자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을 설득한다.

다. 수업 활용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자의 입을 열게 하는 활동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다. 다른 토론 형태와 달리 처음에는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1:1 짝 모둠이 형성되면 두 사람이 다른 상대편인 두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한 공동 작전을 펼쳐 나간다. 이렇게 네 사람, 여덟 사람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좀 더 논리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고,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토론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적용하거나 여러 가지 대안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할 때나 조직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합의안을 도출할 때 효과적이다. 단, 시간이 부족하여 여유 있게 토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 배당에 유의해야 한다.



- 김복순(2007), 토론의 방법, 국학자료원
 숙명여대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2006), 세상을 바꾸는 발표와 토론, 숙명여대 출판부
 오인영(2007), 토론의 힘, 중등국어교육심화 단계 직무연수
 중등토의토론교육연구회(2005), 토의 토론수업의 이론과 실제,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
 김주환(2007), 교실 토론의 방법, 나라말
 서울교육연구정보원(2008), 토론수업길라잡이
 서울중등독서토론논술교육연구회(2011), 제4회 서울 고등학생 토론대회 교사연수자료
 케빈 리(2011), 대한민국 교육을 바꾼다 Debate, 한겨레에듀
 임영규 (2005), 독서는 힘이세다, 다산북스

Ⅲ. 직소모형 활용한 찬반토론 수업



- Ⅰ. 토론 수업의 주안점
- Ⅱ.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
- Ⅲ. 토론 수업 환경 조성
- Ⅳ. 토론 수업 전개
- Ⅴ. 정리 및 평가
- Ⅵ. 다른 단원 적용 사례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 반응을 보이지만 인간은 학습에 의해 습득한 원칙이나 생각에서 행동이 비롯된다. 이렇게 오랜 동안 습득된 원칙이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심리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말과 생각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야 경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소 모형 활용 토론수업은 상호신뢰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배경지식을 학습하는데서 비롯된다. 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해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력을 강화하는 수업이라 할 수 있다.

Ⅲ. 직소모형 활용한 찬반토론 수업

I 토론 수업의 주안점

1. 연계 단원과 단원 설정 이유

가. 연계 단원 : 언어와 국어의 세계

나. 적용되는 단원 이해와 직소 토론 방식 설정 이유

이 단원에서는 언어의 보편적 특성을 이해하고 국어의 고유한 특성까지 알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말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 봄으로써 정체성을 심어주고, 언어 창조의 합리적인 태도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직소 모형을 토론 수업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직소 모형은 협동학습의 하나로 모둠원이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경지식을 익히는 전문가 활동을 강조하는 수업 방법으로써 학생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어 배경지식을 얻게 되고 전문가로서 얻게 된 배경지식은 언어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언어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 토론을 통해 청소년의 언어 사용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의미있게 하기 위해 배경 지식을 먼저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소 모형을 활용해 보는 것이다.

토론은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공부가 바탕이 되고, 그 공부 위에 합리적인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학생들은 말을 할 줄 몰라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정은 학생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직소 모형 활용 찬반 토론을 하기 전에 핵심 개념부터 알고 가도록 한다.

2. 핵심 개념

● 직소 모형

이 모형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주제를 5~6명의 이질집단으로 나누고 학습할 단원을 집단구성원의 수에 맞도록 쪼개서 각 구성원에게 한 부분씩 할당한다. 한 학습은 여러 개의 Jigsaw집단을 가지며 각 집단에서 같은 부분을 담당할 학생들이 따로 모여 전문가 집단(counterpart group)을 형성한다. 이 전문가 집단의 학생들은 소주제의 분담된 내용을 토의하고 학습한 후에

자기가 소속된 모집단으로 되돌아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책임지고 가르치는 개인의 책무성을 극대화하는 수업 형태이다.

다른 소주제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배우는 수업 형태이므로, 어느 누구도 집단 내 다른 동료의 도움 없이는 학습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교사는 더 이상 학습 집단의 주된 자료원이 아니며 오히려 집단 구성원들은 서로가 주된 학습 자료원이 된다. 또한 각 학습자는 학습 단원의 일부분만 학습 자료로 제공받지만, 학습 단원 전체를 평가받는다. 그러므로 소집단 구성원은 학습 단원 전체를 공부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한 조각의 그림과 같은 이치이다. 즉 보상구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과제 분담 구조를 통해서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협동학습모형이다.

● 협동학습

협동학습이란 ‘학습 효과를 최대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들 서로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사용하는 수업 전략’이다.(Johnson & Johnson, 1993) 즉, 협동학습이란 학습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목표를 향하여 소집단 내에서 함께 활동하며 협동할 줄 아는 인지적 성장과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는 학습력의 성장을 도모하는 수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열악한 우리 교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협동학습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 교수 학습 방법에 비해 학급 인원수가 많은 다인수 학급이라는 열악한 교육 현실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협동학습을 현장에 실천해 보면 바로 학습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협동학습은 특별한 교육 시설이 없어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협동학습이 추구하는 함께 나누는 협동 철학이 우리의 국민 정서와 일치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 신호등 토론

어떤 문제에 대해 참가자의 의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론 주제를 선정하거나, 참가자 다수의 의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토론자에게 빨강, 노랑, 초록 카드를 각각 한 장씩 나누어 주고, 사회자가 제시하는 주제를 듣고 찬성 의견을 가진 토론 참가자는 초록색 카드를, 반대 의견을 가진 토론 참가자는 빨강색 카드를, 중립은 노란색 카드를 들어 의견을 표현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참가자에게 이유를 물어보거나 듣기도 한다. 참가자가 제시한 주장에 다시 찬성, 반대, 중립의 카드를 들어 의견을 나타냄으로써 토론 참가자 전체의 의견을 한눈에 살펴보고, 찬성과 반대로 모둠을 나눌 때 활용하기도 하고, 토론 참가자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 수도 있다. 또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짧은 토론에 해당한다.

Ⅱ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

1. 성취기준

[문법 1]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한다.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깊이 이해하면 언어를 단순한 도구나 매체로 보지 않고 학습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언어의 본질에서는 자의성,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등을 지도한다.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성취수준	
2941.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한다.	2941-1. 실제 언어 생활과 관련지어 언어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상	언어의 자의성,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등에 대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고 언어 창조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중	언어의 자의성,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등에 대하여 주어진 자료의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언어 창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	언어의 자의성,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가.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

〈출발점〉

“외래어, 외국어는 무조건 우리말로 바꾸어야 순화시켜야 해.”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이해하는 일은 너무 어려워.”
 “생각하기와 언어는 상관이 없는거야.”



〈목표점〉

“외래어, 외국어 중에서 우리말로 순화시켜야 하는 것과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을 구별해야겠구나.”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구나.”
 “생각하기와 언어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나. 학습목표

첫째, 언어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친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직소 모형을 활용한 찬반 토론에서 언어의 본질을 근거로 ‘바람직한 우리말 창조’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Ⅲ 토론 수업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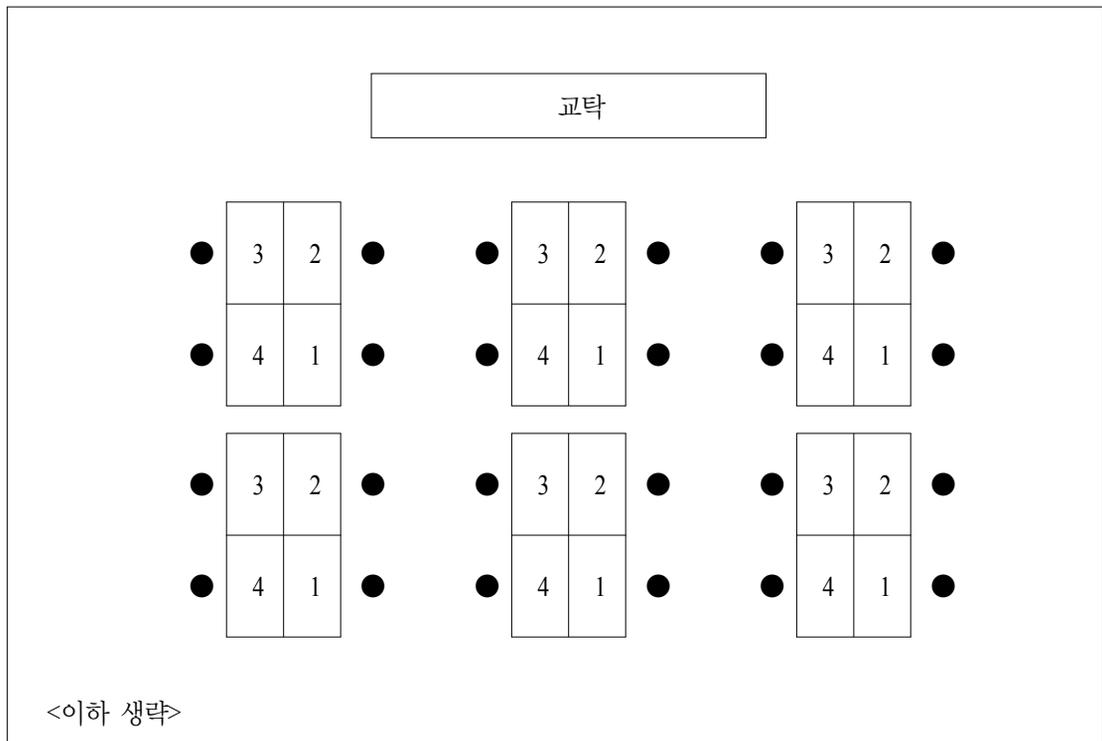
1. 모둠 편성하기

한 모듬의 규모는 4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읽기 자료를 번갈아 말하기 위해서이다. 5~6명으로 구성하면 시간 소요가 많아지게 되고 소외되는 학생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소란스러울 수 있다. 또 그 수가 너무 적어도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모듬원의 구성은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는 전체 모듬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성적 분포가 골고루 섞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본 수업에서는 학기 국어과 점수를 기준으로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학생과 가장 낮은 학생을 1명씩 배치하고, 나머지 2명은 중간 성취도의 학생으로 적절히 배치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뽑기 과정을 거쳐야 무작위로 선정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토론의 경우 성적이 말하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이지 않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이 있는 것이 모듬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2. 자리 배치

자리 배치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되어 있어야 하고, 4명이 마주 보는 형태로 배치한다. 또 모듬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Ⅳ 토론 수업 전개

토론 주제 : '청소년이 사용하는 줄임말을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

【논제 선정 이유】

언어에는 자국의 고유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언어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역사성, 사회구성원의 약속인 사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지는 약속인 규칙성, 그리고 자의성과 창조성 등을 통해서 고유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 흐르고 흘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다. 제도나 사물이 새롭게 시도되고 사용되면서 만들어지고, 계층이나 대상, 지역에 따라 문화를 반영한 언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매체가 발달되고 청소년들의 매체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는 언어 표현이 많아졌다. 부호나 기호를 활용하여 이모티콘을 만들어 전달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말들이 계층에 따라 소통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간단하게 줄여 언어 표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 말하는 줄임말의 경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사회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줄임말을 표준어로 정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말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에 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1. 수업 개요

- 대상 : 전체
- 인원 : 36명
- 수준 : 중학생 1학년
- 소요시간 : 90분(블록수업)

2. 준비물



신호등 토론용 삼색 카드, 활동지, 토론지, 초시계,
음악(생상스의 동물사육제 중에서)

3. 수업의 흐름

가. 전시 학습 확인: ‘사람은 사람이다’를 읽고 언어의 본질과 연계하기

“언제나 그 책상이 그 책상이구나.”하고 그 남자는 중얼거렸다.

“언제나 똑같은 책상, 언제나 똑같은 의자들, 똑같은 침대, 똑같은 사진이야. 그리고 나는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고, 사진을 사진이라고 부르고, 침대를 침대라고 부르지. 또, 의자는 의자라고 부른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지?”

프랑스 사람들은 침대를 ‘리’라고 하고, 책상을 ‘타블’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림을 ‘타블로’라고 하고, 의자를 ‘셰즈’라고 부른다. 그렇게 부르면서도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다 알아듣는다. 또, 중국 사람들도 우리와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데도 자기네끼리는 말이 통한다.

‘왜 침대를 사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껄껄 웃기 시작했다. 옆방 사람이 벽을 두드리며 “거 좀 조용히 합시다.”하고 고함을 지를 때까지 그는 웃고 또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그는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피곤하군, 이제 사진 속으로 들어가야겠어.”라고 말하고는 침대 위에 누웠다.

그날 이후,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한참 동안 사진 속에 누운 채로 의자를 무엇이라고 부를지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의자를 ‘시계’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는 아침에 ‘사진’ 속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시계’ 위에 앉아 양팔을 책상 위에 괴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의자는 시계라고 부르는데 책상을 ‘책상’이라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책상을 ‘양탄자’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는 아침에 ‘사진’ 속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양탄자’에 놓인 ‘시계’ 위에 앉아 있게 된 것이다. 곧 그는 방 안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부르기로 했다.

침대는 사진이라고 불렀다. 책상은 양탄자라고 불렀다. 의자는 시계라고 불렀다. 신문은 침대라고 불렀다. 거울은 의자라고 불렀다. 시계는 사진첩이라고 불렀다. 옷장은 신문이라고 불렀다. 양탄자는 옷장이라고 불렀다. 사진은 책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진첩은 거울이라고 불렀다.<중략>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옛날에 쓰던 원래의 언어를 대부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파란 공책에 원래의 단어를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려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의 사진을 사람들은 침대라고 부른다. 그의 양탄자를 사람들은 책상이라고 부른다. 그의 시계를 사람들은 의자라고 부른다. 그의 침대를 사람들은 신문이라고 부른다. 그의 의자를 사람들은 거울이라고 부른다. 그의 사진첩을 사람들은 시계라고 부른다. 그의 신문을 사람들은 옷장이라고 부른다. 그의 옷장을 사람들은 양탄자라고 부른다. 그의 책상을 사람들은 사진이라고 부른다. 그의 거울을 사람들은 사진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지경이다.

누군가가 “내일 선생님도 축구 보러 가실건가요?” 하고 말하면, 그는 큰 소리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벌써 두 달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군요.”라든가, “제 삼촌이 미국에 계세요.”라는 말도 우습기는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말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어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좋은 책으로 ‘책상은 책상이다.’(페터 빅셀 지음, 예담출판사)를 선택하였다. 등장인물인 늙은 남자가 사물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고 학생들은 언어의 창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질문을 통해 늙은 남자의 행동과 언어와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교사** : ‘책상은 책상이다’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모두원이 서로 의논하여 답을 말해주기 바랍니다.
- **교사** : 사물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부르는 늙은 남자의 행동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 ☞ **학생** :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창조성(創造性, creativity)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무한적이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입니다. 늙은 남자는 언어의 무한한 창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 **교사** : 대답을 잘 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물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어 부르게 됨으로써 이웃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된 늙은 남자의 생활을 통해 알 수 있는 언어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생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 ☞ **학생** :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늙은 남자는 이와 같은 언어의 사회성을 무시하여 이웃사람들을 만나도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늙은 남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고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 **교사** : 인간이 이처럼 자신만의 언어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고, 이를 기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언어 사용에 대한 특징을 동물의 언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듣고 어떤 동물의 소리를 연상하게 하는지 알아 맞추어 보세요.

나. 동기유발 활동: 음악을 듣고 동물 알아맞히기

학생들에게 생상스의 동물사육제를 들려주고 어떤 동물을 표현한 것인지 알아맞히어 보도록 한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는 제1곡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그리고 제2곡 -수탉과 암탉 등 14곡으로 되어 있다. 먼저 제1곡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을 들려준다. 이 곡은 어떤 동물을 표현한 것인지, 어떤 소리 때문에 그 동물을 연상하게 되었는지 발표하게 한다. 그 다음 제2곡 -암탉과 수탉은 쿵쿵 짙는 듯한 2대의 피아노 소리, 클라리넷과 바이올린, 비올라 등으로 편성된 곡으로 암탉과 수탉이 모이를 쪼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제1곡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은 피아노와 현악기로 사자의 늠름한 모습을 묘사했다. 서주에서 피아노의 부산한 연타와 저음현의 위협적인 연주가 크레센도로 연주된 다음, 피아노가 당당한 행진곡 리듬을 연주하는 가운데 여섯 번째 마디부터 등장하는 묵직한 현악 합주가 사자왕의 등장을 알려준다. 행진곡 리듬의 간주 뒤에 주제가 세 번 반복되

면서 셋잇단음 음형이 출현하는데 이것은 사자왕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이윽고 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반음계의 움직임으로 변하여 위압감을 더해준다. 음악을 통해 동물의 소리와 인간의 언어에 대해 살펴보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한다.

다. 내용 정리 및 목표 확인: 동물의 소리와 언어의 차이

- **교사** : 여러분은 음악을 듣고 동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이를 콧코 짚는 새 중에서 암탉과 수탉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으르렁거리는 소리에서 사자를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툭툭툭 모이 짚는 소리나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언어일까요?
- ☞ **학생** : 언어가 아닙니다. 그 소리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이상 자유롭게 의미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 **교사** :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무한한 의사 전달의 표현이 불가능하고, 정보의 복합적 표현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한된 몇 가지의 의사 전달 내용만이 전달될 뿐이고, 그 내용도 유전적으로만 다음 세대로 이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동물의 언어는 유한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언어는 소리에 의미가 함재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호등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체 의견 파악: 신호등 토론

1) 신호등 토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 참가자의 의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론 주제를 선정하거나, 참가자 다수의 의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토론 방법이다.

2) 신호등 토론 수업의 흐름

하나, 학생 모두에게 초록, 빨강, 노란 색의 종이카드를 배부한다. 색깔이 있는 삼색 카드면 신호등 토론이 가능하다.

둘, 교사 또는 진행자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찬성, 반대, 중립의 의견을 정한다. 토의 주제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부분 우리말로 순화시켜서 사용해야 한다.’와 같이 대립 의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주제로 신호등 토론을 실시한다.

셋, 찬성일 경우, 초록색 카드를, 반대일 경우 빨간 색 카드를, 중립일 경우 노란 색 카드를 들어서 의견을 표현하도록 한다.

<예시>

- **사회자** : “나는 바리스타를 커피전문가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카드를 들어주세요.”

넷, 학생들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 카드를 들어 의견을 표현한다. 이 때 사회자는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둘러보게 하고, 전체의 의견에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를 보고 다음 판단을 유도한다. 또는 찬성과 반대가 반반 정도로 표현된 경우, 바로 찬성과 반대로 편을 나누어 짧은 토론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사회자는 주제와 관련하여 각각의 카드를 든 학생에게 의견을 발표하게 한다.

〈예시〉

- **사회자** : “왜 바리스타를 커피전문가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초록 색 카드를 든 학생** : “바리스타는 외국에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순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빨간 색 카드를 든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왜 바리스타를 커피전문가로 바꿔 부르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 **빨간 색 카드를 든 학생** : “언어는 그 말을 만들어 부르게 된 나라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스타도 커피전문가보다 더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모두 살려서 그대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속에서 언어도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자** : “이 의견에 대해 반대 의견 있습니까?”
- **초록색 카드를 든 학생** :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언어를 그대로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것들을 어떻게 지켜가야 합니까? K-POP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우리나라가 더불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말로 인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우리말로 순화된 말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 **빨간 색 카드를 든 학생** : “물론 우리나라의 고유한 것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김치’를 외국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성격이 강한 말들은 그 의미를 모두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제도, 물건 등을 만들어서 더 많이 외국에 수출하여 우리말을 알리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노란색 카드를 든 학생을 설득하는 방향에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 초록색과 빨간색의 카드를 든 학생들이 노란 색의 카드를 든 학생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토론의 기본인 설득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신호등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전체의 의견을 살펴본다. 우리 고유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대부분의 외국어, 외래어를 순화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세계화에 맞추어 제도, 물건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언어의 사회성, 창조성 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은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신호등 토론 수업의 유의점

신호등 토론은 전체 학생들이 바른 자세로 듣고 큰소리로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립의 생각을 가진 학생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언어의 바람직한 창조 태도’에 대해 직소 모형을 활용하여 찬반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한다.

마. 모둠 내 직소 모형 활용 찬반 토론의 실제

1) 직소 모형의 목적과 특징

직소는 직소 퍼즐처럼 부분을 맞추어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과제를 배타적으로 분담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개별적 책무성을 가지게 되어 학습동기가 강화되고, 다른 동료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인성적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동료에게 배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청하는 태도로 길러지게 된다.

직소 학습 모형은 이전에 교사가 전문가로 등장하고 학생들 대부분이 듣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전통적인 경쟁 학습 구조를 소집단 협동학습 구조로 바꾼 것으로 모둠 구성원이 서로가 주된 학습 전문가가 되어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각 개인은 모둠 구성원의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과제 분담 학습 모형이라 할 수 있다.

2) 모둠 내 직소 모형의 특징

직소 모형은 모둠원이 각자 맡은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뒷마무리가 분명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학습이 이루어진 뒤 원래의 모둠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둠 내 직소 모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둠 내에서 영역별 전문가 과제를 제시하고, 같은 모둠원에게 이를 설명하고 전달하는 가운데 배경 지식을 학습하게 되고, 설득력을 갖게 된다. 또한 듣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직소 모형 활용 찬반 토론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3) 모둠 내 직소 모형 활용 찬반 토론 활동 전개

가) 4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하여 전체 8 모둠을 형성한다.

나) 교사는 4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과제를 제시한다.(언어의 본질 읽기 자료)

<p>1. 언어의 창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무한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 인간과 동물의 언어 차이 	<p>2. 언어의 사회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속 과정과 그 예 •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
<p>3. 언어의 역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가 역사적으로 변화되는 예 • 언어의 변화 과정 	<p>4. 언어의 규칙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구조 • 언어의 규칙이 정해지는 의미

다) 1~4까지의 과제를 모둠원에게 고루 분담하고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5분의 시간을 준다.(초시계)

- **교사** : 첫 번째 활동은 내가 먼저 공부하는 활동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언어의 여러 가지 본질에 대해 배경지식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꼼꼼하게 읽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언어의 특성이 설명되어 있는 학습지의 내용을 5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친구에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 **학생** : (언어의 특성을 설명한 자료를 읽으며 메모하고 공부를 한다.)

과제 1

1. 언어의 창조성 -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무한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몇 개일까요? 수만 개? 수억 개? 과연 그 개수를 세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목련이 벚꽃을 잡아먹었어. 그런데 목련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식물 병원에 갔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했는데, 목련이 입을 ‘아’하고 벌리자 목련 안에 있던 벚꽃이 어느새 참새로 변해서 파닥파닥 도망갔대.”

글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나요? 목련이 벚꽃을 잡아먹었는데, 그 벚꽃이 참새로 변해서 도망갔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러한 내용을 예전에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혼자 상상한 내용을 쓴 것이니까요.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제 무얼 샀니?”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가방을 샀어.”, “신발을 샀어.”라고만 말하지 않고, “어제 가방을 사고, 신발을 사고, 모자도 샀어.”라고 문장을 무한히 늘려 대답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말을 하거나, 새로운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언어가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벌이 춤을 추면 ‘여기에 먹이가 있어요.’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다른 벌이 새로운 춤을 추어도 새로운 의미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먹이가 있어요.’라는 의미만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의 전달과정과 그런 교육이 가능한 기관이 동물들에게 없기 때문에 창조적인 학습이 불가능하죠. 동물은 의미와 말소리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새로운 표현의 창조성은 인간 언어만의 특징입니다.

● 설명할 내용 정리

과제2

2. 언어의 사회성 - 언어는 그 사회 구성원 사이의 약속입니다.

예부터 대장간 촌이라 불렀던 한 농촌 마을. 대장간 ‘야(冶)’에 고을 ‘동(洞)’을 써서, ‘야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야한 동영상’의 줄임말처럼 들리면서 뜻밖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명을 딴 여러 상점도 매우 난처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조롱에 시달리다가 결국, 학교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충북의 한 마을 이름은 ‘대가리’입니다. 큰 ‘대(大)’에 더할 ‘가(加)’, 융성하라는 뜻의 ‘대가’가 원래 이름인데, 하필 행정 단위인 ‘리(理)’가 붙어 버렸군요. 이 마을의 이름은 뜻밖에 웃음거리가 되어 동네 주민 3분의 2가 동의하고 시군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지명을 개명해 주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장지중학교는 학교 이름이 놀림의 대상이 되자 ‘문현중학교’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말은 그 언어를 쓰는 사회구성원이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 되므로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예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연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연필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공책을 집으셨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이 수업 시간에는 공책을 ‘연필’로, 연필은 ‘공책’으로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연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얼른 공책을 드렸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가 새로운 약속을 하니까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언어의 내용과 표현이 약속에 의해 결합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정해진 것은 선생님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반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선녀’로 약속하고 “선녀 온다.”라고 하면 “담임선생님 오신다.”로 이해가 가능하나 혼자서 내 기준으로 담임선생님을 ‘선녀’라고 정하고 ‘선녀 온다.’라고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혼란이 오게 되게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의미를 정해서 쓰면 사회 구성원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언어는 사회 구성원이 그 언어를 사용하자고 약속한 경우에만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설명할 내용 정리

과제3

3. 언어의 역사성 -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언어란 한번 그 의미와 기호가 정해지면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언어의 사회성이지요. 그런데 옛날에 정해졌던 언어는 처음 정해진 그대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어의 소리와 의미가 변하거나 문법 요소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서울’은 예전에 ‘서블’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벼슬의 이름이었던 ‘영감’이 현대에 와서는 ‘나이 든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그 남편을 부르는 말’, 혹은 ‘중년이 지난 남성을 대접하여 부르는 말’로 바뀌기도 했지요. 이런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답니다.

언어가 변하는 경우는 가람과 강처럼 같은 대상을 표현하던 말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이긴 쪽이 계속 쓰이고 다른 쪽은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세종대왕이 말한 ‘어린 백성’에서 ‘어린’은 예전에 ‘어리석은’을 뜻하다가 지금은 ‘나이가 적은’으로 뜻이 변한 말도 있어요. 또 ‘개야미’가 ‘개미’로 말소리가 변한 말도 있답니다.

또 언어는 새롭게 생겨나기도 해요. 새로운 개념이나 대상이 생기면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정보화 시대와 관련된 용어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국어에는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지요. ‘컴퓨터’, ‘와이파이’ 등도 기술 발전과 함께 정보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새로 생긴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언어는 마치 생물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겨나고 끊임없이 변하며, 어느 순간 없어지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불러요.

● 설명할 내용 정리

과제4

4. 언어의 규칙성 - 언어는 규칙 속에서 존재합니다.

어제의 일이나 다른 곳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구요? 바로 과거의 사건은 ‘-었’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다른 곳에서 있었던 일은 ‘저기에서’와 같은 부사어로 표현하면 가능한 일이지요.

이처럼 인간의 언어는 단어들이 아무렇게나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과 체계로 짜여져 있어서 이를 지켜야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언어의 규칙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해가, 현이야, 되니, 주연아, 선생님이, 잘, 하는, 이야기가’라고 늘어놓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약속된 말들을 우리말 규칙 즉 국어의 문장 구조에 따라서 말해야 합니다. 방금 그 어휘들을 우리말의 문장 구조에 맞게 다시 말해 보면 ‘현이야, 주연아,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잘 되니?’라고 해야겠지요.

이처럼 우리말의 규칙을 지키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규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조차 비문법적인 문장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바르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 어긋나는 언어는 의사소통에 방해가 됩니다. 언어에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의 규칙성이예요.

● 설명할 내용 정리

라) 과제 수행이 끝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하도록 한다. 1번은 2번에게, 3번은 4번에게 학습한 내용을 설명하고, 듣는 사람은 질문을 하면서 메모하도록 지도한다.(3분 정도, 초시계)

• **교사** : 지금부터는 읽고 공부한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번은 2번 친구에게, 3번은 4번 친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읽기 자료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듣는 친구들은 친구가 설명하는 내용을 메모하면서 듣도록 합니다. 자, 그럼 3분간 설명 시작!

☞ **학생** : (1번이 2번에게 3번이 4번에게 설명을 한다.)



마)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2번은 3번에게, 4번은 1번에게 학습한 내용을 설명하고, 듣는 사람은 질문을 하면서 메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3분 정도, 초시계) 이때 유의할 점은 2번 과제를 수행한 사람은 1번에게 들은 내용을 3번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 과제인 2번 내용에 대해 3번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4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바) 퀴즈 문제를 제공하여 언어의 본질에 대한 배경지식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때 2번을 일어나도록 하고, 2번 학생에게 1번에게서 설명을 들은 내용을 묻는다. 그 다음 3번, 4번, 1번의 순서로 퀴즈에 답하도록 한다.

【퀴즈 문제 예시】

(1번 과제 문제)

1. 사람이 무한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어떤 특성에서 비롯되었는가?
(창조성)
2. 동물이 내는 소리가 언어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시오.(단순 의미의 반복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 벌이 춤을 추는 모습에 담긴 의미는?(여기에 먹이가 있다.)

(2번 과제 문제)

1. 대장간 촌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놀림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야동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야한 동영상의 줄임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2.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을 무엇이라 하는가?(언어의 사회성)
3. 공책을 ‘연필’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약속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내용과 표현이 전체 구성원의 약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이다.)

(3번 과제 문제)

1. ‘나이 든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말인 ’영감‘은 원래 무엇의 이름이었는데? (벼슬)
2. ‘셔블’이라 불렸던 명칭은 지금은 무엇으로 바뀌었는데?(서울)
3.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언어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유형을 3가지로 말하시오.(의미가 달라짐. 소리가 바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면서 이름이 생김)
4. 시대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언어의 본질을 무엇이라 하는가?(언어의 역사성)

(4번 과제 문제)

1. ‘어제 국수를 먹었다.’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은 무엇인가?(어제, -었-)
2. 단어만 나열하면 언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일정한 규칙과 체계로 짜여져야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언어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비문법적인 문장을 이상하게 여기고 고쳐 사용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언어에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 토론 논제에 대해 긍정(찬성)과 부정(반대) 의견을 정리해 보고, 입론을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토론 주제〉

언어는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규칙성 등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언어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말들이 만들어지고, 유행처럼 사용하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줄임말’을 표준어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을 해 봅시다.

토론 전략지	() 학교
긍정(찬성) 의견 정리(나의 생각)	부정(반대) 의견 정리(나의 생각)
<p>【주장】 줄임말은 새로운 언어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줄임말도 우리 고유의 언어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p>	<p>【주장】 줄임말은 소리는 있으나 의미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로 받아들이기보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p>

<p>【근거】 우리는 엄마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을 ‘엄친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이나 생각을 말할 때도 ‘거시기’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언어의 기본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으므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말들은 언어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엄친아를 사용하는 우리 언어 문화의 특성이 그대로 담겨 있으므로 우리 고유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줄임말이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쓰일 때 언어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언어로 인정해야 합니다.</p>	<p>【근거】 ㅈㅈ, gg: gg는 게임 시작하기 전엔 good game으로 '좋은 게임을 하자'는 의미이고, 게임이 끝날 때 gg는 give up the game 으로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완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들도 있지만 줄임말의 의미를 일일이 설명하면서 사용한다면 줄임말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줄임말은 은어처럼 일부 집단에서 자기들만의 은밀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에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유행처럼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변화에 의해 사라지는 언어의 역사성, 사회구성원의 약속과는 다른 성격이므로 언어로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언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p>
<p>주제에 대한 모둠의 입장 정리하기 【입론】</p>	
<p>주장</p> <p>왜냐하면</p> <p>예를 들어</p> <p>그래서</p>	

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을 한다.

- **사회자(교사)** : 지금부터 ‘줄임말을 표준어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입장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입장에서 각각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측에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 **찬성** :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입니다. 짧게 줄이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엄마 친구 아들 중에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아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엄친아가 있어.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그러므로 줄임말을 표준어로 인정하여 많이 사용하도록 권해야 합니다.

- **사회자(교사)** : 줄임말 사용이 언어 사용에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이 의견에 대해 반대측에서 말하겠습니다.
- **반대** : 줄임말을 사용하다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아는 의미지만 듣는 사람은 잘 모르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어른들과의 대화에서는 더욱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즐’하고 표현하는 것과 ‘즐~’하고 표현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즐’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꼰 때 쓰는 표현이고 ‘즐~’ 즐거운 ~ 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즐공은 즐거운 공부, 즐겜은 즐거운 게임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줄여서 ‘즐’공은 공부를 하는 친구의 행동을 무시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오해를 불러오고, 감정 다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므로 줄임말 사용은 자제해야 하고 표준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사회자(교사)** : 줄임말 사용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자 보면 오히려 경제적 효과보다 친구 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있어 오히려 줄임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계속 해서 찬성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반대 입장에서 반론을 해 주기 바랍니다.
- **찬성** : 줄임말 사용이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줄임말은 오히려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잘 모르는 사람끼리 줄임말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잘 아는 사람끼리 줄임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의논할 때 친구의 멋진 의견을 듣게 되면 ‘득템’(좋은 아이템(물건)을 얻거나, 공짜로 얻은 좋은 아이템(물건)을 뜻함. 또는 '길가다 돈을 주웠을때' 득템했어!라고 함.)이라고 합니다. 모두 이해하는 칭찬의 말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못 알아듣는 사람 없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 **반대** : 맞습니다.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감을 느끼다는 것은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엄마가 “뭐 하고 있지?”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눈팅(자료 등을 눈으로 보기만하고 댓글이나 추천은 안하는 행위의 표현) 중이야.”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눈팅이가 밤탕이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았어도 눈팅이란 말은 처음 들어서 잘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줄임말보다는 더 정확한 말로 설명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그릇을 사용해야 더 많은 생각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교사)** : ‘줄임말을 표준어로 인정해주어야 한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어느 쪽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었는지 다같이 자기평가와 또래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 정리 및 평가

1. 질문으로 확인·정리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 언어의 본질에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창조성,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규칙성

- 사람은 언어를 무수히 많이 창조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므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올바른 언어 생활이 필요한 이유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언어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언어 창조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 동물과 인간의 언어를 비교해 볼 때 언어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물의 언어는 단순한 의미를 반복하고 이는 소리이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성이 없다. 인간의 언어는 무수한 의미를 만들어 내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 느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즉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

-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줄임말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른과 아이, 친구끼리 서로 오해하지 않고 잘 지내려면 외국어나 외래어는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한 우리말을 사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런 우리말을 물려주어야 한다. 줄임말을 사용하다가 본래의 뜻과 상관없는 말이 되고, 아무도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다면 언어로서 아무 기능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말이 점차 사라지면 우리나라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토론 평가

평가자:	평가 내용	평가 (A, B, C, D, E)
평가 대상 반 변 이름:	언어의 본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언어의 본질을 듣고 정리할 수 있다.	
	토론 주제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3. 교사 평가

모둠	평가 내용			평가 (A, B, C, D, E)
	반론 참여 횟수	근거의 타당성	재반론 횟수	
1				
2				
3				
4				
5				
6				

VI 다른 단원 적용 사례

교과서 단원	교과서 단원에 따른 기타 토론 논제
1. 가치 있는 삶	<p>● ‘부모로서 엄마가 가져야 할 미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한 모서리 토론</p> <p style="text-align: center;">〈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내 : 부족한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미덕이 가장 필요하다. 엄마가 성급하게 굴면 자녀들은 불안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상품기 : 꿈을 꾸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을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지속적으로 꿈을 꾸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의 꿈에 대해 이해하기 쉽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의 모범이기에 부모가 이상을 품고 있으면 자녀들도 이상품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유연성 : 부모와 자녀의 소통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엄마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한다. 인내도 중요하고, 이상품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는 유연한 사고가 자녀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장 필요한 미덕이라 할 수 있다.
2. 챔피언	<p>● 챔피언에 나오는 다음 대사를 읽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누어 보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육이가 양심 고백을 하려는 상황에서 보비 : 흠탕물에 생수 한 병 붓는다고 물이 깨끗해져? 계속 흠탕물이지.</p> </div> <p>* 찬성측 VS 반대측</p>
3. 청소년 인터넷 중독	<p>● 청소년 인터넷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패널 토의</p> <p>* 전문가 패널: 청소년 상담원 소장, 신경 정신과 의사, 교사 등</p>
4.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	<p>● 우리말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래어나 외국어를 모두 국어 순화해야 하는가? 찬반 토론</p> <p>* 찬성측(모두 국어순화해야 한다) VS 반대측(모두 국어순화할 필요는 없다.)</p>

IV. 원탁토론 수업



- I. 본 수업의 주안점
- II. 성취 기준 및 학습 목표
- III. 수업 환경 조성
- IV. 본 수업의 전개
- V. 정리 및 평가
- VI. 다른 단원 적용 사례
- VII. 부록

우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과 주장 속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가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21세기의 인재는 토론을 통해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다. 또한 토론 능력은 자신의 주장을 바르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도 꼭 필요하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사회를 보면서 서로간의 대화와 논쟁을 벌이는 수업은, 참여자 모두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를 제공한다. 다른 사람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더 풍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업 방법 중 하나가 원탁 토론이다. 토론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을 돌아보고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수업 목표를 둔다면 원탁 토론이 목표에 근접해 가는 수단으로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IV. 원탁토론 수업

I 본 수업의 주안점

1. 연계 단원과 단원 설정 이유

가. 연계 단원 : 청소년의 친구관계

나. 적용 단원 이해와 원탁토론 방식 설정 이유

이 단원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르며, 우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인간관계인 동성 및 이성 친구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청소년들이 쓰는 무분별한 은어, 신조어, 줄임말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타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런 말들은 세대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의 욕설 사용은 통과 의례적 문화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 보다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집단 의식이 강한 청소년기에 접하게 되는 잘못된 언어문화는 잔인하고 격렬적인 또래 언어들을 생산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비속어 사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이 단원의 수업방식을 일방적인 교사의 강의식으로 할 경우 비속어 사용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수업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다원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창의성 개발이나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는데 효과적인 모둠별 원탁 토론을 통해 언어의 중요성과 친구간의 건강한 우정을 위한 언어 사용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핵심용어

가. 원탁토론

원탁토론은 서로 다른 인식을 공유하고, 옳고 그름의 가치를 판단하며, 어떤 문제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토론 방식이다. 원탁토론이란 10명 내외(3~12명)의 참가자들이 원형 테이블에 서열의 구분 없이 앉아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 방식으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직접 사회를 보면서 서로 간의 대화와 논쟁을 벌이며 진행하기에 아주 적절한 토론 모형이다. 또한 원탁토론은 토론의 형식과 절차에 있어 공정하고 유익하면서 재미있는 토론을 위하여 모든 토론자의 발언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상급자가 주도하는 상명하달식의 회의에서 원탁토론은

어울리지 않는다. 원탁토론은 그 절차와 진행이 매우 간소하여 논제 설정 후에 곧바로 조를 편성하고 어려운 설명 없이 곧바로 토론에 몰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사회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나, 사회자 없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참가자들 간의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이 토론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원탁토론은 원탁 모둠 토론을 거친 후 모둠 토론에서 선출된 패널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원탁패널토론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1) 단계

자유로운 의견 교환, 토론할 문제 선정 → 의견을 교환하면서 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해결방안을 평가한 후 최선의 해결안 선택

2) 기본 진행 과정

1 차 시	<p>【원탁 토론의 기본 진행 과정】 2)</p> <p>주제 제시 및 인식 공유 (전체 공개 토론)</p> <p>▼</p> <p>모둠별 주제 토론 (모둠 토론)</p> <p>1. 내용적 측면에서 토론의 진행은 ① 의제 설정(주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인식 확인 및 공유) -② 자유 토론(인식의 확산) -③ 토론자들의 발언 정리 및 마무리(의견 수렴)</p> <p>2. 사회자는 토론자들의 발언 시간과 기회를 동등하게 분배하고 관리한다.(토론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함)</p> <p>3. 사회자는 토론의 논의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토론의 진행 절차, 형식과 방법에만 개입</p>
2 차 시	<p>▼</p> <p>전체 대표단 토론 (대표단 공개 토론: panel discussion)</p> <p>1. 각 모듬의 대표 1인을 선출하여 공개 토론을 함</p> <p>2. 모듬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 함.</p> <p>3.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듬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p> <p>▼</p> <p>전체자유 토론 및 마무리</p> <p>1. 대표단 공개 토론 후 청중들의 질문과 답변</p> <p>2. 전체적인 토론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평가</p>

2) 조인제(2003) <사회과 협동학습으로서 원탁토론 수업 모형의 개발과 적용 효과 분석>

나. 패널(Panel) 토론

배심 토론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개인 또는 사회 각계의 입장이 서로 다를 때, 각각의 입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또는 책임자들이 서로의 입장에서 토론하는 것이다. 4~6명의 배심원(패널)과 청중, 그리고 사회자로 구성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3~6명 정도로 소집단을 만든 후 특정 문제에 대해 조사하여 토론하게 한 다음 학급 전체 토론을 벌이며 토론이 끝난 후 교사는 의견을 조정하기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도울 수도 있는데 집단 구성원이 많아서 각 학생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가 곤란할 때 사용한다.

패널이라고 하는 토론자는 각자의 지식이나 정보 등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여러 각도에서 찾는 것이 특징인데, 시사문제나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며 패널 토론은 찬반의 명백한 규명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II 성취 기준 및 학습 목표

1. 성취 기준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성취 수준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르며, 우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인간관계인 동성 및 이성 친구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다.	가9112-2. 건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한 동성 및 이성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상	건강한 관계 형성에 대해 알고, 집단 따돌림 및 학교 폭력과 같은 현상과 관련지어 자존감, 타인에 대한 배려, 건강한 친구 관계 형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중	건강한 관계 형성에 대해 알고, 집단 따돌림 및 학교 폭력과 같은 현상과 관련지어 자존감, 타인에 대한 배려, 건강한 친구 관계 형성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하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2. 학습 목표

첫째, 청소년기의 건강한 친구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비속어에 대해 원탁 토론에서 근거를 들어 청소년기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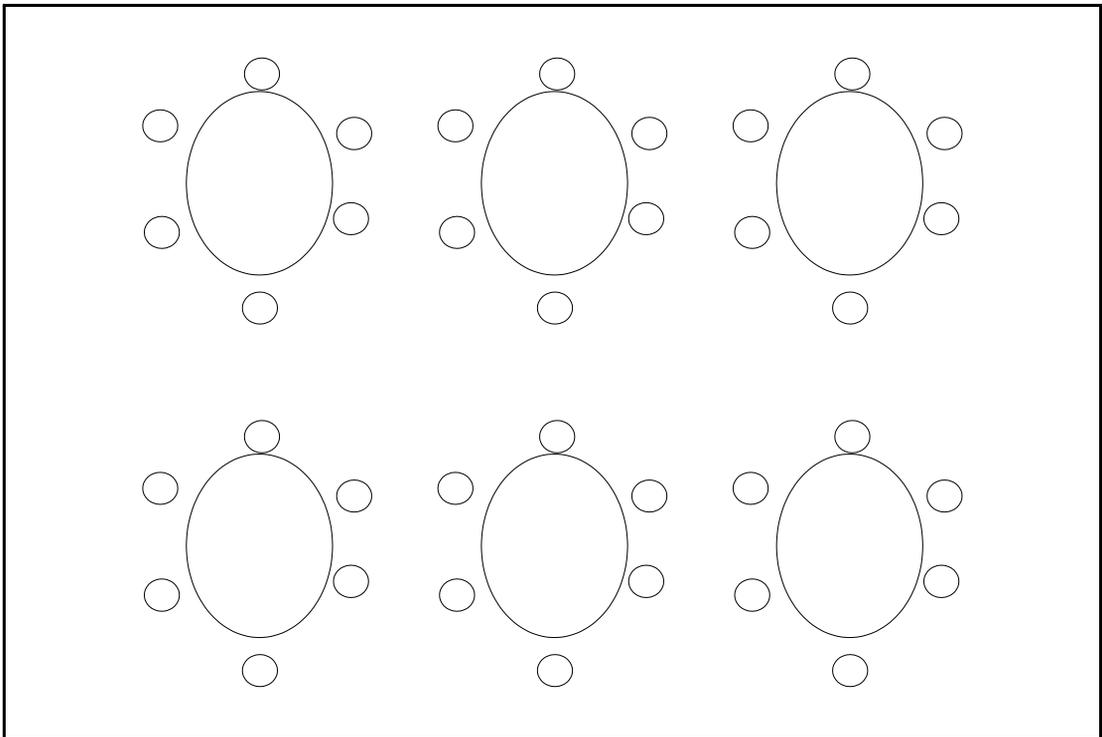
Ⅲ 수업 환경 조성

1. 모둠 구성하기

한 모듬은 학급 인원내 따라 5~10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6명 정도 인원이 적당하다. 한 모듬의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 발표에 시간 소요가 많으며, 너무 적으면 다양한 의견 교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모듬은 토론 활동의 기본 단위가 된다. 패널토론이나 찬반 토론 또는 모의 토론 등은 대개 대표자의 능력에 의해 토론이 좌우되기 때문에 소수에 의해 토론 분위기가 집중되거나 어느 한 방향으로 일방적인 토론의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원탁 토론은 모듬원 모두가 주체가 되어 경험을 나누는 것이 취지이므로 특정 학생에게 토론의 내용이나 분위기, 형식 등이 집중되는 것을 배제하여야한다. 되도록 참여자 모두에게 경험을 나누도록 기회와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인식하고 모듬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리 배치

자리 배치는 수업 시작 전에 구성하여 6명의 토론자가 자연스럽게 원형 또는 반원형의 모양으로 좌석을 배정하여 앉는다.



3. 수업에의 적용

- 가. 참가자가 원탁토론의 경험이 없으면 토론 자체가 산만해지고 시간 낭비를 초래 할 수도 있다. 교실에서는 분임 토론 방식인 소집단의 조별 활동으로 원탁 토론을 대신할 수 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되고, 소수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발언 할 수 있으며 학생들 간에 적극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나. 교실 수업에서는 일반적으로 1차시에 모둠토론, 2차시에 패널토론을 실시한다. 모둠토론에서 모둠 원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모으고, 패널토론에서 각 모둠을 대표하는 패널들로 하여금 각 모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어떤 문제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즉, 토론을 통하여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지향하며, 부분을 존중하고 전체를 지향하는 정신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 다. 토론 수업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토론 중에 나온 어떤 발언과 생각도 잘못된 것이 아니며, 모두 허용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IV 본 수업의 전개

1. 수업 개요

토론 주제 : 또래친구간의 대화에서 비속어, 필요한가?

【논제 선정 이유】

청소년 시기는 또래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이다. 요즘 청소년 또래 친구 사이의 대화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속어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해 보면서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르며, 우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인간관계인 또래 친구와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논제를 설정하였다.

- 대상 : 전체(6명씩 6모둠으로 구성)
- 인원 : 36명
- 수준 : 중학생
- 소요시간 : 45분

2. 사전 준비

가. 생각해 보기 자료 및 동영상 준비

나. 마이크(모형마이크) : 마이크를 준비해서 토론자가 발표할 때 사용하게 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3. 수업의 흐름

가. 전시학습 확인 : 생각해보기 자료 ‘도마뱀이야기’를 통한 청소년기 친구관계와 연계하기

【생각해보기 자료】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지은 지 3년이 된 건물을 헐게 되었습니다. 지붕을 벗기던 인부들은 뒷다리 쪽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인부들을 불러 그 못을 언제 박았느냐고 물어 보았지요. 그랬더니 인부들은 한결 같이 집을 짓던 3년 전에 박은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못에 박힌 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모두들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기한 사실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도마뱀을 지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 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마뱀은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못에 박힌 친구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먹이를 가져다주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  
외국의 어느 한 출판사에서 '친구' 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을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이 깊을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 나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 주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지만 그 중 1등을 한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

사람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친구 또한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아픔과 감싸 안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아무나 될 수 없는 법이지요. 기쁨을 두 배로 하고 슬픔을 반으로 줄일 줄 아는 넉넉함을 가진 사람, 남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 마지막까지 그의 존재를 믿고 지켜 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출처 : <http://cafe.daum.net/s977> )

위의 도마뱀 이야기를 읽고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 나. 동기 유발 활동

‘10대, 욕에 중독되다’라는 동영상 앞부분을 감상하며 현재 청소년들 사이의 언어생활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KBS 스페셜 ‘10대, 욕에 중독되다’ (출처 : KBS 2009년 3월 8일 방영)

### 앞부분 5분 감상

## 다. 목표 확인 : 청소년기 대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속어가 친구관계에 주는 영향

청소년 시기는 또래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이다. 친구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이 즐겁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도덕성이나 인성의 발달도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갖게 된 습관은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청소년들 사이의 대화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속어는 친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자.

## 라. 토론에 앞서 용어 정리하기

- **비속어** : 격이 낮고 속된 말 - 은어나 유행어 수준을 넘어서 어휘가 한 단계 저속해진 말들로 주로 의성어나 의태어가 많으며 10대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
- **은어** : 특수한 집단이나 사회, 계층에서 남이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알도록 쓰는 말. 거지, 교도소 재소자와 같은 소외 집단이나 심마니, 군인, 학생층 등과 같은 특수 집단 안에서 많이 쓰임 - 청소년들이 은어를 사용하는 주된 동기는 젊은이들의 발달한 표현, 일시적 쾌감의 발로나 욕구불만의 표출, 자기들끼리의 만족스러운 의사 전달이나 특권 의식의 표현, 무미건조한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 **매체언어** : 매체에 사용되는 언어 - 매체란 불특정 다수인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적인 기술 수단을 말하며, 매체의 사용목적이나 전달내용은 공적인 성향을 띤다. 매체 언어는 매체를 통해 익명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대중 매체를 통한 정보전달의 간접성, 정보흐름의 일방성 및 정보의 대량성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매체언어 주사용인 통신(휴대폰, 문자, 트위터 포함)은 단순한 의사표시나 상호 교환이외에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휴대폰은 필수품이며, 전화 통화나 문자를 통해 사회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통화나 문자의 내용은 단순하고 짧으면서도 재미를 주기위한 표현이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나 유행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 마. 토론 수업의 유의점

### 1) 참가자의 역할

- 가) 사회자 : 논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참석자 모두에게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토론을 공정하게 이끌고 토론이 논제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진행한다.

- 나) 토론자 : 청중인 동시에 토론자가 된다. 개인적인 과시보다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발표한다.
- 다) 시간 측정자 : 토론자의 사용 시간의 경과를 알려준다. 시간 측정자는 초시계, 카드, 종을 준비하고 토론자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시간을 알려 준다.
- 라) 원탁모둠토론에서는 사회자가 시간 측정자 역할까지 할 수 있다.

2) 토론에 임하는 자세

- 가) 주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 나) 모든 발언과 생각은 자유롭다는 것을 알려준다.
- 다) 주제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임한다.
- 라) 숨을 깊고 천천히 들이쉰다. 마음을 편안히 한다.
- 마) 준비한 메모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놓는다.
- 바) 바른 자세로 앉아 서로의 토론에 주의 집중한다.
- 사)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

바. 원탁 토론수업의 실제

- 1) 논제의 설정 : 논제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고하여 충분한 자료를 찾아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때는 청소년들 사이의 대화에서 속어나 비어 등의 사용 비율이 높음을 인식하고 청소년기 또래 친구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집단행동으로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은 청소년 문화라는 입장과 언어 능력을 떨어뜨리고 공격성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의 문제라는 입장 중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2) 토론의 설계 : 순수 토의토론 수업은 사회자의 역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전 설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회자가 논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긍정(찬성)측과 부정(반대)측 모두의 입장, 근거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는 사전에 사회를 맡을 학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3) 모둠 내 원탁 토론 활동 전개
  - 가) 6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하여 전체 6모둠을 구성한다.
  - 나) 교사는 원탁 토론 구상지를 주고 적게 하여 토론 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며 다양한 논쟁점을 발견하게 한다.
  - 다) 모둠별 원탁 토론 전개 과정 시나리오 예시

**사회자 : 1명    모둠 토론자 : 5명**

**【사회자 인사말 및 토론자 소개】**

- **사회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원탁토론이며, 사회를 맡은 000입니다.(꾸벅 목례를 한다) 함께 토론할 토론자 소개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하며, 사회자의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할 때 이름을 또박또박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토론자님들은 토론기록지에 토론자의 성명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

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총 3번의 의사 진행 발언과 마지막 정리 발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첫 의사진행발언은 2분 이내에 논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은 생각을 달리하는 토론자에게 질문하시거나, 같은 생각의 토론자들의 내용을 보충발언 하시거나, 다른 토론자의 질문에 답변 및 반론을 제기하는 순서로 동일하게 2분씩 주어집니다. 마지막 정리발언은 1분이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 의 사표시를 하신 토론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초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어도 발언할 토론자가 없을 경우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사회자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가 진 토론자는 토론자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토론자 000입니다.’ 그리고 마치면 ‘이상입니다.’처럼 종료를 알리는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자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토론자님께서도 경청하시면서 중요한 발언내용을 단어와 기호를 사용하여 요약 메모하 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 참석자 본인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오른쪽부터 시작할까요?

- 토론자 1 : 토론자 방만해입니다.
- 토론자 2 : 토론자 거만해입니다.
- 토론자 3 : 토론자 소심해입니다.
- 토론자 4 : 토론자 미안해입니다.
- 토론자 4 : 토론자 사랑해입니다.

### 【 토론자 1차 발언 - 자기 주장(입론)하기】

-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음껏 생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또래 친구 사이 에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용하는 비속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할 논제는 ‘또래친구간의 대화에서 비속어, 필요한가?’ 입니다. 이에 대해 어느 토론자 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 네 1번 토론자님 발언해 주세요.

- 토론자 1 : 토론자 000입니다. 저는 우리 또래 친구들의 대화가 굉장히 거칠다고 생 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우리들의 대화를 들으면 얼굴을 찡그리고 이상한 눈초 리로 바라보는 것을 늘 느끼고 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매일 습관적으로 욕설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국립국어원과 KBS한국어 진흥원이 14살에서 19살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해봤더니 , 매일 여러 차례 습관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절반(52.5%)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루 10번 이상 욕설을 한다고 답한 청 소년이 22.1%, 3번에서 9번 정도 사용한다는 답변이 30.4%를 차지하는 반면, 전혀 욕 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8.6%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가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상대화가 거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토론자000님처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비속어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느 토론자께서 발언하시겠어요?. 네~ 3번 토론자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자 3** : 토론자 000입니다.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욕을 사용하고 있네요. 저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욕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욕설을 처음 사용한 시기가 초등학교 때라는 답변이 73%를 조사 결과가 있어요.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는 멋있어 보인다가나 재미있어서 또는 친구끼리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그 이유는 또래 친구끼리 집단을 형성하고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려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때문이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끼리 대화할 때 모두들 비속어를 사용하니까 저도 모르게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 사용할 땐 그냥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기도 했었는데, 자꾸 사용하다보니 습관이 된 거 같아요. 이제는 제가 언제 사용했는지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다른 토론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토론자님께서 발언하시겠어요?. 네~ 2번 토론자님? 2번 토론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주시겠어요?

- **토론자 2** : 토론자 000입니다. 저는 때로는 비속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또래 친구들과 비슷한 언어를 쓰는 것은, 비속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15%정도가 친근감을 주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듯이 친근감과 일체감을 주어서 친구 관계를 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기에 한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부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른들과는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서 대화가 되지 않는데, 친구들은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대화가 잘 통하거든요. 동질감을 느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느낌을 간단하고 강하게 표현하기에는 비속어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잘 들었습니다. 아직 발언을 하지 않으신 다른 토론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토론자님께서 발언하시겠어요?. 네~ 4번 토론자님? 4번 토론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주시겠어요?

- **토론자 4** : 토론자 000입니다. 저는 청소년사이에서의 비속어 사용은 ‘우리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야’ 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흥허물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왜냐하면 속상한 일이 있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는 더 욕을 섞

어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 그리고 표현을 더 크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좋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앞에 ‘개’를 붙여주면 더 좋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비속어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잘 들었습니다. 아직 발언을 하지 않으신 토론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토론자님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어요?. 네~ 5번 토론자님? 5번 토론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주시겠어요?

- **토론자 5** : 토론자 000입니다. 저는 비속어 사용에 반대합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온라인 댓글이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댓글에 욕이 섞인 글을 보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져요. 문자는 실제 대화보다 표정이 없어서 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속어는 친구사이의 관계를 나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토론자 2차 발언 - 질문, 반박, 보충설명】

- **사회자** : 잘 들었습니다. 한 번씩 비속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차 발언은 1차 발언에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토론자님에게 질문하거나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1차 발언과 마찬가지로 발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먼저 의사표시하신 토론자님부터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토론자님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어요?. 네~
- **사회자** : 1번 토론자님? 1번 토론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주시겠어요?

- **토론자 1** : 토론자 000입니다. 토론자 4님께서 비속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말하고 있는 본인은 해소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친구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순간적인 스트레스 해소의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욕을 사용한 후의 느낌이 그다지 개운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토론자님께서 발언하시겠어요?. 네~ 4번 토론자님? 4번 토론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주시겠어요?

- **토론자 4** : 토론자 000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비속어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나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들 사이의 대화에서 비속어 사용은 청소년들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들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활동 장소가 학교나 학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행동이나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우리끼리의 대화에서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속어는 청소년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차차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토론자님께서 반론이나 발언하시겠어요?. 네~ 3번 토론자님? 3번 토론자님은 어떤 반론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주세요시겠어요?

- **토론자 3** : 토론자 000입니다. 토론자 4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반론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청소년기에는 진로문제나 학업, 이성 친구에 대한 호기심 등 고민이 많은 시기라는 것은 가정 수업 시간에 배웠고 실제 느끼고 있어요. 토론자 4님이 청소년끼리의 대화에서 비속어 사용이 많은 것이 청소년들의 문화라고 하셨지만 그런 고민들이나 스트레스를 친구끼리 비속어 사용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른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어폭력은 신체에 해를 가하는 폭력보다 더 큰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욕설을 덜 사용하기도 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토론자님께서 발언하시겠어요?. 네~ 5번 토론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주세요시겠어요? 이어서 2번 토론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 **토론자 5** : 토론자 000입니다. 저도 토론자 3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언어는 습관으로 되어 저도 모르게 나올 수 있고 특히 청소년기에는 정신적인 성장에도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양파를 키우는 실험한 결과를 보면 좋은 음악을 들려준 양파보다 욕을 들려준 양파는 싹이 잘 나지 않거나 성장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상입니다.

- **토론자 2** : 토론자 000입니다. 저도 토론자 5님이 말한 영상을 본 적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사람도 아니고 식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저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동영상을 보니 욕을 사용 할 때의 음성 주파수가 물이나 식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비속어가 ‘식물에 저 정도로 영향을 준다면 사람에게는 더 큰 영향을 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속어 사용하는 것이 조금 무서워지기도 했어요. 이상입니다.

### 【 토론자 3차 발언-질문, 반박, 보충설명】

- **사회자** : 잘 들었습니다. 이제 3차 발언은 2차 발언에서 제기한 반론,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재

반론이나 심화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토론자님에게 질문하거나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2차 발언과 마찬가지로 발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먼저 의사표시하신 토론자님부터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토론자님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어요?. 네~ 3번 토론자님? 3번 토론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주시겠어요?

- **토론자 3** : 토론자 000입니다. 식물이나 물에 그런 정도로 영향을 준다면 뇌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들 시기에는 더 큰 영향을 주겠네요. 나쁜 말을 자주 사용하면 듣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말하는 사람의 뇌에도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사용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토론자님께서 발언하시겠어요?. 네~ 5번 토론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주시겠어요?

- **토론자 5** : 토론자 000입니다. 네 저도 토론자 3님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비속어 사용을 함께 나누면 일시적으로 몇몇 친구끼리는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겠지만 청소년기 뇌 발달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언어폭력을 당하는 그룹은 해마의 크기가 작았고 뇌 회로 발달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더구나 비속어를 듣는 사람도 뇌 발달에 영향을 주지만 말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욕을 말하면 상대방보다 더 먼저 듣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다면 남에게 주려던 피해가 자신에게 먼저 영향을 주게 되니까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토론자님께서 발언하시겠어요?. 네~ 4번 토론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주시겠어요?

- **토론자 4** : 토론자 000입니다. 저는 요즘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따돌림도 비속어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주YMCA에서 진주지역 초·중·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언어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9%가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소는 컴퓨터 통신이라고 답한 학생이 48%로 가장 많았고, 학교가 42.7%로 나타났다고 해요. 청소년들이 비속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49.3%가 컴퓨터 통신과 SNS, 또래 친구가 41.3% 등으로 조사됐어요. 청소년들이 비속어나 은어를 쓰는 이유로는 '남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답이 32.3%로 가장 많아 학생들이 또래 집단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비속어나 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마도 요즘 학생들 사이에 큰 문제인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비슷한 행동이나 말투를 사용해야 같은 모임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잘난 척 한다든지 잘 쉬이지 못해서 따돌림을 받기 쉬워요. 그래서 사용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토론자님께서 발언하시겠어요?. 네~ 2번 토론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주시겠어요?

- **토론자 2** : 토론자 000입니다. 토론자 4님이 컴퓨터 통신 같은 SNS 사용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여가시간 활용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사용 시간이 가장 많아서 일상생활에서 쌓인 고민이나 문제점을 모두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가 활용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비속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토론자님께서 발언하시겠어요?. 네~ 1번 토론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주시겠어요?

- **토론자 1** : 토론자000입니다. 저는 비속어 사용이 우리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욕을 사용하는 어른들도 많은데, 욕사용이 청소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욕하지 말자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욕의 종류가 많긴 한데 대부분의 청소년이 모두 사용하지는 않고 그 중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일상적인 것들 몇 가지 욕만 주로 사용하거든요. 청소년들은 욕설과 비속어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자신의 기분을 풀어보려고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욕의 뜻을 알고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비속어는 친구를 통해 가장 많이 듣고 말하게 되는 것 같고 그밖에 선배, 후배와의 대화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결국은 나이가 비슷한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것은 친구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토론자 4차 - 정리 발언】

- **사회자** : 예, 여러 토론자님들의 3차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명씩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1님부터 정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자 1** : 토론자 000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속어 사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방송을 통한 통계수치에서도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청소년기의 바르지 못한 언어생활은 인성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까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청소년기에 바른 언어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속어에는 뜻이 심각할 정도로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도 많으니까 비속어의 뜻을 찾아보고 스스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토론자 2** : 토론자 000입니다. 여유 시간이 있으면 모두 게임이나 SNS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재미를 느끼기 위해 비속어나 은어 사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설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사용하다 보면 좀 더 강도가 강한 욕설로 바뀌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해 주면 또래 친구끼리 비속어로 동질감을 갖지 않고도 긍정적인 우정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토론자 3** : 토론자 000입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찾아 본 자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물은 현미경으로 볼 때 입자가 육각형인 것이 가장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에 욕을 하거나 짜증내는 소리를 하니 물의 입자가 흉한 모양으로 일그러진 사진을 보았습니다. 물에도 그런 영향을 준다면 한참 성장 중인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토론자 4** : 토론자 000입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중학교 시절의 친구 관계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만난 친구들보다 훨씬 오래 우정을 나누는 절친한 관계로 남는다고 합니다. 심하지 않은 또래 언어의 사용으로 친한 친구 관계가 더 돈독해 진다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속어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라는 울타리에, 학업과 진로라는 커다란 짐을 진 청소년기에 쌓일 수 있는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나마 풀어 줄 수 있다면 나름대로의 좋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기발하고도 재미있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 것도 일종의 창의성이고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만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토론자 5** : 토론자 000입니다.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생에게 입장을 바꾼 역할극에서 상대방이 비속어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여기면서 웃음을 띠고 있던 얼굴 표정이 점차 굳어지더니 나중에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그 동안 친구들에게 많이 했던 욕이었는데... 욕은 사용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까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토론 후 토론자 소감 말하기】

- **사회자** : 네 토론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자님들께서 토론 준비하면서, 토론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5번 토론자님부터 할까요?

- **토론자 5** : 토론자 000입니다. 준비하면서는 뭘 찾아야지 하면서 망설였고 찾을 내용과 근거가 부족해서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무의식 중에 사용하던 말이었는데,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얘기해 보니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 **토론자 4** : 토론자 000입니다. 준비하면서는 이런 저런 얘기를 해야하겠구나 생각했

는데, 막상 어려웠어요. 뜻도 모르고 하는 말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토론자 3 : 토론자 000입니다. 조사하면서 내가 하는 말들이 우리의 언어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세종대왕님 앞에 가서 죄지은 마음 뉘우쳐야 겠어요. 이상입니다.
- 토론자 2 : 토론자 000입니다. 저는 조사하면서 우리의 말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미를 모르는 언어는 동물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상한 은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토론자 1 : 토론자 000입니다. 준비기간이 짧았던 것이 아쉬웠어요. 서로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네 토론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속어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 동질감을 만들어 주고, 같은 생각과 행동을 공유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뇌의 발달과 인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폭력으로 느껴지게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너무 남용하거나 모욕적인 의미를 가진 비속어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용 정도나 횟수는 꼼꼼이 생각해 봐서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여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V 정리 및 평가

### 1. 1차시로 수업 계획할 경우

교사는 활동지와 토론 평가지를 나눠주고 활동을 정리하게 한다.

### 2. 2차시로 연결되는 경우(블록 수업 편성)

가. 모듈별 정리 : 모든 발언이 끝나면 사회자가 활동지와 토론 평가지를 나누어 주고 활동을 정리하게 한다.

나. 모듈의 입장을 정하고 2차시에 패널로 참여할 모듈 대표를 정한다.

### 3. 질문으로 정리 및 평가

가.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 형성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 ①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불안감에 대한 적응을 도와준다.
- ② 자아정체감 형성과 인간관계 기술을 습득한다.
- ③ 신뢰감, 상호 노출, 의리를 중요시 하는 동조 현상이 생긴다.
- ④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친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언어 생활에 대해 정리해 보자.

- ① 비속어 사용은 순간적인 감정의 해소나 재미를 줄 수 있다.
- ② 비속어 사용은 동질감이나 친근감을 준다.
- ③ 언어 파괴 및 인성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 ④ 언어도 폭력이 될 수 있다.

다. 평가

| 평가자    | 평가 내용                                  | 평가 |   |   |   |   |
|--------|----------------------------------------|----|---|---|---|---|
|        |                                        | 5  | 4 | 3 | 2 | 1 |
| 평가 대상: | 건강한 친구 관계 형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   |   |   |   |
| 반      | 비속어 사용이 청소년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    |   |   |   |   |
| 변      |                                        |    |   |   |   |   |
| 이름:    | 토론 주제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    |   |   |   |   |

### 4. 차시예고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VI 다른 단원 적용사례

【가정 1】 교과에서 토론 수업에 적합한 단원 및 주제(예시)

| 대단원           | 중단원                 | 논제(주제)                                                                                                                                                                                  |
|---------------|---------------------|-----------------------------------------------------------------------------------------------------------------------------------------------------------------------------------------|
| 청소년의 이해       | 청소년의 성과<br>친구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범위는?</li> <li>• 중학생에게 피임교육은 필요한가?</li> <li>• 집단 따돌림 누구의 책임인가?</li> <li>• 현대 사회에서 남녀는 평등한가?</li> <li>• 내가 먼저일까? 가족이 먼저일까?</li> </ul> |
| 청소년의 생활       | 건강한 식생활과<br>식사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우푸드와 패스트푸드</li> <li>• 청소년기의 다이어트, 필요한가?</li> </ul>                                                                                           |
|               | 옷차림과 자기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복을 내 취향에 맞게 고쳐 입으면 안될까?</li> <li>• 패스트 패션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문화인가?</li> <li>• 청소년 화장해도 될까요?</li> </ul>                                             |
| 청소년의 자기<br>관리 | 청소년의 시간과<br>스트레스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생활시간을 평가해보고 어떻게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토론해 보자.</li> <li>•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자세는?</li> </ul>                                                |
|               | 청소년의 소비 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소비 습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li> <li>• 데이(기념일)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li> </ul>                                                                              |
|               | 청소년 복지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는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가?</li> <li>• 청소년 흡연과 음주 허용해야 하는가?</li> <li>• 선별적 복지정책을 펴야하나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야하나?</li> </ul>                                |

**VII**    **부록**

1. 원탁토론의 일반적인 절차(요약본)

| 순서                                                                                                                                                                                                                                                                                                                                                                                                                                                         | 비고                                                                                                                                                                                                       |
|------------------------------------------------------------------------------------------------------------------------------------------------------------------------------------------------------------------------------------------------------------------------------------------------------------------------------------------------------------------------------------------------------------------------------------------------------------|----------------------------------------------------------------------------------------------------------------------------------------------------------------------------------------------------------|
| <p>▶ 자기소개 (1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자기소개</li> </ul>                                                                                                                                                                                                                                                                                                                                                                            | <p>첫 만남이므로 자기를 잘 알릴 수 있도록 함</p>                                                                                                                                                                          |
| <p>▶ 1차 발언 (1분 30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자 공부한 내용(제출보고서내용) 소개</li> <li>- 시작 전에 발언 시 주의사항 전달</li> <li>- 입론으로 주장과 근거를 말함.</li> </ul>                                                                                                                                                                                                                                                                                                | <p>“00토론자입니다. 논지 - 왜냐하면 - 따라서, 이상입니다.” 의 순서로 발언함</p>                                                                                                                                                     |
| <p>▶ 2차 발언 (1분 30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발언에서 제시한 근거에 대한 질문과 반론.</li> <li>- 반박이나 질문의 대상은 1인 이상이 될 수 있음.</li> <li>-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적절하게 시간을 배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질문과 반박을 진행.</li> <li>- 상대적으로 본인의 견해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토론자가 질문이나 반론의 상대자가 됨.</li> <li>- 질문이나 반론을 받은 토론자는 자신의 2차 발언 차례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바로 반론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토론자의 의견을 더 들어본 후에 발언할 수 있음.</li> <li>- 2차 발언을 마친 상태에서 질문이나 반론을 받으면 생각을 다듬고 정리했다가 다음 3차 발언 차례에 자기 견해를 말할 수 있음.</li> </ul> | <p>-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회자가 정리하고 제시함.</p> <p>“1차 발언에서 ○○○토론자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br/>이유는……입니다.<br/>또 ●●●토론자께서는 저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p> |
| <p>▶ 3차 발언 (1분 30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발언에서 제기한 반론,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재반론</li> <li>- 심화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진행</li> <li>- 2차 발언에서 새로운 논의가 발굴되지 않는다면 지도교사가 3차 발언 주제 제시함</li> </ul>                                                                                                                                                                                                                                                    | <p>○○○토론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반론하고 싶습니다. ~ 은 ~입니다.<br/>그리고 ☆☆☆토론자께서 이렇게 주장하신 근거에는 ~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br/>제 생각의 논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 있습니다. 이상입니다</p>                                                            |
| <p>▶ 정리 발언(1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제에 대한 토론자 자신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 발언함.</li> <li>- 1차 발언의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압축하면서 효과적으로 주장을 마무리함.</li> </ul>                                                                                                                                                                                                                                                                                                | <p>- 입론에서 제기한 주장을 최종 정리</p>                                                                                                                                                                              |

## 2. 읽기 자료

### 청소년의 언어문화

청소년들은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를 갖고 싶어 한다. 어른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튀는 공 같은 그들의 행동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항상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년 이상 학교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왔지만 예전과 달리 청소년 문화의식의 사이클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최근 청소년만의 언어(은어) 사용을 살펴보면, 인스턴트 시대의 인스턴트 언어라는 생각이 든다. 언젠가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내 옆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결코 작은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찌렁찌렁 울릴 정도의 소리로 떠드는데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좀 더 주의 깊게 들었는데, 거센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비어, 속어 등이 중심인 은어들이었다. 청소년들의 언어는 시대 상황, 주변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변모해 왔고 그런 변화는 지금도 계속 되는 것 같다. 요즘 들어 부쩍 아이들의 은어 사용 실태가 그 도를 더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예부터 은어는 주위환경과의 대립과 갈등이 많은 도둑, 감옥 등의 집단 내에서 발생해 왔다. 하지만 요즘은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아이들의 일상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소년은 생기발랄하며,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오늘날 지구의 문명이 이토록 발달한 것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힘에 의해서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일찍이 공자가 '후진을 두려워 할 것이니, 어찌 내일의 그들이 오늘의 나만 못하리라고 단정할 수 있으랴(子曰 後生 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라고 한 것처럼 구세대보다는 신세대가 더 나왔기 때문에 과학과 학문의 수준이 향상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사고와 관습을 이해하는 첩경이 되며, 우리나라의 앞날을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의 변화가 완만하였던 옛날에 비하여 현대의 물질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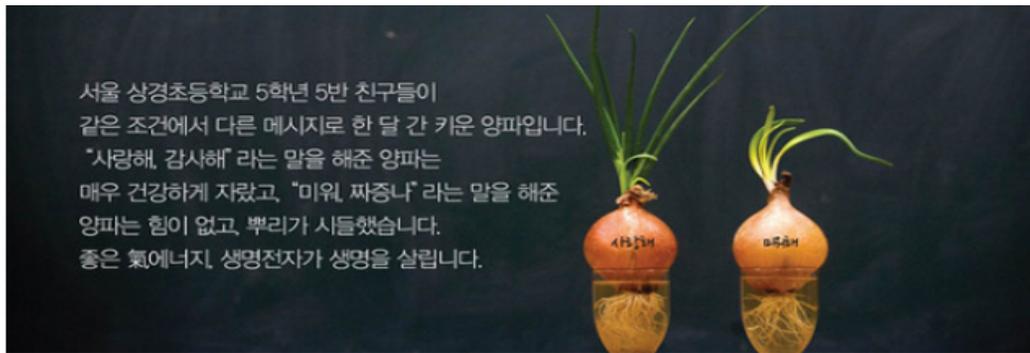
(출처 : <http://happy-times.tistory.com/137367>)

### 청소년 언어폭력, 가해자도 피해자도 뇌 발달 느려!

고등학교 1학년 29명을 대상으로 언어폭력을 하는 그룹과 당하는 그룹의 뇌를 MRI(자기공명영상)로 분석했는데, 언어폭력을 당하는 그룹은 해마의 크기가 작았고 뇌 회로의 발달이 늦었다.

언어폭력을 하는 그룹 또한 당하는 그룹과 마찬가지로였다.

"거친 언어를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뇌를 상처 준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든 가해를 하는 친구든 모두 뇌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 발달이 잘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양파실험'을 진행했다.  
반신반의 하던 학생들은 칭찬과 비난에 따라 양파의 성장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놀라워했다.

(출처 : <http://dahnmeditation.tistory.com/405>)

### 청소년 '욕설문제' 제대로 된 언어교육으로 개선해야

청소년들이 이렇게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청소년들은 욕설과 비속어를 자신들끼리의 대화에 재미를 주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말을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 대화 속에 일부러 욕설을 집어넣는 것이다.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자신들의 우울하고 짜증나는 기분을 격하게 표출해내고 싶어 욕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일부러 욕설을 쓰다보면 점점 습관이 되어 청소년들의 말 속엔 비속어가 남발한다.

하지만 이런 청소년들의 욕설, 비속어 사용은 문제가 있다. 먼저, 청소년들이 욕설과 비속어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욕설 중에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심한 의미를 담은 욕설이 많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의미도 모른 채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따라 욕설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모욕을 주게 된다.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든 대화에 욕설을 쓰면 언어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 욕설 대신 자신들의 기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욕설로 대체해 사용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어휘 수준과 언어 능력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한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욕을 사용하게 되면서 욕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도 점점 무뎈진다. 이러한 거부감과 양심의 가책 등이 없어지면서 청소년기의 공격적인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욕설의 의미와 욕설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을 상세히 알려주면 청소년들의 욕설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TV와 같은 대중 매체들에서 비속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은연중에 욕을 하는 것이 당연시 돼 있다. 청소년 욕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중 매체에서 욕을 내보낼 수 없게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 경상일보, 2013년 11월 14일)

### 미국, 엄격한 학교 관리 매뉴얼 통해 언어생활 관리한다.

미국의 학교에는 총 18개 항목으로 된 ‘행동지침서’를 명문화 하고 있다. ‘행동지침서’에는 폭력, 마약, 절도, 방화 등 상스럽고 저속한 언행에 관한 행동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학생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사는 절차에 따라 1차 경고, 2차 학부모 면담, 3차 정학의 벌칙을 받는다.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학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제퍼슨 카운티 공립학교 인터뷰 中

“우리는 교실이 아주 문명화된 곳이 되기를 바란다. 학습이 이루어지고 모든 권리가 존중되는 곳이어야 하며, (학생이) 상스러운 언행 등을 할 경우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이 모두의 과제다. 누군가가 학교에 술과 마약을 갖고 오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욕을 한다는 건 아주 심각한 일이다. 학교에 그런걸(욕) 가져오는 건 막아야 한다.”

(출처 : KBS 스페셜 ‘10대, 욕에 중독되다’, 2009년 3월8일)

### 비속어 뜻 알려주면 사용 줄어들어

초등학교 진학 전후의 아이들은 자신이 쓰는 비속어가 무슨 뜻인지를 정작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이때는 그 뜻을 정확히 알려주기만 해도 비속어를 덜 사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매년 학생들에게 ‘욕의 근원과 의미를 알려주는 강의’를 하는 류승우 부산 동수영중 교사는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쓰는 ‘x발’, ‘x새끼’, ‘x’ 등 욕설들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면서 “욕설에 담긴 뜻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아 사용을 자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때 순화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박~. 찢어!” 같은 은어는 “우와! 대단하다”로 “에이, x발”은 “아이 진짜”와 같이 의미를 순화해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알려줘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대체할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자녀와 함께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방법도 좋다. 그 단어의 의미와 함께 다른 표현들을 알게 되는 효과가 있다. 국어사전 활용이 번거롭다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국어사전 기능을 활용해도 된다.

(출처 : <http://dongA.com> 2013년 10월22일 )

### 청소년들이 욕을 하는 이유



출처 : <실태보고> 10대, 욕에 중독되다 KBS 1TV

### 청소년 '언어폭력' 심각

경찰은 물론 각 기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아동지킴이, 범죄예방교실, 스쿨폴리스 등 각종 제도를 도입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법에서 말하는 폭력이란 것이 부당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도 하나의 학교폭력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일상 속에서 보이는 육체적 폭력처럼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당하는 이에게는 육체적 폭력보다 더 크나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언어폭력이 사회 전체에 비일비재하다.

언어폭력을 일으킨 주범들은 생활 속에서 우리와 친근한 존재로 있다.

안방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무심코 TV를 틀어 채널을 돌리다 보면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는 욕이 난무한다.

심지어 공영방송에서조차도 욕이 나오기도 한다.

15세 관람 가 영화만 보더라도 잔인하고 무자비한 영상들이 나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나온다.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일대 다수의 감염에서 다수 대 다수의 감염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이 영화나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등의 다양한 문화 매체를 통해서 욕설 등 언어폭력을 쉽게 접하고 있고 또한 주인공을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문화 매체를 통해서 언어폭력으로 피해나 그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다.

요즘 청소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언어의 절반가량이 욕설, 비속어나 은어가 차지하곤 한다. 특히 인터넷 및 휴대폰으로 대화할 때도 대부분이 질 낮은 비속어나 욕설로 시작해서 욕설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 자신들은 이 같은 언어사용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지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속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기성세대의 관심과 각성, 세대간 언어소통을 위한 각별한 노력 등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출처 : 전주일보 독자투고, 2013년 6월 29일)

### 욕설·비속어에 중독된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무심코 쓰던 욕설과 비속어 대신 고운 우리말로 순화한 대체 단어를 찾아 내 사용하도록 해봤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이00(고등학교 2학년) : “이제부터 욕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쓰던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인지 알게 됐어요.”

<인터뷰> 전00(고등학교 2학년) :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나쁜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권00(명지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청소년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줄 수 있

는 관계 개선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요. 가족 응집력을 강화시켜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줘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욕을 쓰다보면 언어능력이 떨어지는데다 공격적인 성향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출처 : KBS 아침뉴스타임 2013.10.24)

### 비속어의 의미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욕설 중에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심한 의미를 담은 욕설이 많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의미도 모른 채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따라 욕설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모욕을 주게 된다.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든 대화에 욕설을 쓰면 언어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 욕설 대신 자신들의 기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욕설로 대체해 사용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어휘 수준과 언어 능력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한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욕을 사용하게 되면서 욕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도 점점 무뎈진다. 이러한 거부감과 양심의 가책 등이 없어지면서 청소년기의 공격적인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

통상어에 대한 진부성을 느끼고 유머와 왜감, 신기성 등을 요구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데서 사용하는 특수어이다. 그러므로 비속어는 그 본질상 대단한 신선미와 신기성이 있어야 많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신선미와 신기성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유행되고 반복되다가 싫증이 나고 또한 진부성을 느끼게 되면 소멸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상어화하여 새로운 비속어가 발생하는 것이다.

(출처 : 김종훈 외 『은어·비속어·직업어』 집문당 2005)

### SNS의 부작용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청소년들의 욕설, 비속어, 은어는 버스나 지하철, 온라인 댓글, SNS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어른들도 쓰는 말이지만 청소년기의 언어폭력은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들은 뜻을 모르고 쓰는 욕설들이 습관처럼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소통을 위한 도구들은 좋아졌지만, 소통매너는 매우 떨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욕설, 비속어, 은어가 대화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이유를 꼽았다.

얼마 전 미국에서 SNS로 한 여학생을 괴롭히다 피해자 학생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전화를 갖지만 계속되는 SNS 왕따를 견디지 못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가해자 10대 2명을 중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SNS의 부작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http://dahnmeditation.tistory.com/405>)

### 3. 참고 자료

| 제목/내용                      | 주소 및 출처                                                               |
|----------------------------|-----------------------------------------------------------------------|
| 10대 욕에 증독되다.               | KBS 스페셜                                                               |
| 언어개선 UCC                   | <a href="http://youtu.be/DEccavaPgYg">http://youtu.be/DEccavaPgYg</a> |
| 언어폭력                       | <a href="http://youtu.be/lWKCqVaDkJc">http://youtu.be/lWKCqVaDkJc</a> |
| 바른 언어사용 UCC                | <a href="http://youtu.be/8-Bi5328yyw">http://youtu.be/8-Bi5328yyw</a> |
| 언어적 폭력·말도 상처가 돼요.          | <a href="http://youtu.be/MbDsH8gWqjA">http://youtu.be/MbDsH8gWqjA</a> |
| 신흥중학교 3-2반 언어폭력 UCC 영상프로젝트 | <a href="http://youtu.be/inbBITECEoM">http://youtu.be/inbBITECEoM</a> |
| 뇌를 감동 시키는 칭찬의 말            | <a href="http://youtu.be/RyrUG1M3Y0g">http://youtu.be/RyrUG1M3Y0g</a> |

4. 토론 구상지

| 원탁토론 구상지  |  |           |                      |
|-----------|--|-----------|----------------------|
| 모듬명( )    |  | 지도교사 ( )인 |                      |
| 논 제       |  | 일 시       | 20 . . . ( )요일 ( )교시 |
| 입론 주장과 논거 |  |           |                      |
|           |  |           |                      |
|           |  |           |                      |
| 토론 작전     |  |           |                      |

### 5. 토론 활동지

| 모둠토론 활동지 |                      |       |       |       |
|----------|----------------------|-------|-------|-------|
| 평가일자     | 20 . . . ( )요일( )교시  |       |       |       |
| 평가자      | ( )학년 ( )반 ( )모둠 ( ) |       |       |       |
| 논제       |                      |       | 토론 형식 | 원탁토론  |
| 토론자명     | 판정내용                 |       |       |       |
|          | 1차 발언                | 2차 발언 | 3차 발언 | 4차 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감       |                      |       |       |       |





## V. 찬반논쟁 협동학습(pro-con) 토론 수업



- I. 본 수업의 주안점
- II.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
- III. 수업 준비
- IV. 본 수업 전개
- V. 정리 및 평가
- VI. 다른 단원 적용 사례

현대사회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허용되고 존중되는 다원화 사회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기도 한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논쟁적 갈등에 대해 균형 있는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에 접해야 하고, 새로운 경험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관점에서 정확한 추론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논쟁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논리적이고 심리적인 절차를 합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내면화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찬반논쟁 협동학습(Pro-Con) 모형을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다.



## V. 찬반논쟁 협동학습(pro-con) 토론 수업

### I 본 수업의 주안점

#### 1. 연계 단원과 단원 설정 이유

가. 연계 단원 : 환경친화적인 삶

나. 적용되는 단원 이해와 찬반논쟁 협동학습(Pro-Con) 모형 적용 이유

이 단원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과 환경 윤리적 관점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한 도덕적 민감성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환경의 개발과 보존 문제는 인류와 자연환경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생명의 존속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 개발이나 환경보존이냐의 관점 설정과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이 환경을 전혀 개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서 찬반논쟁 협동학습(Pro-Con) 모형을 적용하는 이유가 생겨난다. 소모둠 내에서 찬반토론과 입장바꾸기 과정을 거친 후 모둠원들이 협동을 통해 하나로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보존해야하는 절충적인 대안을 찾아보게 된다. 인간의 삶 자체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전제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이라는 환경 윤리를 학생들 스스로 이끌어내어 환경친화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2. 핵심 개념

가. 논쟁의 사고 과정의 의미와 이해

1) 논쟁의 개념

논쟁이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말이나 글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거나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말이나 글로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다투는 것을 말한다.

2) 논쟁의 목적

논쟁의 목적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청중들을 설득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중은 주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찬성과 반대 어느 쪽 입장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알아도 어느 쪽에도 편을 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청중에게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관심이 커지도록 도와주는 것, 또는 나의 주장이 이들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어야 한다.

3) 논쟁과 언쟁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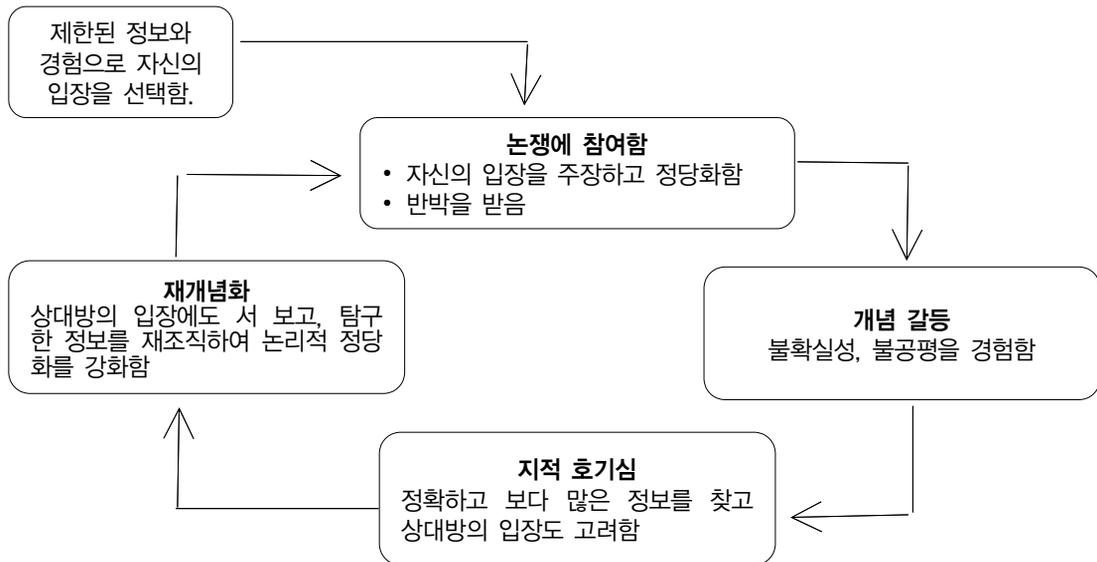
|     | 논쟁                                                                                  | 언쟁                            |
|-----|-------------------------------------------------------------------------------------|-------------------------------|
| 공통점 |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br>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 차이점 | 청자라는 제 3자를 설득하기 위해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는 두 사람이 말하는 것                                        | 각각 상이한 주장을 가진 사람이 서로 말로 싸우는 것 |
| 예   | 층간 소음 문제로 위아래 층의 말싸움에 다른 층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자기주장이 옳다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 | 층간 소음 문제로 위, 아래층이 서로 싸우는 것    |

4) 논쟁의 사고 과정

개인이 어떤 논쟁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다음과 같은 사고과정이 발생한다.

- (가) 먼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불안정한 정보와 제한된 경험, 자신의 관점에 기초하여 최초의 가설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 (나) 다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정보, 경험, 관점에 의한 다른 결론에 접하게 된다.
- (다) 다른 결론에 접하면서 자신의 결론이 정확한 지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고, 개념 갈등과 불평형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 (라) 이러한 개념 갈등과 불평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보, 새로운 경험, 적절한 관점, 정확한 추론 등을 추구하게 된다.
- (마) 이를 통해 확산적 사고를 하게 되어 논쟁에 대한 재개념화되고, 재구성화된 결론을 얻게 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sup>



3) 정문성, 2006.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P382

### 나. 찬반논쟁 협동학습(Pro-Con)의 개념

찬반논쟁 협동학습이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그 결정이 개인은 물론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때 사용되는 논쟁 토론 방법’이다. 이 방법은 Johnson & Johnson이 1994년 창안한 것으로 논쟁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논리적이고 심리적인 절차를 수업절차로 그대로 재현하여 모형으로 만든 것이다. 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반적인 쟁점 토론이 대결적인 요소가 강한 편이므로 이를 수정, 보완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 2)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 3) 또래 집단 안에서의 입장을 세밀하게 나누어 진행하므로 토론을 더욱 정교화 하는 것이다.
- 4) ‘pro’는 주어진 토론에서 ‘찬성’ 쪽을, ‘con’은 반대쪽을 의미한다.
- 5) 모둠 내에서 서로 반대되는 미니 모둠을 만들어 갈등 상황을 연출하고, 진술한 상황을 경험한 다음, 최종적인 모둠 결정을 하게 된다.
- 6) 내용상으로는 협동적인 찬반 토의·토론이라 말할 수 있다.

### 다. 찬반논쟁 협동학습(Pro-Con)의 특징

찬반논쟁협동학습 모형은 협동학습 구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토론수업과 다르다. 갈등 요소가 집단의 대립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토론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 때문이다.

첫째는 한 모둠 안에서 소모둠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 모둠 전체가 하나의 집단으로 역할 한다는 측면에서 집단의 갈등은 일시적인 것이다.

둘째는 토론 과정에서 입장 바꾸기를 통해 상대의 토론 내용에 대하여 느낀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더 많은 토론 주제가 망라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모둠 토론이 끝난 후 모둠에서 찬(pro), 반(con) 중 하나를 모둠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정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토론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해소하고 집단 내의 합일성을 강조하는 과정을 부여한다.

따라서 찬반논쟁협동학습 모형은 찬성과 반대가 참여한 쟁점을 가진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 갈등하기보다는 협동을, 대립하기보다는 합의를 강조하는 쟁점 토론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 라. 찬반논쟁 협동학습(Pro-Con)의 절차

Johnson and Johnson(1994)이 제안한 찬반논쟁협동학습 모형은 수업의 구체적인 진행을 위한 절차보다 논쟁문제를 대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논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논쟁에 대한 개인적인 활동의 과정을 통해 논쟁이 어떻게 정리되는 가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찬반논쟁 협동학습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토론 주제인 논쟁문제와 관련하여 정보를 조직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이 시기에 학생은 주제와 관련하여 제안된 자신의 경험과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해 찬성과 반대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 2) 토론 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정한 ‘찬성’, ‘반대’ 중 주장 하나를 발표하고 자신이 주장에 대하여 다른 학생의 지지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
- 3) 논쟁이 되는 토론 주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관점이 내용을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은 한 모둠에 속하지만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로부터 반대되는 의견과 그 이유를 듣고 서로에 대하여 비판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 4) 학생들은 논쟁이 되는 문제에 대해 처음 생각한 의견과 관련하여 개념 갈등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듣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자신이 가진 관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식하면서 혼란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5) 논쟁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적 호기심과 관점 채택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적은 경험과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한 첫 번째 판단의 문제를 인지하고, 보다 명확하면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어야겠다는 인식을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분명한 관점을 채택하게 된다.
- 6) 논쟁문제에 대한 재개념화와 종합을 통한 통합적인 해결을 경험한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더 많은 근거자료에 기초하여 논쟁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재개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통합하게 된다.  
여기서 찬반논쟁 협동 학습은 논쟁의 사고과정을 학습 모형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마. 찬반논쟁 협동학습(Pro-Con)의 진행 방법

앞에서 설명한 Johnson and Johnson의 pro-con 모형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수업 절차로 모형화한 것은 정문성(1996)이다. 정문성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Johnson & Johnson(1994)모형을 한국적인 수업 상황에 맞게 적용을 시도하면서, 미니 소집단(2인) 중심의 찬반 입장을 정한 후, 토론과 반박 그리고 종합 과정에 이르는 6단계를 설정했는데, 이에 대한 수업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모둠 내에 미니 모둠을 만들고, 주어진 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을 준비한다. 협동학습 구조에 기반을 둔 4명으로 모둠을 만들고, 그 안에 2명씩 미니 모둠을 만들도록 한다. 그리고 미니 모둠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찬성팀과 반대팀의 입장에서 각각의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를 의논하게 된다.
- 2) 모둠별로 논쟁적인 토론 주제를 동일하게 제시하고, 미니 소모둠은 마주 앉도록 한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가진 2명이 나란히 앉아 반대의견을 가진 미니 소모둠과 마주 보고 앉도록 한다.
- 3) 미니 모둠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 주장을 발표하게 한다. 미니 소모둠은 주어진 논쟁 주제에

대하여 ‘문제 정의 -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의 확인 및 분석 - 연역적 또는 귀납적 논리 구조’, ‘자신의 의견 정리하기 - 상대방을 비판할 증거 준비하기’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자료, 경험에 근거하여 소집단 내에서 발표할 자신의 주장 및 근거를 정리한다. 미니 소모둠 구성원 2명은 이 과정에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미니 소모둠에서 주장할 내용을 문장 형태로 정리한다.

- 4) 반대 관점을 경험한 학생들은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미니 모둠이 주장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에 적합한 다양한 인지적 자료(통계 자료 등), 관련된 다양한 가치 등을 동원하여 자신의 관점의 근거를 주장한 후 미니 소모둠 발표에서 나왔던 관점을 기초로 토론을 벌인다. 이 때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비판을 한다. 또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상대의 비판을 이해하고 그 비판에 대하여 반박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의견이나 주장을 내놓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모둠원 2명은 서로 전략적으로 한 사람이 주장하고 기록하는 등의 역할을 나눌 수 있으며 상대에 대한 반박이나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재반박 준비를 같이 공유하면서 한 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5) 두 미니 소모둠이 지금까지 배웠던 다른 방법과는 달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바꾸어 본다. 이 시기에는 입장을 단순히 바꾸어 다시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토론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상대가 주장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여 본다. 또는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이런 활동은 일반적으로 토론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에 매몰되어 감으로써 자신의 입장에서 사고하지 못했던 것을 상대방이 생각해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 바꾸기 토론이 가능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협동학습 구조이기에 가능하다.
- 6) 모둠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소모둠은 지금까지 나왔던 의견과 주장, 근거 등에 비추어 4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찬성이나 반대 또는 새로운 의견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찬성이나 반대를 다수결 등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견과 자료를 분석하고 결합하여 종합한 결과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합니다.
- 7) 모둠별로 하나로 결정된 의견에 대하여 학급 전체에 발표한다.

## Ⅱ 성취 기준 및 학습 목표

1. 성취기준 :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친화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내용                                                                                                                                                      | 성취기준                                                                      | 성취수준 |                                                                           |
|--------------------------------------------------------------------------------------------------------------------------------------------------------------|---------------------------------------------------------------------------|------|---------------------------------------------------------------------------|
| 도941.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과 환경 윤리적 관점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한 도덕적 민감성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생태계 파괴가 곧 인간 삶의 파괴로 직결됨을 인식하고 실천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삶의 실천 역량을 함양한다. | 도941.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환경 친화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 상    |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하여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다. |
|                                                                                                                                                              |                                                                           | 중    |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부분적이지만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다.           |
|                                                                                                                                                              |                                                                           | 하    |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

|                                                                                                            |   |                                                                                                                      |
|------------------------------------------------------------------------------------------------------------|---|----------------------------------------------------------------------------------------------------------------------|
| <p>〈출발점〉<br/>“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이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은 당연해.”</p> <p>“인간의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환경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p> | ⇒ | <p>〈목표점〉<br/>“인간은 자연 속의 한 존재이므로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해.”</p> <p>“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도 함께 발전하려면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해야 해.”</p> |
|------------------------------------------------------------------------------------------------------------|---|----------------------------------------------------------------------------------------------------------------------|

## 2. 학습목표

첫째, 댐 건설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찬반논쟁 협동학습(Pro-Con) 모형을 활용한 토론을 통해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하여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다.

### Ⅲ 수업 준비

#### 1. 수업 준비 단계(수업 1주일 전)

| 학생                                                                                                                                   | 교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듈 구성 및 미니모듈 구성</li> <li>• 모듈 내 2:2 찬반 미니 모듈 구성</li> <li>• 토론 수업을 위한 조사과제 학습지 작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듈 구성 및 미니모듈 구성법 안내(이질집단 구성)</li> <li>• 과제 부여</li> <li>• 토론 수업을 위한 조사과제 학습지 배부</li> </ul> |

#### 2. 좌석 배치

4인 1조 모듈형 좌석으로, 가능한 남녀학생이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한다. 이질집단으로 구성하되 모듈 활동을 이끌 수 있는 1~2명이 배치 되도록 한다.

|         |         |         |         |         |         |
|---------|---------|---------|---------|---------|---------|
| ①<br>반대 | ③<br>찬성 | ①<br>반대 | ③<br>찬성 | ①<br>반대 | ③<br>찬성 |
| ②<br>반대 | ④<br>찬성 | ②<br>반대 | ④<br>찬성 | ②<br>반대 | ④<br>찬성 |
| ①<br>반대 | ③<br>찬성 | ①<br>반대 | ③<br>찬성 | ①<br>반대 | ③<br>찬성 |
| ②<br>반대 | ④<br>찬성 | ②<br>반대 | ④<br>찬성 | ②<br>반대 | ④<br>찬성 |
| 교 탁     |         |         |         |         |         |

①②③④ 학생은 ‘소모둠(4명)’이며, ①②학생과 ③④학생은 ‘미니 소모둠(2명)’이 된다.

### 3. 학생용 학습지(예시)

| <b>■ 토론수업을 위한 조사과제 학습지</b>                                                                                                                                                                                                        |                                                              |
|-----------------------------------------------------------------------------------------------------------------------------------------------------------------------------------------------------------------------------------|--------------------------------------------------------------|
| 1학년 ( 3 )반 ( 7 )번 이름: 김00                                                                                                                                                                                                         |                                                              |
| ◆ 토론논제 : <b>댐 건설해야 한다.</b>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할 내용 : 위의 주제로 토론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찾아오고, 자료의 제목을 자세하게 적어보세요(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사진, 신문, 잡지 기사, 인터넷 검색 자료 출력물, 책 등의 자료를 수집합니다.)</li> <li>• 원래 자료는 오리거나 출력하여 뒷면에 붙여주세요.</li> </ul> |                                                              |
| <b>1. 자료의 제목, 자료를 찾은 출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봅니다.</b>                                                                                                                                                                                     |                                                              |
| ① 자료의 제목 : 충주댐 · 소양강 댐이 살렸다.                                                                                                                                                                                                      | ② 자료의 출처: 기사-조선일보, 사진-연합뉴스                                   |
| ③ 자료의 내용 요약                                                                                                                                                                                                                       |                                                              |
| 2006년 7월 15~16일에 소양강 댐 유역과 충주 댐 유역의 강우량이 532mm, 484mm를 기록했음                                                                                                                                                                       |                                                              |
| 에도 불구하고, 그 댐들이 방류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서울과 여주 등 하류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                                                              |
| <b>2. ‘물 관리를 위해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의 내용을 적어 보세요.</b>                                                                                                                                                                                  |                                                              |
| ① 가뭄과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                                                              |
| ②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                                                              |
| ③ 댐이 없다면 폭우가 왔을 때 물을 가두지 못해 논, 밭 등이 잠기고 자연이 파괴된다.                                                                                                                                                                                 |                                                              |
| <b>3. ‘환경 보존을 위해 댐을 건설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의 내용을 적어 보세요.</b>                                                                                                                                                                               |                                                              |
| ① 댐 수몰지역이 생겨난다.                                                                                                                                                                                                                   |                                                              |
| ② 생태계가 파괴되어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된다.                                                                                                                                                                                                       |                                                              |
| ③ 안개 발생으로 교통사고, 교통체증이 증가하게 된다.                                                                                                                                                                                                    |                                                              |
| <b>4. ‘댐건설’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적어 보세요.</b>                                                                                                                                                                                         |                                                              |
| <b>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b>                                                                                                                                                                                                             | <b>댐을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b>                                    |
| 댐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많은 폭우가 왔을 때 물을 가두지 못해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하며, 댐 건설을 통해 홍수 가뭄에 대비하고 부족한 전력을 얻어야 한다.                                                                                                                                           | 댐을 건설하면 생태계가 파괴되어 그 곳의 동식물의 생명을 위협하며, 수몰 지역이 발생하며 명승지가 파괴된다. |

## IV 본 수업의 전개

### 1. 토론 논제

댐 건설, 물 관리를 위해 계속해야 할까? 환경보호를 위해 중지해야할까?

#### 【논제 선정 이유】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환경의 개발과 보존 문제는 인류와 자연환경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생명의 존속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 개발이나 환경 보존이냐의 관점 설정과 태도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본 토론은 댐 건설을 둘러싼 수자원 공사와 환경단체, 지역 주민의 갈등을 제시하여 환경의 개발이나 보존이냐의 문제를 이해하고 자연환경을 대하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수업 개요

- 대상 : 전체
- 인원 : 1개 학급 28명~36명
- 수준 : 중학생
- 소요시간 : 45분

### 3. 준비물

- 가. 교사 : 동영상 자료, PPT자료, 읽기 자료, 초시계, Pro-Con 수업 진행 게시물  
 나. 학생 : 조사과제 학습지, 토론 결과 보고서, 토론수업 자기 평가표

#### 【전체적인 수업절차】 4)

| 토의 토론 학습의 단계   | 시간(분) | 학습 내용                           | 유의점                   |
|----------------|-------|---------------------------------|-----------------------|
| 학습목표의 확인       | 2     | 논쟁 활동을 통하여 획득해야 할 행동 목표         |                       |
| 토의, 토론 규칙 정하기  | 5     | 문제제시. 토의, 토론 시간, 발표 방법, 역할 배분 등 |                       |
| 소모둠과 미니 모둠의 구성 | 3     | 4인의 모소모, 2인의 미니 모둠              | 소모둠 내 2개의 미니 모둠(이질집단) |

4) 함께 해서 즐거운 협동학습, 정문성, 조성태, 서우철 공저, 즐거운 학교, p 162

| 토의 토론 학습의 단계    | 시간(분) | 학습 내용                                                                                                  | 유의점                                                          |
|-----------------|-------|--------------------------------------------------------------------------------------------------------|--------------------------------------------------------------|
| 미니 모둠끼리의 토의, 토론 | 10    | 찬성 측 2명, 반대 측 2명/ 사회는 교사가 수행                                                                           | 논제는 동일                                                       |
| 입장 바꾸기          | 5     |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바꾸어 상대방을 심문함                                                                               | 사고의 폭을 넓힘                                                    |
| 소모듬의 토의, 토론     | 5     | 소모듬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학급 전체에 발표할 준비를 함.                                                            | 모듬별로 화이트보드를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임                                  |
| 소모듬 의견 발표 및 일반화 | 10    | 소모듬의 종합된 의견을 발표.<br>학급 학생 수가 많아 소모듬이 많을 경우 발표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발표 시간을 조절함.<br>화이트보드에 요약하여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임. | 발표 시간은 요약된 글을 읽음.<br>실물화상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효과가 있음. |
| 토의, 토론 심사평      | 5     | 교사는 토의, 토론 전체의 과정을 심사하여 논평하고, 일반화시킴.                                                                   | 수행평가를 병행함                                                    |
| 계               | 40    |                                                                                                        |                                                              |

## 4. 수업의 진행

### 가. 전시 학습 확인 :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

- **교사** : 먼저 지난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공부했는데 몇가지 태도가 있었죠?
- ☞ **학생** :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보는 태도 와 두 번째는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 **교사** :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나 O, 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O, X 판을 들어주세요
- **교사** : (준비한 2문제를 PPT로 제시)
- ☞ **학생** : O, X 판으로 정답 표시
- **교사** : 여러분 모두 잘 맞추었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 나. 동기유발 활동 : 뉴스 동영상 보고 갈등 관계 파악하기

- **교사** :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 5월 23일에 보도되었던 ‘지리산 댐 건설 논란’ 관련 뉴스인데요, 댐 건설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을 분석하면서 봐 주세요. (뉴스 링크)
- **교사** : 잘 보셨나요? 뉴스를 보면 댐 건설에 대한 입장들이 서로 다른데, 어떤 입장들이 있었나요?

- ☞ **학생들** : ‘수자원공사’는 홍수 조절을 위해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개발’의 입장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댐이 건설되면 환경이 파괴되고 유적지가 수몰되므로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보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댐건설을 통한 ‘개발’을 바라고 있습니다.
- **교사** :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 ☞ **학생들** : 아니요.
- **교사** :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존중되어지는 다원화 사회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나는데요, 갈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을 해야 하겠죠?

### ● 관련 기사

정부가 지리산에 대형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 건설과 동시에 주변 연못이 물에 잠기고 문화재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 <기자>

경남 함양군 지리산 자락의 용유담은 지리산을 따라 흐르는 임천강물이 계곡 안에 고여 만들어진 연못입니다.

지리산에선 보기 드물게 거대한 암반지대에 형성됐습니다.

이런 암반지대에서 모래와 자갈이 수 만 년 동안 물과 함께 소용돌이치면 어떻게 될까요? 포트 홀이라는 희귀한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절구처럼 움푹 패인 큰 포트홀이 곳곳에 형성돼있습니다.

용이 놀던 연못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선시대 가뭄이 오면 이곳에서 용에게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와 함양군이 용유담 근처에 댐을 건설하겠다고 나서면서 비롯됐습니다.

용유담에서 3.2km 떨어진 하류에 141m 높이의 홍수방지용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댐이 건설되면 용유담은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함양군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함양군청 관계자 : 지속적인 태풍으로 전부 훼손되고 떠나려가 버렸어요. 교량들이 물에 안 떠나려간 교량이 없습니다. 인명피해도 상당히 있었고]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홍수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환문/경남환경운동연합 : 태풍만 오면 거대한 지리산 댐을 지어야 할 만큼 큰 피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용유담을 명승지로 지정하려던 문화재청의 계획은 이런 갈등 때문에 일단 보류됐는데, 다음 달 명승지 지정 문제를 매듭지를 계획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 뉴스(2012. 5. 24)

#### 다. 목표 확인

첫째, 댐 건설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찬반논쟁 협동학습(Pro-Con) 모형을 활용한 토론을 통해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하여 환경친화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다.

#### 라. 찬반논쟁 협동학습(Pro-Con) 모형 활용 토론 활동 전개

##### ● 수업 진행 과정 시 유의점

| 학생                                                                                                                                                  | 교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론 진행 순서 숙지하고 지키기</li> <li>상대방 의견 경청, 주장, 질문 메모</li> <li>상대 의견 오류 찾고 반박 근거 제시</li> <li>주어진 시간 지키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론 과정 및 방법 안내</li> <li>사회자 역할, 단계별 원활한 진행, 시간 측정</li> <li>말하기, 오류지정하기, 경청하기 지도</li> <li>토론결과 발표 지도</li> </ul> |

##### ● 수업 전개 과정

• **교사** : 지금부터 ‘환경을 보존해야 할까, 개발해야 할까’에 생각해보기 위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수업을 위해서 조사 학습지를 과제로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 작성해 왔죠?

☞ **학생들** : 네

• **교사** : 미리 알려드렸던 오늘의 토론 주제는 무엇인가요?

☞ **학생들** : ‘댐 건설, 물 관리를 위해 계속해야 할까? 환경보호를 위해 중지해야 할까?’입니다.

• **교사** :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댐 건설, 물 관리를 위해 계속 해야 할까, 아니면 환경보호를 위해 중지해야 할까’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찬반논쟁 협동학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칠판에 게시된 찬반 논쟁협동학습 진행 순서를 가리키며 설명)

• **교사** : 간단히 순서를 보면 4명이 모둠 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2명이 어깨짝으로 미니모듬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니모듬끼리 찬성 측과 반대측이 되어 발표할 내용을 의논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마주 앉은 미니모듬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입장을 바꾸어 토론하게 됩니다. 찬성측은 반대측, 반대측은 찬성측이 되어보는 단계인데 이렇게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면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주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와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찬반 토론을 하지만 결국은 협동학습입니다. 다음 단계는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4명의 모듬원이 한가지로 입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린 찬반논쟁협동학습의 순서에 대한 이해가 잘 되나요?

☞ **학생들** : 네.

• **사회자(교사)** :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니모듬을 구성해 봅시다. 선생님 오른쪽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찬성측, 왼쪽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반대측이 됩니다. 과제학습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미니모듬인 어깨짝과 함께 발표할 주장을 의논하며 정리하십시오. 시간은 4분입니다.

☞ **학생들** : (자료를 꺼내 살펴보면서 어깨짝과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토의, 토론한다.)

• **사회자(교사)** : 이제 찬성측과 반대측 미니 모듬끼리 마주보며 토론을 합니다. 찬성 측은

반대 측에게 정리한 내용을 전하고, 반대 측은 찬성 측에게 찬성의 이유와 근거를 말해줍니다. 찬성측부터 주장하시고 (토론결과 보고서 서식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보고서에 정리를 하십시오. 시간은 6분입니다.

☞ **학생들** : (서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다.)

• **사회자(교사)** : 중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각 모둠 중에서 발표할 모둠 있나요?

☞ **발표자1** : (찬성의 의견과 반대의 의견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한다.)우리 모둠의 토론을 통해서 댐 건설을 찬성 한다는 입장에서는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댐건설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고, 가뭄과 홍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부족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 한다는 입장에서는 댐을 건설하면 수몰지역이 생겨나고 명승지나 문화재들이 수장되며 생태계가 파괴되어 희귀 동식물을 보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사회자(교사)** : 발표를 아주 잘해주었습니다.(박수 유도)

• **사회자(교사)** : 이제부터는 미니모둠끼리 입장을 바꾸어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에 놓인 팻말을 바꾸어 놓고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바뀐 찬성측부터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 **학생들** : (팻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어 의견을 나눈다.)

• **사회자(교사)**: 여기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하겠습니다. 어느 조가 발표할까요?

☞ **발표자2** : (실물화상기를 사용한다.)정리된 내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입장 바꾸어 토론한 내용을 발표한다.)

• **사회자(교사)** :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네요. 발표 잘했습니다.(박수 유도)

• **사회자(교사)** : 이제부터는 두 개의 미니 모둠으로 나누어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4명의 모둠원이 한가지로 입장을 정리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또는 절충적인 대안 등 하나의 의견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정리하십시오. 시간은 5분입니다.

☞ **학생들** : (소모둠 4명의 의견을 모아 종합하여 토론 결과를 보고서에 기록한다.)

**사회자(교사)** :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찬성에 만장일치된 모둠은 몇모듬인가요? 반대에 만장일치된 모둠은 몇모듬인가요? 만장일치가 안된 모둠 어떤 모듬인가요?

☞ **학생들** : (각 모둠별로 해당되는 질문에 손을 든다.)

• **사회자(교사)** : 각 모둠에서 발표를 맡은 학생이 나와서 발표를 합시다. 먼저 찬성으로 결정된 조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 **발표자3** : (만장일치로 찬성된 내용) 저희 모둠에서 하나로 정해진 종합결론의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댐을 건설하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고 전기를 얻을 수 있으며 댐을 레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며 댐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므로 댐 건설에 찬성합니다.

(찬성 결론을 얻은 다른 모듬의 발표 계속...)

• **사회자(교사)** : 찬성 모듬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만장일치를 이룬 모듬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 **발표자4** : (만장일치로 반대된 내용) 저의 모둠에서는 댐 건설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댐을 건설하면 생태계가 균형을 잃고 자연이 파괴되어 큰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몰지역이 발생하여 귀중한 문화재, 명승지 등이 물에 잠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댐 건설에 반대합니다.

(반대 결론을 얻은 다른 모둠의 발표 계속...)

• **사회자(교사)** : 반대 모둠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모두 설득력 있고 일리가 있네요. 종합결론에서 만장일치가 안 된 모둠도 있네요. 왜 그랬고 어떤 절충안이 나왔을까요? 발표해 봅시다.

☞ **발표자5** : (절충적인 대안으로 정리된 모둠의 내용) 저희 모둠에서는 찬성의견 2명, 반대의견 2명으로 나뉘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충적인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댐 건설은 막되 장마철이나 가뭄에 대비하여 따로 저수지를 만들고, 아름다운 명승지를 잘 보존하고 자연 환경 파괴를 줄이자는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절충적인 대안으로 결론이 난 다른 모둠의 발표 계속...)

• **사회자(교사)** : 만장일치가 안되어 절충적인 대안을 마련한 모둠에서도 새롭고 좋은 의견들이 많네요.

• **사회자(교사)** : 오늘은 인간은 ‘환경을 계속 개발해야 할까, 보존해야 할까’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댐 건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여러분 아주 훌륭했습니다. 토론 수업을 위한 과제 학습지도 모두 잘해오고 토론할 때에도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대면서 진지하게 아주 잘 해주었으며 여러분의 의견 모두 좋았습니다.

• **교사** : 그럼, 오늘의 공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개발해야 할까, 보존해야 할까에 대해 ‘환경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자연은 인간의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누구 중심이죠?

☞ **학생들** : 인간

• **교사** : 그런데 이러한 입장의 문제점은 뭘까요?

☞ **학생들** : 지나친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됩니다.

• **사회자(교사)** :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비판하면서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요, 이 입장에서는 무엇을 소중히 여길까요?

☞ **학생** : 자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 **교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개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 **학생들** : 아니요. 많이 불편할 거예요. 전기도 못쓰고 그러니 냉장고도 쓸 수 없고 자동차도 못타고 다니고...

• **교사** : 그러면 자연을 개발하면서 인류의 보금자리를 보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시간에는 개발하면서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V 정리 및 평가

| <b>■ 토론 결과 보고서</b>        |                                                                                                                    |                                                                                                                           |    |
|---------------------------|--------------------------------------------------------------------------------------------------------------------|---------------------------------------------------------------------------------------------------------------------------|----|
| 1학년 ( 6 )반 ( 2 )번 이름: 김00 |                                                                                                                    |                                                                                                                           |    |
| 토론수업일                     | 2013년 9월 10일 ( 월 )요일 ( 2 )교시                                                                                       |                                                                                                                           |    |
| 토론 주제                     | <b>댐 건설, 물 관리를 위해 계속해야 할까? 환경보호를 위해 중지해야 할까?</b>                                                                   |                                                                                                                           |    |
| 모둠원 이름                    | 김00, 동00, 배00, 서00                                                                                                 |                                                                                                                           |    |
| 1. 토론 과정의 내용              | 찬성                                                                                                                 | 댐을 통해 홍수조절을 할 수 있고 부족한 전기를 얻을 수 있다. 댐을 건설하지 않으면 홍수와 가뭄이 되풀이 된다. 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    |
|                           | 반대                                                                                                                 | 수몰 지역이 많이 발생한다. 아름다운 문화재들이 수장된다. 환경이 파괴된다. 많은 안개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교통정체가 많이 발생한다.                                               |    |
| 2. 역할 바꾸기 과정에서 토론 내용      | 찬성                                                                                                                 | 댐을 레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사업이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홍수 조절, 수력발전 등, 다목적 댐이 건설되므로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댐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    |
|                           | 반대                                                                                                                 | 댐을 건설하면 생태계의 균형을 잃고 희귀 동식물을 보존할 수 없다.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외국에서도 댐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    |
| 3. 모둠 토론 결과               | 만장일치 여부                                                                                                            | 만장일치 됨( ○ )                                                                                                               | 찬성 |
|                           |                                                                                                                    |                                                                                                                           | 반대 |
|                           |                                                                                                                    | 만장일치 안 됨( ) 이유                                                                                                            | ○  |
| 하나로 정해진 종합 결론             | 댐을 건설하면 생태계가 균형을 잃고 자연이 파괴되어 더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된다. 수몰 지역이 발생하여 귀중한 문화재, 명승지 등이 물에 잠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u>댐 건설에 반대한다.</u> |                                                                                                                           |    |

| <b>■ 토론수업 자기 평가표</b>                                               |                                        |                    |   |   |
|--------------------------------------------------------------------|----------------------------------------|--------------------|---|---|
| 1학년 ( )반 ( )번 이름:                                                  |                                        |                    |   |   |
| 토론수업일                                                              | 년 월 일 ( )요일 ( )교시                      |                    |   |   |
| 토론 주제                                                              |                                        |                    |   |   |
| 모둠원 이름                                                             |                                        |                    |   |   |
| ◆ 토론 학습은 즐거웠나요? 토론 학습에 참여한 자신을 스스로 솔직하게 평가하여 봅시다. 해당되는 칸에 O표해 보세요. |                                        |                    |   |   |
| 단계                                                                 | 내용                                     | 상                  | 중 | 하 |
| 1. 토론 전                                                            | 정해진 토론 주제를 이해했는가?                      |                    |   |   |
|                                                                    | 토론수업을 위한 조사과제 학습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   |   |
| 2. 토론 중                                                            |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                    |   |   |
|                                                                    |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때 관련 자료를 찾고 이유나 근거를 제시했는가? |                    |   |   |
|                                                                    | 친구들의 의견에 관심을 가졌는가?                     |                    |   |   |
| 3. 토론 후                                                            | 내 의견과 친구들의 의견을 비교해 보았는가?               |                    |   |   |
|                                                                    | 친구들의 토론 태도나 의견을 보고 배운 점이 있는가?          |                    |   |   |
|                                                                    | 토론 결과를 스스로 정리하며 토론을 마쳤는가?              |                    |   |   |
| <b>합계</b>                                                          | 개수 기록                                  |                    |   |   |
| <b>제일 잘한 모둠과 그 이유</b>                                              |                                        | 제일 잘한 모둠 :<br>이유 : |   |   |

토론수업 자기 평가표는 토론 수업 전에 나눠주고 토론 후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어떻게 토론할 것인지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VI 다른 단원 적용 사례

1. 단원 명 : 삶과 죽음에 대한 도덕적 성찰

2. 토론 주제 : 안락사

3. 학습지도안

|          |                                                                                                                                                                                                                                                                                                                                                                                                                                                                                                                                                                                                                                                                                                                                                                                                                                                                                                                                                                                                                                                                                                                                                                                             |
|----------|---------------------------------------------------------------------------------------------------------------------------------------------------------------------------------------------------------------------------------------------------------------------------------------------------------------------------------------------------------------------------------------------------------------------------------------------------------------------------------------------------------------------------------------------------------------------------------------------------------------------------------------------------------------------------------------------------------------------------------------------------------------------------------------------------------------------------------------------------------------------------------------------------------------------------------------------------------------------------------------------------------------------------------------------------------------------------------------------------------------------------------------------------------------------------------------------|
| 학습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li> <li>2. 안락사에 대해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찬반 주장을 할 수 있다.</li> </ul>                                                                                                                                                                                                                                                                                                                                                                                                                                                                                                                                                                                                                                                                                                                                                                                                                                                                                                                                                                                                                                                       |
| 단계 (시간)  | 교수-학습 활동                                                                                                                                                                                                                                                                                                                                                                                                                                                                                                                                                                                                                                                                                                                                                                                                                                                                                                                                                                                                                                                                                                                                                                                    |
| 도입 (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전시 학습 확인 - 친환경적 삶의 실천 내용을 ○, × 퀴즈로 풀어본다.</li> <li><input type="checkbox"/> 본시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 제시-학습 목표를 읽고 배울 내용을 확인한다.</li> <li><input type="checkbox"/> 흥미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 열기’를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li> </ul> </li> </ul>                                                                                                                                                                                                                                                                                                                                                                                                                                                                                                                                                                                                                                                                                                                                                                                                                                                          |
| 전개 (37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인간 생명의 의의에 대해 설명한다.</li> <li><input type="checkbox"/>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발표하게 한다.</li> <li><input type="checkbox"/> 죽음의 의미와 도덕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li> <li><input type="checkbox"/> ‘안락사’에 대해 찬반논쟁협동학습(PRO-CON 모형)으로 토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미니 모듈 구성하기</li> <li>【2단계】 미니 모듈 내에서 발표할 내용 의논하며 작성하기(4분)</li> <li>【3단계】 미니 모듈끼리 토론하며 상대방 의견 정리하기(6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진행 확인을 위해 중간 발표를 시켜본다.</li> </ul> </li> <li>【4단계】 미니 모듈이 입장 바꾸어 토론하기(4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을 바꾸어 토론한 내용에 대해 중간 발표를 시켜본다.</li> </ul> </li> <li>【5단계】 모듈 의견을 하나로 정하기(3분)</li> <li>【6단계】 모듈 토론결과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결과 정리하기</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편지 쓰기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치의 병으로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 분께 용기를 주는 편지 발표</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죽음의 도덕적 의미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치있는 삶을 살도록 함</li> </ul> </li> </ul> |
| 마무리 (3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수업 내용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의 명언 제시</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차시 예고</li> </ul>                                                                                                                                                                                                                                                                                                                                                                                                                                                                                                                                                                                                                                                                                                                                                                                                                                                                                                                                                                                 |

#### 4. 수업 전개 시나리오

- **교사** :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죠?
- ☞ **학생들** : 인간의 생명에 대한 도덕적 성찰이었습니다.
- **교사** : 네.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가꾸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 × 퀴즈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 × 판을 들어주세요.
- ☞ **학생들** : (교사가 미리 준비한 ○, × 퀴즈 문제를 푼다.)
- **교사** :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늘은 아주 심오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도덕적 성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봅시다.
- ☞ **학생들** :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 ‘안락사에 대해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다.’
- **교사** :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은 소중한 것이지만 어떤 생명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인간의 생명 역시 무한할 수 없기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지 못한 죽음의 문제는 도덕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의 토론 주제였죠?
- ☞ **학생들** : 네
- **교사** : 미리 알려드렸던 오늘의 토론 주제는 무엇인가요?
- ☞ **학생들** : ‘안락사’입니다.
- **사회자(교사)** :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논쟁 주제인 ‘안락사’에 대해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찬반논쟁 협동학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칠판에 게시된 찬반논쟁협동학습 진행 순서를 가리키며 설명) 간단히 순서를 보면 4명이 모둠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2명이 어깨짝으로 미니 모둠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니모듬끼리 찬성 측과 반대측이 되어 발표할 내용을 의논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마주 앉은 미니모듬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입장을 바꾸어 토론하게 됩니다. 찬성측은 반대측, 반대측은 찬성측이 되어보는 단계인데 이렇게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면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주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와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찬반 토론을 하지만 결국은 협동학습입니다. 다음 단계는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4명의 모듬원이 한가지로 입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찬반논쟁협동학습의 순서에 대한 이해가 잘 되나요?
- ☞ **학생들** : 네.
- **사회자(교사)** :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니모듬을 구성해 봅시다. 선생님 오른쪽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찬성측, 왼쪽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반대측이 됩니다. 과제학습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미니모듬인 어깨짝과 함께 발표할 주장을 의논하며 정리하십시오. 시간은 4분입니다.
- ☞ **학생들** : (자료를 꺼내 살펴보면서 어깨짝과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토의, 토론한다.)
- **사회자(교사)** : 이제 찬성측과 반대측 미니 모듬끼리 마주보며 토론을 합니다. 찬성 측은 반대 측에게 정리한 내용을 전하고, 반대 측은 찬성 측에게 찬성의 이유와 근거를 말해줍

니다. 찬성측부터 주장하시고 (토론결과 보고서 서식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보고서에 정리를 하십시오. 시간은 6분입니다.

☞ **학생들** : (서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다.)

• **사회자(교사)** : 중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각 모둠 중에서 발표할 모둠 있나요?

☞ **발표자1** : (찬성의 의견과 반대의 의견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한다.)우리 모둠의 토론을 통해서 안락사에 찬성 한다는 입장에서는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억지로 살게 할 수 없고 많이 아플 때는 고통이 없는 게 편하기 때문이며 시한부 인생의 환자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 한다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안락사를 위장한 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사회자(교사)** : 발표를 아주 잘해주었습니다.(박수 유도)

• **사회자(교사)** : 이제부터는 미니모둠끼리 입장을 바꾸어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에 놓인 팻말을 바꾸어 놓고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바뀐 찬성측부터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 **학생들** : (팻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어 의견을 나눈다.)

• **사회자(교사)** : 여기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하겠습니다. 어느 모둠이 발표할까요?

☞ **발표자2** : (실물화상기를 사용한다.)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입장 바꾸어 토론한 내용을 발표한다.)

• **사회자(교사)** :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네요. 발표 잘했습니다.(박수 유도)

• **사회자(교사)** : 이제부터는 두 개의 미니 모둠으로 나누어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4명의 모둠원이 한가지로 입장을 정리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또는 절충적인 대안 등 하나의 의견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정리하십시오. 시간은 5분입니다.

☞ **학생들** : (소모둠 4명의 의견을 모아 종합하여 토론 결과를 보고서에 기록한다.)

• **사회자(교사)** :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찬성에 만장일치된 모둠은 몇 모둠인가요? 반대에 만장일치된 모둠은 몇모둠인가요? 만장일치가 안 된 모둠 어떤 모둠인가요?

☞ **학생들** : (각 모둠별로 해당되는 질문에 손을 든다.)

• **사회자(교사)** : 각 모둠에서 발표를 맡은 학생이 나와서 발표를 합시다. 먼저 찬성으로 결정된 조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 **발표자3** : (만장일치로 찬성된 내용) 저희 모둠에서 하나로 정해진 종합결론의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안락사로 인간답게 삶을 끝내도록 해주어야 하며 지켜보는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어야 하므로 안락사에 찬성합니다.

(찬성 결론을 얻은 다른 모둠의 발표 계속...)

• **사회자(교사)** : 찬성 모둠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만장일치를 이룬 모둠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 **발표자4** : (만장일치로 반대된 내용) 저의 모둠에서는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안락사는 살인이며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것에 어긋납니다. 사망

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생명은 어떤 것이든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안락사에 반대합니다.

(반대 결론을 얻은 다른 모둠의 발표 계속...)

- **사회자(교사)** : 반대 모둠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모두 설득력 있고 일리가 있네요. 종합결론에서 만장일치가 안 된 모둠도 있네요. 왜 그랬고 어떤 절충안이 나왔을까요? 발표해 봅시다.

☞ **발표자5** : (의견을 하나로 정하지 못한 모둠) 저희 모둠에서는 찬성의견 3명, 반대의견 1명으로 팽팽히 의견이 나뉘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특성상 절충적인 대안을 마련하지도 못했습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다른 모둠이 발표 계속...)

- **사회자(교사)** : 그렇군요. 여러분의 의견 모두 존중합니다.
- **사회자(교사)** : 오늘은 생명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안락사’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여러분 아주 훌륭했습니다. 토론 수업을 위한 과제 학습지도 모두 잘해오고 토론할 때에도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대면서 진지하게 아주 잘 해주었으며 여러분의 의견 모두 좋았습니다.

| 〈‘안락사’에 찬성 입장이 많은 경우〉                                                                                                                | 〈‘안락사’에 반대 입장이 많은 경우〉                                                                                              |
|--------------------------------------------------------------------------------------------------------------------------------------|--------------------------------------------------------------------------------------------------------------------|
| <p>사회자(교사) : 어차피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고통까지 심하니 고통을 빨리 덜어주자는 의견이 좀 더 많았네요. 하지만 그 삶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삶에 대한 의지와 용기를 불어넣어주었으면 합니다.</p> | <p>사회자(교사) :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므로 함부로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네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자세가 훌륭합니다.</p> |

- **교사** : ‘죽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 ☞ **학생들** : 슬프다. 두렵다. 허무하다.
- **교사** : 하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고 귀한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교사** : 오늘 토론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느꼈나요?
- ☞ **학생들** : 예.
- **교사** : 관련하여 오늘의 명언 남겨드릴게요. 미국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에머슨’의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 ☞ **학생들** :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로 하여금 헛되이 살지 않게 하라.’
- **교사** : 네, 하루하루 알차고 보람있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 **교사** : 다음시간에는 ‘삶의 유한성에 대한 각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읽기 자료

벨기에의 40대 남성이 안락사를 택했다. 암과 같은 불치병이 아니라 성전환 뒤의 정신적 고통이 문제였다. 그의 죽음을 허용한 의사의 결정이 적절했는지가 논란거리다.

AFP 통신에 따르면 나탄 베르헬스트(44·사진)는 1일(현지시간) 안락사를 위한 주사를 맞은 뒤 병상 위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 베르헬스트는 3남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이름도 나탄이 아니라 난시였다. 오빠 세 명을 둔 그는 어려서부터 남성을 동경했다. 2009년부터 호르몬 요법과 수술 등으로 성전환을 시작해 2년 전 남성의 신체를 갖게 됐다.

그때부터 그의 정신적 고통이 시작됐다. 그는 주변에 "가슴은 내가 생각했던 형태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성기는 조직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 나는 괴물이 됐다"고 호소했다. 영국 엑시터대의 연구에 따르면 성전환자의 30% 이상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우울증을 앓던 베르헬스트는 병원을 찾아가 안락사를 요구했고 의사 빔 디스텔만스는 이에 동의했다. "참기 힘든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디스텔만스는 지난해 40대 청각장애 쌍둥이에게 안락사를 시행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시각장애까지 겪게 된 쌍둥이 형제가 "서로를 볼 수 없는 것은 죽음보다 끔찍한 고통"이라고 호소하자 그는 이들의 뜻에 따랐다.

2002년부터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벨기에에서는 안락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432명(2011년에는 1133명)이 안락사로 숨졌다. 전체 사망자의 2%에 해당된다.

(출처 : JTBC뉴스, 2013년 10월 4일)

●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

| <b>■ 토론수업을 위한 조사과제 학습지</b>                                                                                                                                                                                                               |                                                                                                           |
|------------------------------------------------------------------------------------------------------------------------------------------------------------------------------------------------------------------------------------------|-----------------------------------------------------------------------------------------------------------|
| 1학년 ( 2 )반 ( 27 )번 이름: 홍00                                                                                                                                                                                                               |                                                                                                           |
| ◆ 토론주제 : <b>안락사</b>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할 내용 : 위의 주제로 토론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찾아오고, 자료의 제목을 자세하게 적어보세요(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사진, 신문, 잡지 기사, 인터넷 검색 자료 출력물, 책 등의 자료를 수집합니다.)</li> <li>• <u>원래 자료는 오리거나 출력하여 뒷면에 붙여주세요.</u></li> </ul> |                                                                                                           |
| 1. 자료의 제목, 자료를 찾은 출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봅니다.                                                                                                                                                                                                   |                                                                                                           |
| ① 자료의 제목 :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                                                                                                                                                                                                                 | ② 자료의 출처: 과학백과사전, 세계일보, 위즈키즈                                                                              |
| ③ 자료의 내용 요약                                                                                                                                                                                                                              |                                                                                                           |
| 안락사란 죽음에 임박한 붕치의 병상자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안락하게 죽게 하는 일이다.                                                                                                                                                                                        |                                                                                                           |
| 안락사에 대한 찬성, 반대 그에 대한 반박내용 등, 안락사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 등                                                                                                                                                                                         |                                                                                                           |
| 2.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내용을 적어 보세요.                                                                                                                                                                                                       |                                                                                                           |
| ①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억지로 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
| ②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                                                                                                           |
| ③ 시한부 인생의 환자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다.                                                                                                                                                                                                |                                                                                                           |
| 3.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의 내용을 적어 보세요.                                                                                                                                                                                                     |                                                                                                           |
| ① 안락사로 위장한 살해가 가능과 장기 매매 등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 ② 의사 표현이 안되는 환자라 아기들도 있기 때문이다.                                                                                                                                                                                                           |                                                                                                           |
| ③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                                                                                                           |
| 4. ‘안락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적어 보세요.                                                                                                                                                                                                        |                                                                                                           |
| ‘안락사를 찬성한다.’ 한다는 입장                                                                                                                                                                                                                      | ‘안락사를 반대한다.’는 입장                                                                                          |
| 배에 구멍을 내고, 호스로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하는 게 자연적인 건가요? 인위적으로 먹여주고, 숨쉬게 하고 죽음을 지연시키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렇바엔 안락사로 편하게 인간답게 삶을 끝내는게 나은 것이다.                                                                                                                  |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있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어떤 것이든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

## ■ 토론 결과 보고서

1학년 ( 2 )반 ( 7 )번 이름: 윤00

|                      |                                                                                                                                                                |                                                                                                           |    |
|----------------------|----------------------------------------------------------------------------------------------------------------------------------------------------------------|-----------------------------------------------------------------------------------------------------------|----|
| 토론수업일                | 2013년 10월 22일 ( 화 )요일 ( 4 )교시                                                                                                                                  |                                                                                                           |    |
| 토론 주제                | 안락사                                                                                                                                                            |                                                                                                           |    |
| 모둠원 이름               | ( 2 )모둠 : 윤00, 이00, 강00, 김00                                                                                                                                   |                                                                                                           |    |
| 1. 토론 과정의 내용         | 찬성                                                                                                                                                             | 생명 연장술로 1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으니 고통만 연장될 뿐이다. 보호자도 환자가 고통 받는 것을 보며 힘든 것이다.                              |    |
|                      | 반대                                                                                                                                                             | 인간에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다면 자살을 합법화하고 법이 자살을 장려할 수 있다. 또 환자의 진정한 의도도 모르고 가족이 부양 의무나 치료 의무를 면하려고 안락사 제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 |    |
| 2. 역할 바꾸기 과정에서 토론 내용 | 찬성                                                                                                                                                             |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피할 권리가 있으므로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게 될 바에는 그냥 고통없이 죽는게 더 좋은 것이다.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실행해도 된다.         |    |
|                      | 반대                                                                                                                                                             |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회복 불가능으로 판단해서 안락사 시키기도 하는데 이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험한 일이다.                 |    |
| 3. 모둠 토론 결과          | 만장일치 여부                                                                                                                                                        | 만장일치 됨( ○ )                                                                                               | 찬성 |
|                      |                                                                                                                                                                |                                                                                                           | 반대 |
|                      | 만장일치 안 됨( ) 이유                                                                                                                                                 |                                                                                                           |    |
| 하나로 정해진 종합 결론        | 고통이 죽을만큼 심하다라는 명제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조절해야 하는 것은 고통이지 생명이 아니다.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지 경제적 고통 때문에 안락사 시켜서는 안된다. 안락사가 허용되면 우리사회에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지므로 <u>안락사에 반대한다.</u> |                                                                                                           |    |

### ■ 토론수업 자기 평가표

1학년 ( )반 ( )번 이름:

|        |                   |
|--------|-------------------|
| 토론수업일  | 년 월 일 ( )요일 ( )교시 |
| 토론 주제  |                   |
| 모둠원 이름 |                   |

◆ 토론 학습은 즐거웠나요? 토론 학습에 참여한 자신을 스스로 솔직하게 평가 하여 봅시다. 해당되는 칸에 O표해 보세요.

| 단계   | 내용                                     | 상 | 중 | 하 |
|------|----------------------------------------|---|---|---|
| 토론 전 | 정해진 토론 주제를 이해했는가?                      |   |   |   |
|      | 토론수업을 위한 조사과제 학습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   |   |
| 토론 중 |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   |   |   |
|      |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때 관련 자료를 찾고 이유나 근거를 제시했는가? |   |   |   |
|      | 친구들의 의견에 관심을 가졌는가?                     |   |   |   |
| 토론 후 | 내 의견과 친구들의 의견을 비교해 보았는가?               |   |   |   |
|      | 친구들의 토론 태도나 의견을 보고 배운 점이 있는가?          |   |   |   |
|      | 토론 결과를 스스로 정리하며 토론을 마쳤는가?              |   |   |   |
| 합계   | 개수 기록                                  |   |   |   |

|                       |                        |
|-----------------------|------------------------|
| <b>제일 잘한 모둠과 그 이유</b> | 제일 잘한 모둠 :<br><br>이유 : |
|-----------------------|------------------------|

## Ⅵ. 하버드 모형을 변형한 쟁점 토론 수업



- Ⅰ. 본 수업의 주안점
- Ⅱ.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
- Ⅲ. 수업 환경 조성
- Ⅳ. 본 수업의 전개
- Ⅴ. 다른 단원 적용 사례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가?'를 테스트 하는 시대에 살아왔다. 하지만 정보가 일 초에 지구를 몇 바퀴를 돌고 있다는 현 시기에 지식의 많고 적음 자체는 의미가 약해졌다. 이제는 주어진 자료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가공하고, 자신만의 지식을 창조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지식을 가공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회과에서 하버드 모형을 대표로 하는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은 이러한 요구에 매우 적절하지만, 생각보다 널리 활용되지 않는 듯하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하버드 모형을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해서 토론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VI. 하버드 모형을 변형한 쟁점 토론 수업

### I 본 수업의 주안점

#### 1. 연계 단원과 단원 설정 이유

가. 연계 단원 : IX. 문화의 의미와 특징

나. 적용되는 단원 이해 5)

이 단원에서는 문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의 속성과 특징을 알아 보도록 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보는 바람직한 시각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대중 문화와 대중 매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중 문화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 문제가 사회의 다수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 어느 쪽도 분명한 정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성립한다. 이 자료에서 이야기 할 ‘부르카 착용은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는 비록 우리 사회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지만, 몇 해전 부터 유럽 사회에서 큰 이슈로 등장을 했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활발하고 예리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과 함께 이 런 문제에 대한 논쟁문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하버드 모형은 토론의 수행 방법이나 수업 진행법, 학생의 역할 및 발언 순서, 시간등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하버드 모형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을 제시한다. 그래서 본 자료에서는 하버드 모형의 문제 해결 방법 (용어와 개념의 정의 - 사실의 경험적 증명 - 가치판단)에 CEDA를 대표적으로 하는 쟁점 토론 모형을 접목시킨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 2. 논쟁문제 수업모형에 대한 이론적 기초6)

가. 논쟁문제 수업 모형의 개념과 의의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그 결정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데 그치지 않

5) 김창환 외(2013),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사회』, 좋은책 신사고

6) 차경수모경환(2009), 『사회과 교육』, 동문사

설규주(2001), 『사회과 논쟁문제 학습』, 시민교육연구 제 33집

구정화(1998),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27집

고 사회의 다수에 관련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논쟁문제(controversial issue) 혹은 공공문제(public issue)라고 한다. 특히 사회과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생생한 사회 현상을 다루는 교과 특성상 이러한 문제들을 수업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논쟁문제 수업 모형의 선행연구

논쟁문제에 관한 교수는 문자 그대로 사회의 공공문제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이 전개되는 민주주의 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하의 물론 행방 후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계속 설립된 까닭에 경직도니 정치 사회적 풍토 때문에 논쟁 문제가 학교에서 거의 제기되지 못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에서는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사회과의 논쟁문제교수가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했다. 1936년 미국의 Education지(誌)에 Hatch가 “교실에서의 논쟁문제”를 출판한 이래 이 문제가 해마다 논의되었다.

그 후로도 이 문제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66년에는 유명한 E.W. Oliver와 J.P.Shaver의 공동저작인 “고등학교에서의 공공문제의 교수”(Teaching Public Issue in the High School)를 발표하여 교실에서 이 문제를 교수하는 모형을 체계화 시켰다. 저자들은 1956년부터 1961년까지 5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추진한 연구의 결과를 보고서로 출판하였다. 그들은 사회과의 영역에서 논쟁문제를 추출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것을 세학교에서 실험적으로 교수하였으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였는데, 그들의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이 논쟁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입장을 취하고, 그 입장을 정당화 하는 지적 분석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 다. 하버드 모형의 해결방법과 그 응용

### 1) 정의와 개념의 명확화

논쟁점을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논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 개념, 용어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입 평준화 정책을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논쟁 문제 수업을 진행한다면, ‘고입’과 ‘평준화’ 등의 의미가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차경수는 이 때 순환적인 서술의 오류를 피해야 한다고 했지만, 피해야 할 것은 그것 뿐이 아니다. 우선 오개념과 상투개념을 피해야 한다. 오개념(misconcept)은 개념의 속성을 잘못 이해한 경우이고, 상투개념(stereotype)은 비결정적 속성을 결정적인 속성으로 잘못 생각하고 개념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대입 수시전형을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서 수시 전형을 ‘수능으로 전국적인 석차를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면 이는 수시전형의 정의를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개념이며, 수시 전형은 ‘공부 못하는 학생이 스펙 쌓기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상투 개념’이다.

개념과 용어를 분명히 하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연구 성과 및 사전적 의미를 재활용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당사자들끼리의 약속을 통해 새롭게 만들고 그 약속에 따라 규정된 의미를 사용할 수도 있다.

## 2) 사실의 확인과 경험적 증명

차경수는 논쟁문제의 쟁점을 분명히 할 때에는 경험적 증거를 이용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매우 유용하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① 문제제기, ② 가설 설정, ③ 자료 수집, ④ 분석, ⑤ 결론의 과정을 거치는 사회탐구의 절차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여기에 귀납법적 방법론과 연역법적 방법론의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귀납법적 방법론과 연역법적 방법론은 위에 제시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단계를 달리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아직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사회 탐구 절차는 어렵고 생소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단순한 모형으로 제시한 것이 귀납법적 방법과 연역법적 방법이다. 물론 귀납법과 연역법은 단순한 논리적 방법이 아니나, 이를 극히 단순화 시켜 ‘많은 사례를 통해 사실을 증명하는’ 귀납법적 방법과 ‘이미 알려진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연역법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의 확인과 경험적 증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우선 증명하려는 자료가 객관적이고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귀납적 방법의 경우에는 소위 비형식적인 오류를 피해야 하며, 연역적 방법의 경우에는 형식적 오류를 피해야 한다. ‘비형식적인 오류’에는 십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흑백논리의 오류’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 하다.

또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서 역사적 자료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형이 보존되고 있는가와 관계되는 ‘순서성(혹은 완전성)’의 문제와 함께 자료 자체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 3) 가치 갈등의 해결

마지막으로 가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갈등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적 가치이다. 권력분립, 기본권, 다수결, 시민의 정치 참여 등의 민주 사회에서 더욱 발전되고 옹호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가치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가치보다는 추상적 가치, 특수한 가치보다는 보편적 가치, 개인적 가치 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가치간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라. 하버드 모형을 변형한 논쟁문제 수업 모형

|   | 절차                                | 내용                                                                                                             | 시간        |
|---|-----------------------------------|----------------------------------------------------------------------------------------------------------------|-----------|
| 1 |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br>(정의와 개념의 명확화) |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정의,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하는 입론을 발표한다.                                                         | 1분<br>30초 |
| 2 |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는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듣고,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가 밝힌 정의, 개념, 용어에 대한 의문점이나 오류 등을 질의하고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와 반론-재반론을 한다. | 1분<br>30초 |

|    | 절차                                | 내용                                                                                                             | 시간     |
|----|-----------------------------------|----------------------------------------------------------------------------------------------------------------|--------|
| 3  |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정의와 개념의 명확화)    |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정의,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하는 입론을 발표한다.                                                         | 1분 30초 |
| 4  |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는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듣고,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가 밝힌 정의, 개념, 용어에 대한 의문점이나 오류 등을 질의하고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와 반론-재반론을 한다. | 1분 30초 |
| 5  |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의 입론 (사실의 확인과 경험적 증명) |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사실의 확인과 경험적 증명에 대한 입론을 발표한다.                                                         | 1분 30초 |
| 6  | 반대측 네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반대측 네 번째 토론자는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듣고,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가 밝힌 사실의 확인과 경험적 증명에 오류가 없는 지 밝히고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와 반론-재반론을 한다.    | 1분 30초 |
| 7  |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의 입론 (사실의 확인과 경험적 증명) |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사실의 확인과 경험적 증명에 대한 입론을 발표한다.                                                         | 1분 30초 |
| 8  | 찬성측 네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찬성측 네 번째 토론자는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듣고,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가 밝힌 사실의 확인과 경험적 증명에 오류가 없는지 밝히고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와 반론-재반론을 한다.     | 1분 30초 |
| 9  |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가치 판단)          |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에 대한 입론을 발표한다.                                                                  | 1분 30초 |
| 10 |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는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듣고,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가 밝힌 가치 판단이 옳은지 그렇지 밝히고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와 반론 - 재반론을 한다.            | 1분 30초 |
| 11 |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가치 판단)          |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에 대한 입론을 발표한다.                                                                  | 1분 30초 |
| 12 |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는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듣고,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가 밝힌 가치 판단이 옳은지 그렇지 밝히고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와 반론 - 재반론을 한다.            | 1분 30초 |
| 13 | 자유토론 (찬성→반대)                      | 찬성측에서 반대측으로 자유롭게 2분간 주제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 1분 30초 |
| 14 | 자유토론 (반대→찬성)                      | 반대측에서 찬성측으로 자유롭게 2분간 주제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 1분 30초 |

|    | 절차               | 내용                                                                  | 시간        |
|----|------------------|---------------------------------------------------------------------|-----------|
| 15 |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의 반박 |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는 찬성측의 세 번의 입론과 자유토론 중에 밝히지 못한 반대측의 논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반박한다. | 1분<br>30초 |
| 16 |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의 반박 |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는 찬성측의 세 번의 입론과 자유토론 중에 밝히지 못한 반대측의 논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반박한다. | 1분<br>30초 |
| 17 | 반대측 네 번째 토론자의 결론 | 반대측 네 번째 토론자는 주제에 대한 반대측의 입장에 대해 최종 변론을 한다.                         | 1분<br>30초 |
| 18 | 찬성측 네 번째 토론자의 결론 | 찬성측 네 번째 토론자는 주제에 대한 찬성측의 입장에 대해 최종 변론을 한다.                         | 1분<br>30초 |

## II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

### 1. 성취기준

| 교육과정 내용                                                              | 성취기준                                                          | 성취수준 |                                                                        |
|----------------------------------------------------------------------|---------------------------------------------------------------|------|------------------------------------------------------------------------|
| 사92022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진다. | 사92022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 상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를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                                                               | 중    |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를 비교 분석하고,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를 제시할 수 있다.                   |
|                                                                      |                                                               | 하    |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를 말할 수 있다.                                            |

### 2. 학습목표

- 가.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
- 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Ⅲ 수업 환경 조성

#### 1. 수업을 위한 안내

1학기 초 학생들에게 한달간 하버드 모형, 쟁점 토론에 대한 이론적 설명, 토론하는 방법, 수행평가 진행 절차 등을 설명했다. 그 후 학생들에게 1학기 수행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 가. 토론역할

| 지위  | 역할                                                        | 인원 | 배점   |
|-----|-----------------------------------------------------------|----|------|
| 사회자 | - 토론의 전반적 진행                                              | 1  | 4    |
| 토론자 | - 입론의 작성<br>- 토론의 참여                                      | 8  | 5~10 |
| 기록자 | - 토론 중 시간측정<br>- 토론 후 배심원 기록지 수합, 통계<br>- 승리팀 및 최고 토론자 발표 | 1  | 3    |
| 배심원 | - 토론의 경청<br>- 토론의 평가 및 최고 토론자 선정                          | 다수 | 2    |

##### 나. 사전작업

###### 1) 배역정하기

- 가) 반에 게시된 배역표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다.
- 나)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 다) 사회자와 기록자의 경우 희망인원이 초과하면, 균등 배분한다.
- 라) 토론자의 팀은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 2) 입론 작성(토론자)

- 가) 토론자 전원은 시작 전 입론을 이메일로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 나) 미제출시 토론 참여와 관계 없이 0점 처리

〈토론 배역표〉

| 일자    | 토론자1 | 토론자2 | 토론자3 | 토론자4 | 토론자5 | 토론자6 | 토론자7 | 토론자8 | 사회자 | 기록자 |
|-------|------|------|------|------|------|------|------|------|-----|-----|
| 4/7   |      |      |      |      |      |      |      |      |     |     |
| 4/14  |      |      |      |      |      |      |      |      |     |     |
| 4/21  |      |      |      |      |      |      |      |      |     |     |
| 5/12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토론하기

1) 수업 시작 전 다음과 같이 좌석을 배치한다.

| 칠판    |      |      |      |      |      |      |      |
|-------|------|------|------|------|------|------|------|
|       |      |      | 교탁   | 기록자  |      |      |      |
|       |      |      | 사회자  |      |      |      |      |
|       |      |      | 토론자1 |      |      |      | 토론자5 |
|       |      |      | 토론자2 |      |      |      | 토론자6 |
|       |      |      | 토론자3 |      |      |      | 토론자7 |
| 토론자4  | 토론자8 |      |      |      |      |      |      |
| 배심원1  | 배심원2 | 배심원3 | 배심원4 | 배심원5 | 배심원6 | 배심원7 |      |
| ..... |      |      |      |      |      |      |      |
|       |      |      |      |      |      |      |      |

2) 교사가 입실한 후, 교사는 배심원에게 토론 배심지 및 평가지를 배부한다.

| 배심원 평결지                          |  |  |  |  |  |  |  |  |     |
|----------------------------------|--|--|--|--|--|--|--|--|-----|
| 1학년 반 차 토론                       |  |  |  |  |  |  |  |  |     |
|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150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띄어쓰기 포함 150자 이상 기록할 것. 줄바꾸기 금지 |  |  |  |  |  |  |  |  |     |
| ○ 1학년 반 번 이름 :                   |  |  |  |  |  |  |  |  |     |
| ○ 고유번호 :                         |  |  |  |  |  |  |  |  |     |

| 배심원 판결지                             |     |     |
|-------------------------------------|-----|-----|
| 항 목                                 | 관성측 | 반대측 |
| • 1번 토론자의 개념과 용어는 정확히 정의 되었는가?      | 10  | 10  |
| • 2번 토론자에 대한 반박은 적절한가?              | 10  | 10  |
| • 2번 토론자의 가치 판단은 적절한가?              | 10  | 10  |
| • 1번 토론자에 대한 반박은 적절한가?              | 10  | 10  |
| • 3번 토론자의 사실 증명은 증거와 논리에 의해서 행해졌는가? | 10  | 10  |
| • 전체 반박은 적절한가?                      | 10  | 10  |
| • 4번 토론자의 결론은 적절한가?                 | 10  | 10  |
| • 3번 토론자에 대한 반박은 적절한가?              | 10  | 10  |
| 총점                                  | 40  | 40  |
| 최고 토론자                              |     |     |
| 고유번호                                |     |     |

- 3) 사회자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된다.
- 4) 토론 중 배심원들은 토론자들의 토론을 경청하며 채점한다. 채점 후 배심지의 반을 오려, 이름이 적힌 종이는 교사에게 나머지는 기록자에게 제출한다.
- 5) 고유번호는 채점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결지에는 개인정보를 적지 않고 본인 이 만든 고유번호만 적고 평결지에 개인정보와 고유번호를 함께 적는다. 토론이 끝나면 평결지는 교사가 판결지는 기록자가 취합한다.
- 6) 배심원들은 팀별 토론자 4명중 가장 토론을 잘한 1인을 ‘최고토론자’에 기록한다.
- 7) 기록자는 토론 중 토론자의 시간을 확인하여, ‘30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를 이야기 한다. 시간이 경과하면, 사회자는 토론자의 발언을 정지시킬 수 있다.
- 8) 기록자는 토론 후 배심원들의 토론지를 수합하여 승리한 팀과 최고토론자를 선정하여 교사에게 통보한다.

## IV 본 수업의 전개

### 1. 토론 논제

토론논제 : 부르카 착용은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논제 선정 이유】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은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를 각 문화의 개별성과 역사성에 맞추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각 문화권의 악습까지도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배척해야 하는지는 큰 논란거리다.

본 토론은 유럽에서 부르카 착용을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선정하였다.

## 2. 관련 기사

부르카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우파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부르카 등 이슬람식의 베일이 무슬림 여성들을 억압한다는 것과 얼굴과 몸을 가리고 다니는 이들로 인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부르카 금지법안의 제출을 주도한 오스카 프라이징거 의원은 “치안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요즘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털모자와 마스크, 부르카 등으로 얼굴을 감추고 다닌다”며 “이런 복장 때문에 신원을 식별하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폭력사건과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무슬림 여성들은 부르카 등을 착용할 자유를 빼앗는 법안이 자신들을 억압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부르카 착용 금지는 결국 반이슬람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안상 이유 역시 이슬람식 베일이 아닌 마스크나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상식에서 벗어난 일임을 감안할 때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이나통신은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과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벌금 부과에 대해 ‘프랑스의 이슬람 혐오증(islamophobia)’이라고 표현했다.

(출처 : 주간경향 945호, 2011년 11월 10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201110051136281>)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눈을 제외한 온몸을 가리는 베일인 부르카와 니캅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13일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일명 '부르카 금지법'인 이 법을 위반한 여성에게는 150유로(약 23만원), 착용을 강요한 남성에게는 1년의 징역형과 3만유로(약 4,5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찬성 335,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9월 상원 통과도 확실시된다. 그러나 야당인 사회당 의원들은 모든 공공장소가 아닌 정부관련 건물, 교통시설, 병원 등 특정장소로 국한할 것을 주장하며 투표를 거부해 향후 논쟁이 거셀 전망이다. 현지 방송사 프랑스24는 이 법안이 세속주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봄 여론조사 때 프랑스인 82%가 부르카 금지에 찬성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우파 정부는 "부르카를 여성 굴종의 상징물"이라며, 인권과 평등을 강조해온 프랑스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전체 착용자가 1,900명에 불과한데 굳이 법으로 막는 것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의 표출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유럽 최대 이슬람 인구국으로, 이슬람 신자가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500만~600만명 정도로 불어났다.

(출처 : 한국일보, 2010년 7월 14일)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007/h2010071416154722530.htm>)

### 3. 학습과정안

| 과정  | 학습 내용            | 교수-학습 활동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사활동                                                                                                                                                                                                                                                                                                                                                                                                                                                                                                                                                                                                                                                                                                                                                                                                                                                                                                                                                                                                                                                                                                                                                                                                                                                                                                                                                                                                                                                                                                                                                                                                                                                                                                                                                                                      | 학생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석을 점검하고, 학습환경을 정비한다.</li> <li>전시학습의 내용을 확인한다.</li> <li>학습 목표를 제시한다.</li> <li>모두 학습목표를 함께 읽는다.</li> </ul>                                                                                                                                                                                                                                                                                                                                                                                                                                                                                                                                                                                                                                                                                                                                                                                                                                                                                                                                                                                                                                                                                                                                                                                                                                                                                                                                                                                                                                                                                                                                                                                                                                          |                                                       | 5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개1 | 흥미유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에 관한 설명</li> <li>교사 : 네, 그렇죠</li> <li>뉴스 시청 :</li> <li><a href="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1825780">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1825780</a> 등 ‘부르카 금지’에 관한 뉴스 동영상을 시청한다.</li> </ul>                                                                                                                                                                                                                                                                                                                                                                                                                                                                                                                                                                                                                                                                                                                                                                                                                                                                                                                                                                                                                                                                                                                                                                                                                                                                                                                                                                                                                                                                                                                       |                                                       | 5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개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은 기편성된 4:4 팀 토론을 진행한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부르카 착용은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절차</th> <th>내용 (시간 각 1분 30초)</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td> <td>정의와 개념의 명확화*</td> </tr> <tr> <td>2</td> <td>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td> <td></td> </tr> <tr> <td>3</td> <td>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td> <td>정의와 개념의 명확화</td> </tr> <tr> <td>4</td> <td>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td> <td></td> </tr> <tr> <td>5</td> <td>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의 입론</td> <td>사실 확인과 경험적 증명**</td> </tr> <tr> <td>6</td> <td>반대측 네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td> <td></td> </tr> <tr> <td>7</td> <td>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의 입론</td> <td>사실 확인과 경험적 증명</td> </tr> <tr> <td>8</td> <td>찬성측 네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td> <td></td> </tr> <tr> <td>9</td> <td>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br/>- 출석 번호를 부르는 것이 인권 침해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td> <td>가치 판단***</td> </tr> <tr> <td>10</td> <td>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td> <td></td> </tr> <tr> <td>11</td> <td>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td> <td>가치 판단</td> </tr> <tr> <td>12</td> <td>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td> <td></td> </tr> <tr> <td>13</td> <td>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의 반박</td> <td></td> </tr> <tr> <td>14</td> <td>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의 반박</td> <td></td> </tr> <tr> <td>15</td> <td>반대측 네 번째 토론자의 결론</td> <td></td> </tr> <tr> <td>16</td> <td>찬성측 네 번째 토론자의 결론</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와 개념의 명확화 : 논쟁점을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논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 개념, 용어 등을 명확하게 한다.</li> <li>사실 확인과 경험적 증명 : 주장하는 내용을 경험적 증거를 이용하여 증명한다. 문제제기 - 가설설정 - 자료수집 - 분석 - 결론 등의 과정을 거친다.</li> <li>가치 판단 : 서로 다른 가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헌법 및 사회·윤리적 가치 기준에 의해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다.</li> </ul> |                                                       |                  | 절차 | 내용 (시간 각 1분 30초) | 1 |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 정의와 개념의 명확화* | 2 |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 3 |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 정의와 개념의 명확화 | 4 |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 5 |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의 입론 | 사실 확인과 경험적 증명** | 6 | 반대측 네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 7 |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의 입론 | 사실 확인과 경험적 증명 | 8 | 찬성측 네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 9 |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br>- 출석 번호를 부르는 것이 인권 침해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 | 가치 판단*** | 10 |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 11 |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 가치 판단 | 12 |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 13 |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의 반박 |  | 14 |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의 반박 |  | 15 | 반대측 네 번째 토론자의 결론 |  | 16 | 찬성측 네 번째 토론자의 결론 |  | 30분 |
|     |                  |                                                                                                                                                                                                                                                                                                                                                                                                                                                                                                                                                                                                                                                                                                                                                                                                                                                                                                                                                                                                                                                                                                                                                                                                                                                                                                                                                                                                                                                                                                                                                                                                                                                                                                                                                                                           | 절차                                                    | 내용 (시간 각 1분 30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 정의와 개념의 명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 정의와 개념의 명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의 입론                                      | 사실 확인과 경험적 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반대측 네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의 입론                                      | 사실 확인과 경험적 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찬성측 네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br>- 출석 번호를 부르는 것이 인권 침해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 | 가치 판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 가치 판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의 반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의 반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반대측 네 번째 토론자의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찬성측 네 번째 토론자의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말  | 차시학습 예고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시학습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의무</li> </ul> </li> <li>과제를 부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조사해오기</li> </ul> </li> </ul>                                                                                                                                                                                                                                                                                                                                                                                                                                                                                                                                                                                                                                                                                                                                                                                                                                                                                                                                                                                                                                                                                                                                                                                                                                                                                                                                                                                                                                                                                                                 |                                                       | 5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시나리오

## 교사가 입실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교사** : 여러분 안녕하세요.
- ☞ **학생들** : 안녕하세요.
- **교사** : 우리 지난시간에 무슨 내용을 공부했지요?
- ☞ **학생들** : 문화상대주의요.
- **교사** :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문화상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등이 있죠. 이중에 바람직하지 못한 관점은 무엇이라고 했죠?
- ☞ **학생들** :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사대주의요.
- **교사** : 그렇죠. 문화상대주의 관점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나, 이슬람의 명예살인 같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 **교사** : 오늘의 토론 주제는 ‘부르카 착용은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부르카가 뭐죠?
- ☞ **학생들** : 이슬람에서 여성들이 입는 옷이요.
- **교사** : 네! 그렇죠. 부르카는 주로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슬람에서 여성들이 입는 옷은 부르카, 히잡, 차도르, 니캅 등이 있는데, 특히 부르카는 머리부터 발 끝까지 전신을 감싸는 옷으로 유명하죠. 2011년부터 프랑스와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 합니다. 그리고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학도 생겨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해 볼까요?  
(영상시청)
- **교사** : 자! 그럼 이제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학생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사회자학생** :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의 사회를 맡은 1학년 2반 15번 000입니다. 이번 토론 논제는 ‘부르카 착용은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찬성측과 반대측의 간단한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 ☞ **찬성측1** : 안녕하십니까!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 3번 000입니다.  
(이후 부정측 네 번째 토론자까지 간단한 자기소개)
- **사회자** : 그럼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가 ‘부르카 착용을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념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 입론을 발표하겠습니다.
- ☞ **찬성측1** : (예시) 저는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이 문화 상대주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르카는 지구 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성의 의복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는 한복에 있고, 일본에는 기모노가 있으며, 베트남에는 아오자이라는 옷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서구적 관점으로 문명화되어 있지 않은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에게도 남성과 여성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슬람 여성들의 부르카는 단지 이슬람 이라는 문화권에서 여성들을 위해 최적화된 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를 바라볼 때 문화상대주의라는 관점은 각 사회의 맥락에서 제도, 행위, 가치, 규범

등을 이해하는 태도라고 볼 때 부르카를 문화상대주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지양 해야 할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명예살인이나, 아파르트헤이트, 타종교 유적파괴 같은 것 등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없애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슬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슬람 사회와 제도의 문제이지 결코 옷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슬람의 부르카를 당연히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측1 : (예시) 저는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이 문화 상대주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르카는 지구 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성의 의복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는 한복에 있고, 일본에는 기모노가 있으며, 베트남에는 아오자이라는 옷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서구적 관점으로 문명화되어 있지 않은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에게도 남성과 여성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슬람 여성들의 부르카는 단지 이슬람이라는 문화권에서 여성들을 위해 최적화된 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를 바라볼 때 문화상대주의라는 관점은 각 사회의 맥락에서 제도, 행위, 가치, 규범 등을 이해하는 태도라고 볼 때 부르카를 문화상대주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지양 해야 할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명예살인이나, 아파르트헤이트, 타종교 유적파괴 같은 것 등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없애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슬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슬람 사회와 제도의 문제이지 결코 옷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슬람의 부르카를 당연히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가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에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 **반대측2** : (예시)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께서는 한국의 한복, 중국의 치파오와 이슬람의 부르카가 모두 같은 여성의 의상일 뿐이라는 말씀이신지요?
- ☞ **찬성측1** : 여성 의상의 한 종류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 ☞ **반대측 학생2** : 그런데 한국의 한복이나, 베트남의 아오자이 같은 옷은 여성들의 시선을 가릴 정도로 여성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전통 여성 의상에 비해 이슬람의 부르카는 여성을 차별하는 의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 **찬성측1** : 얼굴을 가려서 시선을 방해한다고 해서 여성을 차별한다는 의견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수영장에서 남성용 수영복에 비해 여성용 수영복이 몸을 훨씬 더 많이 가리지만 우리는 여성용 수영복이 남성용 수영복에 비해 여성 차별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 ☞ **반대측2** : 너무 극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 ☞ **기록자** : 시간 다 되었습니다.
- **사회자**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개념과 용어의 정리에 의한 입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반대측1** : (예시) 문화상대주의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볼 때 일방적인 기준으로 역사를 평가해서를 안되는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계의 모든 문화를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상대주의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위반 해서는 안되며, 이를 용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여성들의 부르카는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까요? 부르

## 이슬람 여성의 전통복장 종류



**히잡** : 얼굴은 드러내고 머리만 가리는 스카프



**니갑** : 눈 주위를 제외한 머리 전체를 감쌈



**부르카** : 전신을 두르고 눈 부위도 망사로 가림



**차도르** : 얼굴만 드러내고 전신을 가림

<http://durl.me/vv7yc>

국민일보 2010.4.22

카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의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으로 가리고 심지어는 눈까지도 망사로 가리는 형태입니다. 지금 제시한 사진은 국민일보 2010년 4월 22일의 사진 기사입니다. 이슬람의 전통 복장은 히잡, 니갑, 부르카, 차도르 등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자연적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더라도 부르카처럼 전신을 가리고, 눈부위도 망사로 가리는 것은 명백히 여성 차별적인 의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성의 한복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로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더욱 보전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여성이 집 밖을 출입할 때 입던 쓰개치마는 분명 여성차별적인 의상일 것입니다. 만약 세계 각국 여성들이 전통의상을 뽐내는 경연대회나 국제 미인대회에 한국 대표가 쓰개치마를 입고 얼굴을 모두 가린채 등장한다면, 사람들이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아름답다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여성차별적 의상에 대해 비난을 할까요? 이슬람 여성

의 부르카는 분명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의상입니다. 모든 문화가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 인종, 종교에 의한 차별적 제도와 문화는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에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 **찬성측2** : (예시)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이슬람의 부르카가 여성차별적인 의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 **반대측1** : 예 맞습니다.
- ☞ **찬성측2** : 그렇다면 토론자께서는 방금 자료로 제시하신 히잡이나 차도르 등도 여성 차별적인 의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반대측1** : 히잡이나 차도르 등도 여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찬성측2** : 인도같은 힌두교 문화에서 남성은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다녀야 합니다. 반대측 토론자와 같은 논리라면 힌두교 남성의 터번은 남성차별적인 요소 입니까?
- ☞ **반대측1** : 남성차별적인 요소라는 용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닌 듯 합니다. 이슬람, 인도 등은 명백히 남성 우위의 사회입니다. 남성우위의 사회에서 여성보다 특정한 의상을 더 착용한다고 해서 남성 차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 **찬성측2** : 물론 남성에게 터번을 덧입으라고 해서, 남성차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여성에게 히잡이나 차도르, 부르카를 입으라고 해서 여성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 **기록자** : 시간 다 되었습니다.
- **사회자** : 양측의 날카로운 공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의 사실의 확인

의 경험적 증명에 의한 입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찬성측3** : (예시) 이슬람 문화권은 건조 문화권에 속해있습니다. 건조 지역은 매우 더운 지역 이기는 하지만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조한 지역에서 옷의 중요한 기능은 몸의 수분 유출을 밖으로 막고, 태양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옷의 기능으로 볼 때 이슬람 문화권 등 건조 문화권의 의복은 모두가 얼굴부터 몸전체를 가리는 옷을 입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성역시 터번이나 캐피아 같이 머리를 가리는 복장을 착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얼굴을 가리는 방식의 옷차림은 단순히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 혹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라기 보다 건조지역 고유의 자연 환경이 역사적 상황 등과 맞물려 형성된 것입니다. 만약 이슬람이 열대 우림의 매우 습하고 더운 지역이어서 남성들은 가장 기초적인 의복만 착용하고 여성에게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감싸는 의복을 입힌다면, 여성 차별적인 의상이지만 이슬람 여성의 의상은 이슬람 남성의 그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르카를 포함한 이슬람 여성의 의상은 차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 네 번째 토론자께서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에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 **반대측4** : (예시)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께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몸을 많이 가리는 것이 이슬람 전통 복장의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남성의 복장도 얼굴을 가립니까?
- ☞ **찬성측3** : 물론 남성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몸을 최대한 많이 가려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남성들도 여성 못지 않게 많은 부분을 가립니다.
- ☞ **반대측4** : 여성 남성보다 많은 부분을 가린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 ☞ **찬성측3** : 문제의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인 듯 합니다. 많은 부분을 가렸느냐 안가렸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반대측4** : 그렇다면 여성 차별이 아니라면, 왜 여성은 얼굴을 가리고, 남성은 가리지 않습니까?
- ☞ **찬성측3** : 얼굴을 가렸느냐 안가렸느냐가 차별의 기준이 된다면, 먼지가 많은날 여성에게만 마스크를 쓰게 하면 이 것도 차별이 되는 것입니까?
- ☞ **반대측4** : 그것은 여성들이 원해서,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 **찬성측3** : 이슬람 여성들도 부르카 착용을 원하고, 이슬람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르카를 입는 것이라면 이것도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같은 논리 아닐까요?
- ☞ **기록자** : 시간 다 되었습니다.
- **사회자** : 양측의 날카로운 토론 잘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사실 확인과 경험적 증명 측면에서 입론을 발표 하겠습니다.
- ☞ **반대측 3** : (예시) 이슬람 여성이 착용하는 부르카는 명백한 여성 인권의 침해입니다. 여성의 인권 침해는 지구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인도에서는 과도한 지참금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여성 할례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역시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침해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문화권에서의 여성 인권 침해는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도의 지참금 문제 역시 쓸모없는 여성을 거두어 주는 남성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할레 역시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부르카는 그러한 형태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부르카는 소위 남성의 소유인 여성의 얼굴을 다른 남성과 공유할 수 없다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 의해 탄생한 의복입니다. 자신의 소유인 여성의 얼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하는 야만적이고, 저속한 악습입니다. 부르카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측 네 번째 토론자께서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에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찬성측4** : (예시) 반대측 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아프리카의 여성 할레와 이슬람의 부르카가 같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반대측3** : 행위 자체는 다르지만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 **찬성측4** : 아프리카의 할레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와 여성에게 단지 서구적 관점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옷을 입힌 것이 같은 행위입니까?
- ☞ **반대측3** : 물론 아프리카의 여성 할레는 명백히 인류의 보편 지향적 가치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부르카는 이보다도 심하게 여성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 인권이 덜 침해 되었다거나, 혹은 침해가 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 ☞ **찬성측4** : 아프리카의 할레와 부르카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 **반대측3** : 하지만 모두 인권을 침해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 **기록자** : 시간이 지났습니다.
- **사회자** : 토론이 점 점 격렬해지고 뜨거워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부르카 착용은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가치 판단의 입장에서 입론을 발표 하겠습니까?
- ☞ **찬성측2** : 안녕하십니까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 000입니다. (생략)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에게 질의와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 **반대측1** :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생략)
- ☞ **찬성측2** : (답변) (생략)
- **사회자** :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잘 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가치 판단의 입장에서 입론을 발표하겠습니다.
- ☞ **반대측2** :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000입니다. (생략) 이상입니다.
- ☞ **찬성측1** :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생략)
- ☞ **반대측2** : (답변) (생략)
- **사회자** :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잘 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와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간의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와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간의 질의-응답 잘 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찬성측에서 반대측으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1분 30초 동안 진행

하겠습니다. 찬성측은 누구나 자유롭게 반대측에게 질문할 수 있고, 반대측 역시 답변할 수 있는 누구나 답변 가능합니다.

- ☞ 찬성측3 : 반대측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략)
- ☞ 반대측1 : 답변하겠습니다. (생략)• **사회자** : 이제 반대로 반대측에서 찬성측으로 1분 30초간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 반대측4 : 찬성측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략)
- ☞ 찬성측3 : 답변하겠습니다. (생략)
- ☞ 반대측3 :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 000입니다. 아까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발언 중(생략)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이제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의 반박이 있겠습니다. 반박을 질의-응답이 아닌 반대측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 하는 시간입니다.
- ☞ 찬성측3 :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 000입니다. 반대측 논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겠습니다.(생략) 이상입니다.• **사회자** : 이제 찬성측 세 번째 토론자의 반박이 있겠습니다.
- **사회자** :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찬성측에서 반대측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측 네 번째 토론자 결론 발표해 주십시오.
- ☞ 찬성측4 : 찬성측 네 번째 토론자 000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 이상입니다.
- ☞ 반대측4 : 찬성측 네 번째 토론자 000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 이상입니다.
- **사회자** : 이제 마지막으로 반대측 네 번째 토론자의 결론을 들어보겠습니다.
- **사회자** :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찬성측1 : 이번 토론을 통해서...(생략)
- **선생님** : 토론자, 사회자, 기록자 모두 수고 했습니다. 배심원은 배심지를 기록자에게 판결지를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토론 참가자들은 토론에 임했던 소감을 간단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할 수 있다.)
- **선생님** : 토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은 찬성(반대)측이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최고토론자는 찬성측의 세 번째 000토론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00000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 기록자 집계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학년 반 차 토론 기록자 집계표</li> <li>• 주 제 :</li> <li>• 일 시 :</li> <li>• 사회자 : 기록자 :</li> </ul> |    |      |    |
|---------------------------------------------------------------------------------------------------------------------------------|----|------|----|
| 토론자                                                                                                                             | 점수 | 토론자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팀 점수                                                                                                                            |    | 팀 점수 |    |



## 배심원판결지

| 항 목                                                                                                              | 찬성측 | 반대측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번 토론자의 개념과 용어는 정확히 정의 되었는가?</li> <li>• 2번 토론자에 대한 반박은 적절한가?</li> </ul> | 10  | 1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번 토론자의 가치 판단은 적절한가?</li> <li>• 1번 토론자에 대한 반박은 적절한가?</li> </ul>         | 10  | 1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번 토론자의 사실 증명은 증거와 논리에 의해서 행해졌는가?</li> <li>• 전체 반박은 적절한가?</li> </ul>    | 10  | 1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번 토론자의 결론은 적절한가?</li> <li>• 3번 토론자에 대한 반박은 적절한가?</li> </ul>            | 10  | 10  |
| 총 점                                                                                                              | 40  | 40  |
| 최고 토론자                                                                                                           |     |     |
| 고유번호                                                                                                             |     |     |

## V 다른 단원 적용 사례

| 교과서 단원            | 기타 토론 주제                                                                                                                                                                                                                                 |
|-------------------|------------------------------------------------------------------------------------------------------------------------------------------------------------------------------------------------------------------------------------------|
| I. 내가 사는 세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이 135°E 인 것은 적절하다.</li> <li>• 찬성측 : 135°E 표준시에 시간단위로 떨어지며,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니 유지해야 한다.</li> <li>• 반대측 : 135°E 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을 지나가서 변경해야 한다.</li> </ul>                                      |
| II.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에 거주가 유리한 지역을 늘리기 위한 개발을 해야 한다.</li> <li>• 찬성측 : 거주가 유리한 지역을 늘리기 위해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li> <li>• 반대측 : 계속되는 개발은 환경 파괴만을 가져온다.</li> </ul>                                                           |
| III. 극한지역에서의 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대 지방의 커피에는 공정한 가격이 지불되어야 한다.</li> <li>• 찬성측 : 현재의 커피 원가는 원주민들의 착취의 대가이다.</li> <li>• 반대측 : 공정한 커피가격은 결국 커피값의 인상을 가져와 커피의 수요량을 감소하여, 원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li> </ul>                                 |
| IV.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은 해당 지역 환경을 파괴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li> <li>• 찬성측 : 관광상품의 개발로 인해 많은 지역의 환경이 파괴된다.</li> <li>• 반대측 : 관광상품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부가 창출되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자본이 생긴다.</li> </ul>                                          |
| V. 자연 재해와 인간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오염 방지 기금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li> <li>• 찬성측 : 환경오염 방지 기금은 미래 인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li> <li>• 반대측 : 환경오염은 과거에 선진국이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부담해야 한다.</li> </ul>              |
| VI. 인구변화와 인구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도상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정당하다.</li> <li>• 찬성측 :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출산율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li> <li>• 반대측 : 산아제한 정책은 인간의 자기 선택권을 제약하는 인권침해이다.</li> </ul>                                        |
| VII. 도시발달과 도시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지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확대되어야 한다.</li> <li>• 찬성측 : 도심의 교통 체증과 대기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확대되어야 한다.</li> <li>• 반대측 : 도심 차량 출입 제한 조치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부유한 사람들의 차량만 도심에 진입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li> </ul>   |
| VIII. 개인과 사회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스타의 팬덤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li> <li>• 찬성측 : 대중 스타는 대중문화의 산물로,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아를 형성한다.</li> <li>• 반대측 : 청소년은 팬덤 현상을 통해 문화의 단순 수용자에서 참여하고 생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li> </ul>                     |
| IX. 문화의 이해와 창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초기의 사대외교를 문화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li> <li>• 찬성측 : 조선 초기의 사대주의는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문화 사대주의의 전형적인 예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다.</li> <li>• 반대측 : 조선 초기의 사대주의 강대국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약소국 조선의 현실적인 외교 노선이다.</li> </ul> |

| 교과서 단원            | 기타 토론 주제                                                                                                                                                                                                                       |
|-------------------|--------------------------------------------------------------------------------------------------------------------------------------------------------------------------------------------------------------------------------|
| X. 사회의 변동과정       | <p>◎ 통일 한반도 국호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성측 :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법통을 계승했으므로,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li> <li>• 반대측 :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일이 되면 새로운 국호를 사용해야 한다.</li> </ul>                         |
| XI.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 <p>◎ 대한민국 새로운 헌법에서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중심제 : 업무의 추진력과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해야 한다.</li> <li>• 의원 내각제 : 국민의 요구와 의사에 민감한 의원 개각제로 개헌해야 한다.</li> </ul>           |
| XII.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 <p>◎ 주민의사에 어긋나는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를 소환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성측 :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해 주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를 교체해야 한다.</li> <li>• 반대측 : 선출된 공직자가 위법이나 탈법,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의 사실이 없다면, 주어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li> </ul> |
| X III. 경제생활의 이해   | <p>◎ 의료는 공공재인가 사적재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재 : 의료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재이다.</li> <li>• 사적재 : 의료는 개인의 요구와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 되어야 하는 사적재이다.</li> </ul>                              |
| X IV. 시장경제의 이해    | <p>◎ 정부의 물가관리는 필요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성측 : 물가는 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li> <li>• 반대측 :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의 실효성이 없다.</li> </ul>                                   |



## Ⅶ. 역사적 쟁점을 활용한 패널 토론 수업



- Ⅰ. 본 수업의 주안점
- Ⅱ.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
- Ⅲ. 수업 준비
- Ⅳ. 수업 진행
- Ⅴ. 수업 정리 및 평가
- Ⅵ. 다른 단원 적용 사례
- Ⅶ. 활동지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인류의 삶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과거와 관련지어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삶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며 안목을 키우는 과목이다.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토의토론 능력을 신장해야 한다.

더불어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상호 관련성을 살펴 그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문제상황을 비판, 분석할 수 있도록 패널토론 모형을 적용하였다.



## VII. 역사적 쟁점을 활용한 패널 토론 수업

### I 본 수업의 주안점

#### 1. 연계 단원과 설정 이유

가. 연계 단원 : VI. 조선의 성립과 발전 04. 국제관계의 변화와 외세 침략의 극복

나. 소집단 찬반 패널토론 설정 이유

소집단 찬반 패널토론은 학생들로 하여금 토론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을 통해 특정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체득하고 엄격한 토론형식 및 절차를 익힘으로써,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형식을 일컫는다. 소집단 찬반 패널토론은 소집단 찬반 토론과 패널토론을 결합시킨 모형이다. 소집단 찬반토론은 5~6명을 구성원으로 소집단을 6개 만들어 소집단별로 토론 절차에 따라 찬반토론을 마친 후, 소집단 대표들이 모여 패널 토론을 벌이는 것이다. 패널토론에서는 배심원들이 질문을 하고 패널 측이 답변을 하는 기회를 가진다.

첫째, 학급 구성원들 전부에게 ‘처음 쓰기’라는 과제를 나누어준다.(찬성과 반대 입장은 추첨을 통해 찬반을 구분한다.)

둘째, 토론 시간과 순서가 미리 짜여 있다.

셋째, 무승부가 없으며 반드시 승패를 나눈다. 무승부일 때는 반대 측이 잘한 것으로 판정한다.

##### 1) 소집단 찬반 토론 단계(3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

- 입론 2분 : (찬성팀⇒반대팀 각 1분씩), 작전타임 1분
- 반론평기 2분 : (반대팀⇒찬성팀 각 1분씩)
- 반론킨기(재반론) 6분 : (반대팀⇒찬성팀 각 3분씩), 작전타임 1분
- 최종발언 2분 : (반대팀⇒찬성팀 각 2분씩) <총 14분>

※ 반론 펴기는 각 팀이 1분씩 사용하되, 상대입론에 대한 반론만을 진행한다.

반론 켜기는 각 팀이 3분씩을 사용하되,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으며, 한 팀이 상대 팀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질문을 하여야 한다.

## 2) 패널 토론

사회자의 역할은 토론 시간과 순서가 미리 짜여 있어서 다만 다음 순서를 고지하는 진행자의 역할에 머문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심없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토론자는 입론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고, 반박을 통해 상대방 논리를 꼼꼼히 듣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자기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이나 순발력 같은 창의적인 능력이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패널 토론은 좀 더 세분화하여 배심원의 질의 과정을 포함시켜 진행한다.

## 2. 핵심 개념

### ● 브레인라이팅(Brain writing)

독일의 홀리거(Holiger)가 개발한 635법(6명이 둘러앉아 3개 아이디어를 5분 내에 기입하고 옆으로 돌리는 방법)을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바텔연구소에서 개량한 기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의 변형된 형태로 '침묵의 브레인스토밍'이라고도 한다.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종이(또는 post-it)에 직접 기록하여 제출하고, 수집된 카드를 게시판(A4용지)에 부착하여 아이디어를 교환, 검토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집단 발상 기법이다.

모든 여건이 똑같은 경우, 브레인라이팅 그룹이 브레인스토밍 그룹에 비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말로써 일을 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비생산적이 될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경우는 그룹 구성원 각자는 돌아가면서 한 번에 하나의 의견밖에 말하지 못하게 되지만, 브레인라이팅을 할 경우는 시간에 대한 제약 없이 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 액션러닝(Action learning)

액션러닝은 1954년 영국의 Revans가 국가석탄위원회 초대 교육훈련 담당관으로서 광부들을 대상으로 집단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30%이상의 생산성 효과를 가져 온 이후 시작되었다. Revans는 병원, 정부 부처,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액션러닝의 개념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전파하였다. 액션러닝은 1970년대 중반 이후 GE사가 도입하여 큰 성과를 보여주었다. 액션러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개인 또는 모둠이 실제 과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액션러닝의 한 방법인 명목집단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정제된 단어와 문장 사용을 통해 토론시간을 절약하고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 참가를 유도하며 아이디어 분류 및 정리가 가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 Ⅱ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

1. 성취기준 : 외침에 맞선 다양한 노력을 중심으로 양란의 전개과정을 설명한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명이 쇠약해진 틈을 타 북쪽에서 여진족이 강성하여 후금을 세웠다. 강성해진 후금이 명을 공격하자 명은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이제는 쇠락해진 명과 오랑캐라 업신여기지만 강대한 후금 사이에서 명분과 실리를 두고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광해군은 명을 지원하기 위해 원정군을 파견하였지만, 후금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강홍립을 시켜 항복하게 하였다. 집권자인 광해군은 명과 여진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려는 중립외교 정책을 펼쳐, 후금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조선이 처한 국제적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오늘날 강대국의 틈바구니 사이에 존재한 우리나라가 현명한 외교 정책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좋은 역사적 사례가 될 것이다.

| 교육과정 내용                                                  | 성취기준                                                                | 성취수준 |                                                                             |
|----------------------------------------------------------|---------------------------------------------------------------------|------|-----------------------------------------------------------------------------|
| 왜란과 호란의 대내외적 배경을 알고, 외침에 맞선 다양한 노력을 중심으로 양란의 전개과정을 설명한다. | 역9154. 왜란과 호란의 대내외적 배경을 알고, 외침에 맞선 다양한 노력을 중심으로 양란의 전개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상    | 왜란과 호란의 배경, 전개 과정, 영향을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이해하고, 이때 나타난 외침 극복의 다양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
|                                                          |                                                                     | 중    | 왜란과 호란의 대내외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외침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제시할 수 있다.                 |
|                                                          |                                                                     | 하    | 왜란과 호란 중에 전개된, 외침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말할 수 있다.                                 |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

|                                                                                                                                                                          |   |                                                                                                                                                                                                       |
|--------------------------------------------------------------------------------------------------------------------------------------------------------------------------|---|-------------------------------------------------------------------------------------------------------------------------------------------------------------------------------------------------------|
| <p><b>〈출발점〉</b><br/>                 “광해군은 연산군처럼 ○○군으로 명칭이 끝나고 신하들에 의해 쫓겨난 것을 보면 폭군이었어.”<br/>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외교 문제로 고민한 일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과는 무관해.”</p> | → | <p><b>〈목표점〉</b><br/>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쫓겨난 점은 아쉽지만 내정과 외교정책에서는 상당한 업적을 남긴 왕이구나.”<br/>                 “지금의 한반도의 정세는 17세기의 조선시대보다 더 긴박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걸 실감했고 그 당시 광해군의 업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p> |
|--------------------------------------------------------------------------------------------------------------------------------------------------------------------------|---|-------------------------------------------------------------------------------------------------------------------------------------------------------------------------------------------------------|

### 2. 학습목표

첫째, 명·청 교체기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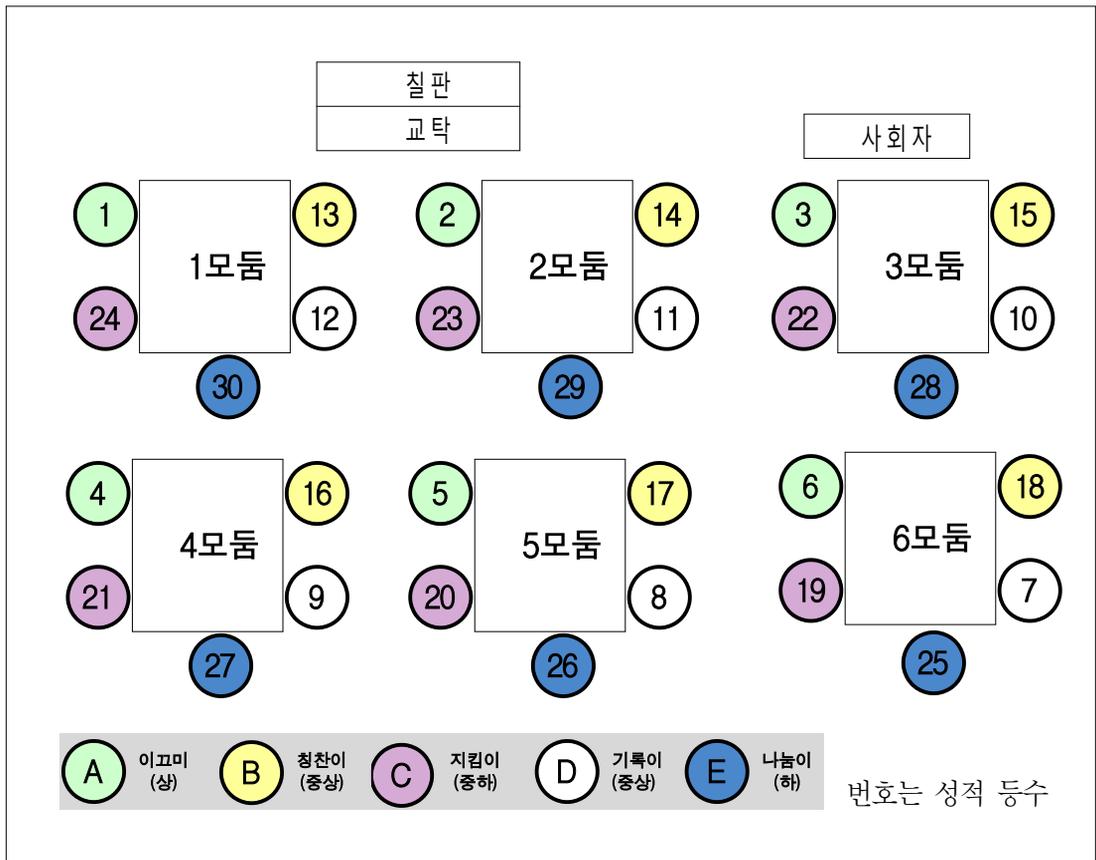
둘째, 광해군의 국제정세 대응방식을 토론하고 근거를 들어 외교정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 Ⅲ 수업 준비

#### 1. 모둠구성원의 역할

|                |         |                           |
|----------------|---------|---------------------------|
| 모둠활동 수행을 돕는 역할 | 이끄미(상)  | 모둠활동 전반을 이끈다.(토론 참여)      |
|                | 기록이(중상) | 모둠활동의 기록을 담당한다.(토론 참여)    |
|                | 칭찬이(중상) | 모듬의 활동을 칭찬해 준다.(토론 참여)    |
|                | 지킴이(중하) | 모듬의 진행을 지켜본다.             |
|                | 나눔이(하)  | 준비물 자료를 나눠주고 필요 물품을 받아온다. |

#### 2. 모듬 구성



## IV 수업 진행

토론 주제 :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은 옳은 선택이었다.

### 【논제 선정 이유】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산업의 복구, 재정기반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외적인 정책으로는 일본과 기해조약(1609)을 체결하여 중단되었던 외교를 재개하였으며 1617년 조선에서도 사신을 파견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 이로써 명, 후금, 일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실리적 외교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 조선이 처한 국제적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오늘날 강대국의 틈바구니 사이에 존재한 우리나라가 현명한 외교 정책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좋은 역사적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 논제를 설정하였다.

### 1. 수업 개요

- 대상 : 전체
- 인원 : 학급별 31명
- 수준 : 중학생
- 소요 시간 : 3차시 또는 블록타임(2·3차시)
  - 1차시 : ‘처음 쓰기’ 확인하고 브레인라이팅 토론하기
  - 2차시 : 소집단 찬반 토론
  - 3차시 : 패널 토론

### 2. 준비물

활동지(읽기 자료 및 입론개요서 작성 용지), A4 용지, 포스트-잇, 초시계, 토론용 학습지, 동영상 자료(다큐멘터리 ‘인류’ 중 역병 편집용, 역사스페셜과 한국사전 광해군)

### 3. 수업의 흐름

가. 전시 과제 확인 : 처음 쓰기에 대한 입장정리를 수합해서 확인(개인 점수 부여)하고 잘 된 모둠을 읽어준다. 다음 시간 소집단 토론에 들어갈 준비를 알려준다.

|                   |                                                                       |                                                                                           |         |
|-------------------|-----------------------------------------------------------------------|-------------------------------------------------------------------------------------------|---------|
| 처음 생각쓰기           |                                                                       | 1학년 ( )반 ( )번 이름 ( )                                                                      |         |
|                   |                                                                       | 모듬 이름                                                                                     | 석관 무한도전 |
| 1. 논제(토론 주제)      |                                                                       |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은 옳은 선택이었다.                                                                   |         |
| 2. 입장             |                                                                       | 찬성 / 반대                                                                                   |         |
| 3. 입장 정리          | 이유나 근거 우리들의 생각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점들을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입장에 동의할 거예요. 설득해 보겠어요! | 1) ‘전쟁에는 해피엔딩이 없다.’라는 말처럼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립외교를 찬성합니다.        |         |
|                   |                                                                       | 2) 중립외교가 옳은 선택이었던 이유를 예를 들면 쌍령 전투가 있습니다. 지휘관의 리더십과 전략, 병사들의 전투기술을 갖추지 못해 비참하게 패한 전쟁이었습니다. |         |
|                   |                                                                       | 3) 명과의 의리를 지키는 대의명분에 사로잡혀 12일 만에 한양에 당도하게 만든 안일한 인조 정권의 대처능력을 보면 더욱 중립외교가 옳은 선택이다.        |         |
| 4. 예상되는 반대 모듬 근거들 |                                                                       | 1) 사르후 전투에서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것은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낸 명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
|                   |                                                                       | 2) 중립외교를 실리를 추구한 외교라고 하지만 한 마디로 힘이 센 나라에게 붙겠다는 비겁한 행동이었다.                                 |         |
|                   |                                                                       | 3) 대외정책에서 눈치작전을 보는 음흉한 군주는 동생을 죽이고 새 어머니를 덕수궁에 가둬놓아 패륜아라 불렸으며 무리한 토목공사를 하였다.              |         |

나. 동기유발(브레인라이팅) : 현재의 한반도는 과연 안전한가?



브레인라이팅(Brain writing) 자료 1

현재 한반도는 과연 안전한가?

이춘근 교수의 염창중 강의 내용 인용

평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굴복함으로 유지되는 평화를 평화라고 할 수 없다. 전쟁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그러나 평화는 목표다. 그러나 두 개념은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들은 “더 나은 평화(Better Peace)”를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다.

◀ 북한 핵에 대한 오해들

1. 북한은 미국과 싸우려고 핵을 만드는 중이다.

정답: 미국과 싸움하지 않기 위해



2013.5.18. <이코노미스트지> 표지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2. 북한의 핵은 한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북한 핵의 목적은 한국을 제압하고 북한이 통일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3. 북한의 핵은 궁극적으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정답: 북한이 말하는 “우리”와 대한민국이 말하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 세계가 일본을 보는 눈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자위대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정규적인 군대로 전환 시킨 애국적 일본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A patriotic Japan that had converted its ‘self-defence forces’ into a standing army just like any other country’s would add to

◀ 이어도 문제

중국이 또다시 이어도가 자국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인항공기의 감시 대상에 포함 시켰다. 지난 3월 류츠쿠이(劉賜貴 유사귀) 국가 해양국장(장관급)이 “이어도(중국어명 쑤옌자오·蘇巖礁 = 소암초)를 포함한 중국 관할해역을 해양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 순찰할 것”이라고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지난 23일 장쑤성 쉐닝에서 열린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원격 해양감시 시스템 시연 행사에서 “무인항공기 이용을 확대해 이어도를 포함한 관할 해역에 대한 종합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어도 위치

◀ 주변국 해군과 한국 해군 비교

(자료 : 2013 일본 방위백서 미국의 경우 2012 백서)

- 동아시아 해군력 비교

중국 함대 : 1,469,000톤

태평양 함대 : 1,028,000톤

한국 : 193,000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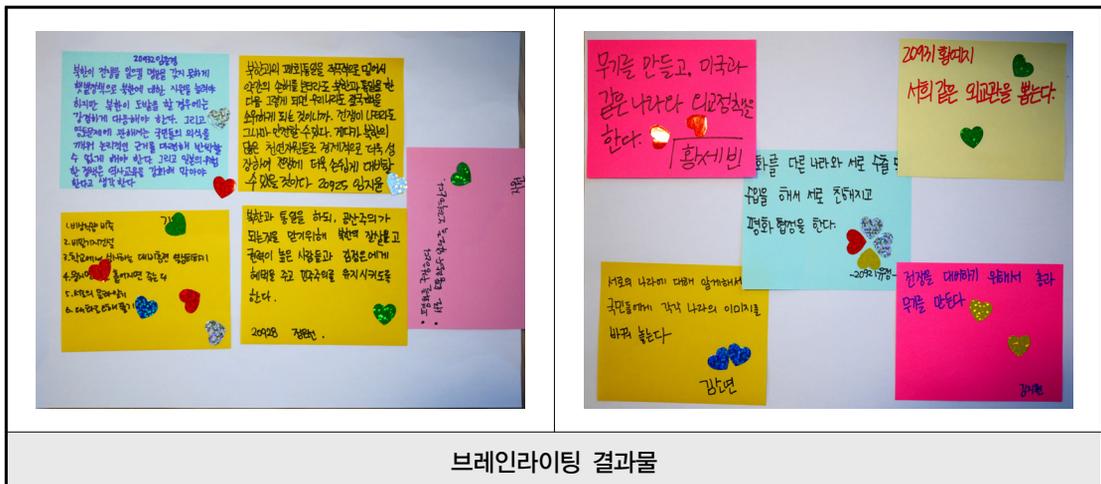
일본 : 452,000톤

대만 : 217,000톤

다. 전체 의견 파악

1) 브레인라이팅 토론

|                                                                 |
|-----------------------------------------------------------------|
| 1.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들을 살펴보자.                             |
| 2. 북한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
| 3.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br>(브레인라이팅하여 보자.) |
| 읽어볼 책 『소년병 평화의 길을 열다』                                           |



2) 브레인라이팅 토론 정리

현대전은 경제력이 뛰어난 국가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예전의 전쟁이 보병 위주였고, 그보다 발달된 형태가 기병이나 전차병 정도였다면, 현대전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어마어마한 대량 살상 무기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은 화학 생물학 무기에 대한 생산 및 저장 시설 1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학 무기는 2,500톤 내지 5,000톤을 보유한 세계적인 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물론 전면핵

7) CWC(Cheical Weapons Convention)는 사린가스, VX 등 화학무기 개발, 사용 전면금지. 188개국 가입. 시리아나 북한은

실험금지조약CTBT도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독가스 등의 화학무기는 제조 기술이 간단하고 제조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대량 살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자(貧者)의 핵무기’로 불린다. 유비무환, 미리 대비하는 자에게는 환란이 없는 법이니 우리나라도 화학전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세상에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력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다.

학생들과의 토의토론은 지나간 조선의 전쟁을 논하기보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정세 변화를 논하고 본인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정리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 그리고 청나라와 대적하게 된 17세기의 조선보다 현재의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더욱 험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 같다. 브레인라이팅 토론을 통해 더욱 유연하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 라. 소집단 찬반토론 의 실제

토론의 처음은 입론이라 합니다. 입론(立論)은 논제에 대해 자기 모두의 입장을 담은 논점을 펼치는 과정이죠. 입론에서 펼친 논점을 토대로 해서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 모두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내야 해요. 토론 도중에 새로운 논점을 세우거나 또는 상대 모두가 입론에서 제시하지 않은 논점에 대해 반박했다면 이는 모두 잘못입니다. 첫 번째 입론자는 바로 이 ‘중립정책’의 의미를 정의(定議)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첫 번째 입론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논제]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은 옳은 선택이었다.

- **교사** :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대로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은 옳은 선택이었다.’를 논제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3팀으로 구성하였는데 숫자 1번을 뽑은 찬성 ○○팀과 반대 ◇◇팀이 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인 ○○팀은 반 친구들이 볼 때 왼쪽 편에 앉아 주시고 반대 측인 ◇◇팀은 오른쪽에 앉아 주세요. 찬성 측 ○○팀에서 먼저 입론을 발표하도록 하고 반론, 재반론, 최종 변론은 반대 측인 ◇◇팀이 먼저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작전타임은 입론 뒤와 재반론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는 앞으로 나와서 그 역할을 수행해 주세요.”

#### 1) 논제를 둘러싼 시대적 또는 사회적 배경을 말한다

##### ● 찬성 측 입론

임진왜란 때에 선조를 대신하여 분조(分朝, 임시 조정)를 이끌면서 전장을 누볐던 광해군은 실천적 군주였습니다. 그의 현실 인식은 국제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명과 후금의 세력 판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선의 실리를 취하기 위해 중립외교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지지합니다.

가입하지 않고 있다.

● 반대 측 입론

후금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한 명이 조선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관망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조선의 장수에게 투항을 권하는 밀지를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중립외교, 실리외교라고 포장하고 있는 광해군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2)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리한다.

핵심 개념을 정의하는 이유는, 핵심단어에 대한 정의 자체가 곧 자기 모듬의 입장이나 논점을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반대 측보다 먼저 발언하기 때문에, 개념 정의 역시 찬성 측이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을 정의해야 할 용어는 대개 논제 안에 담겨 있죠. 핵심 용어에 해당하는 ‘중립외교’의 개념을 정의해야 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중립외교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실리외교라고 주장한다면 반대 측에서는 눈치만 살피며 명분을 살리지 못한 비겁한 외교라고 응수하는 것입니다.

3) 논점을 3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전개한다.

● 찬성 측 입론 중 논점(예시)

☞ 찬성측1 : 우리 모듬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조선은 임진왜란의 전후복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30년이 되어가나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170만 결이던 전국의 경지면적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54만 결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또한 크게 감소하여 1543년 416만 명이던 인구는 1648년 17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가 군사를 요청해 왔지만, 전쟁에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또 전쟁을 일으켜 우리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 정세가 변했다는 점입니다. ‘사대’는 조선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우리가 선택하고 받아들인 것이지 ‘사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명에 사대함으로써 우리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외교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명은 쇠약해졌습니다. 그에 비해 후금은 어떠합니까? 임진왜란 때에 우리에게 2만 명의 원군을 보낸다고 큰 소리 칠 정도로 강성해졌습니다. 누가 보아도 명은 쇠퇴하고 후금은 흥기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명나라 편을 들고 후금을 적대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가 변화했으므로 조선의 외교 정책도 변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셋째, 국가를 운영하고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리’나 ‘명분’이 아니라 ‘실리’ 곧 ‘국익’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사대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의리와 명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제 나라, 제 백성을 죽음으로 몰고 남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주장을 하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의 지배층이며, 관리입니까? 명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분을 중요시 여길 때가 아니라, 국가의 실리를 추구할 때입니다. 불과 12일 만에 한양에 도착해서, 왕이 강화도로 피난 갈 길을 차단한 청나라의 침략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구보다도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한 광해군의 중립외교정

책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 측 입론 중 논점(예시)

☞ **반대측1** : 우리 모듬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선 조선은 건국 때부터 명과 군신 관계를 맺고 200년 이상 유지해 왔습니다. 군사 부일체라 하였지요. 명나라는 조선에게 임금님의 나라이며, 또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며, 임금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듯이 명나라에 신의를 지키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지 않고 도리를 저버린다면, 다른 나라로부터 고립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광해군은 중립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형세를 관망하다가 힘센 나라의 편에 서겠다는 태도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형세는 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다 한다면, 새 중에 박쥐하고 같습니다.(웃음) 누가 우리나라를 신의로써 대할 것입니까? 게다가 명은 안으로 자기 나라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자 군사를 파견하였습니다. 명이 지금 쇠퇴해진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를 살리려다 그리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서도 은혜에 보답할 줄을 모른다면, 훗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편에 서서 우리를 돕겠습니까? **셋째**,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도리를 지킬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신의가 되어야 하며, 외교 정책도 신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실리’는 의리와 대의명분에 따라 옳은 것을 지킬 때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 반대 측의 입론까지 끝났으므로 작전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은 반대 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부착하는 초시계를 활용하여 시간을 쟀다.)

- **사회자** : 반대 측의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찬성 측 토론자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부착하는 초시계를 활용하여 시간을 쟀다.)

☞ **반대측2** : ‘사대는 명분이다. 형식일 뿐이다.’ 라고 비판하지만, ‘사대’는 강대국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국제 질서입니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신 사이의 의리와 명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로 건너갈 위험한 순간에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구해준 것을 그렇게 금방 잊어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중립외교는 가면을 쓰고 거짓되게 행동한 기만전술입니다. 중립외교가 ‘실리’외교임을 들먹이는데, 비겁한 외교 아닌가요? 찬성 측 토론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공정측1** : ‘실리’외교가 분명합니다. 조금은 비겁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승산 없는 전쟁으로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몰지각한 외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 **반대측2** :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광해군 일기』에 의하면 광해군은 은밀히 명령을 내

려 “명나라 장수의 말을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구하는 데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비겁한 처사입니다. 아버지 선조가 생전에 임버릇처럼 외치던 ‘재조지은(再造之恩, 거의 망하게 된 것을 구하여 도와준 은혜)’을 갚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 **찬성측2:** 광해군은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통해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는 왕입니다. ‘인조, 반정에 성공하다.’ 뭐 이런 영화 만들 수나 있을까요?(웃음과 박수) “왜 광해군일까요?”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현재의 한반도 주변 상황을 돌아볼 때, 지금도 필요한 외교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실리를 위한 것으로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의리가 아니라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가치나 대의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백성들의 삶을 최대한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립은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대 측 ◇◇가 중립외교를 가면을 쓴 기만전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대로 전쟁은 하지 않고 피신만 한 선조나 인조의 처신을 살펴보고서도 이런 말이 나오니까? 반대 측 ◇◇이는 말씀해 주십시오.

☞ **부정측2 :** 피신한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중국과의 사대는 그 시대의 정세이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찬성측2 :** 정말 그 치욕을 뒷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명분’을 들먹이니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광해군이 ‘실리’를 택한 것은 왕세자 시절, 임진왜란으로 인해 처참히 짓밟힌 백성들의 삶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의 재조지은을 강조하지만 “명군은 참빔, 일본군은 얼레빔” 이라고 할 정도로 명군은 조선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백성을 위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명은 지는 나라이고 청은 뜨는 나라입니다. 중립외교가 백성을 위하는 최고의 정책입니다

● **선생님 :** “자, 이런 식으로 반대 측이 중립외교는 비겁함을 가면 속에 숨긴 기만전술이라고 반박을 하면 찬성 측에서는 중립외교는 백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실리외교라고 주장합니다. 반론을 적절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들을 잘 들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여러분도 지금 메모하고 있겠지요. 지금부터는 반론썰기(재반박)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측3 :** 국제 관계에도 질서라는 것이 있고, 나라 사이에도 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당시 국제 관계의 질서를 봅시다. 당시 국제 관계의 질서 원리로 작용한 것이 ‘사대(事大)’와 ‘자소(字小)’ 또는 ‘사소(事小)’인데요. 찬성 측 이 말을 알고 있겠지요?(잠시 말을 멈춰 환기시킨다.) ‘사대’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긴다는 뜻이고, ‘자소’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아낀다(또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동양의 고전인 『맹자』에 의하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면 천하를 지키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맹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섬김은 하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김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일이니, 하늘을 기쁘게 하면 천하를 지킬 것이요, 하늘을 두려워하면 나라를 지킬 것이다. 근대에 들어와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질서보다, 사대-자

소의 관계는 훨씬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국제관계였습니다. 더군다나 파병을 약속하고 출정해서 싸우지 않고 대강 눈치만 보다가 항복하는 것이 바른 행동인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찬성측1** : ‘사대’와 ‘자소’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중립외교가 백성을 위하는 최고의 정책이란 것은 인조 때 벌어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통해 제대로 알 수 있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 ☞ **부정측3** : 약속을 저버린 중립외교는 국제 질서를 무시한 외교정책입니다. 또한 입만 열면 백성을 위한다. 위한다 하는데 궁궐을 짓는다고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찬성측2**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견해입니다. 광해군은 대동법도 시행하였고 『동의보감』도 완성하여 백성의 편에서 정치를 펼친 업적이 더 큼니다.
- ☞ **찬성측3** :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일본은 하루 40km씩 북상하여 부산에 상륙한지 20일 만에 한양에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청은 병자호란 때 한양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는지 반대 측은 아십니까?
- ☞ **반대측1** : 20일보다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찬성측3** : 불과 12일만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청군의 남진 속도는 임진왜란 시기 왜군의 북진속도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12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청국군의 주력부대는 대부분 말을 타고 달리는 기병군대이기 때문이었죠. 병자호란 당시 경기도 광주의 ‘쌍령’ 전투에서 조선군 4000명이 청국 기병 300명에게 참패하였습니다. 청국 기병이 3,000명이었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 병사들은 지휘관의 소통과 양보가 부족한 데다 체계화된 훈련이 부족해 싸우다 죽은 병사들보다 도망치다 짓밟혀 죽은 숫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대의교인 ‘친명배금정책’이 옳은 결과입니까? 정말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 **반대측3** : ‘쌍령 전투’의 문제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승리한 전투들도 있었습니다만...(머뭇거리다.)
- ☞ **찬성측3** : 그것을 승리라고하기에는 지도층의 엄청난 실수가 있었고 대신들 중에는 자기 가족만 피신시키기에 바쁜 형편없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 **사회자** : 작전타임을 갖고 마지막으로 양측의 최종 발언을 들겠습니다.
- **선생님** : 최종 발언은 글로 따지면 결론에 해당합니다. 최종 발언 역시 지금까지 토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정리하고 토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청중을 향해 다시 한 번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단계입니다. 다음 시간에 있을 패널 토론에서는 청중들을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유나 일화 등을 들어서 청중들에게 선명한 인상을 남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실시한 소집단 찬반토론에서는 입론과 반박 그리고 재반박의 과정을 거친 뒤 최종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의 반론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경우 최종 발언에서 반론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을 지키십시오. 반드시, “최종 발언을 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반박할 내용을 압축해서 요점만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점의 대

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 **반대측2** : 『연려실기록』에 의하면 백성을 위한 광해군이 측근들 중심으로 정책 수행을 이끌어 나가자 이런 말이 떠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인이 이를 갈고, 남인이 원망을 품으며, 소북이 비웃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광해군 일기』에 의하면 1623년 3월 12일 광해군을 폐위시킨 인조반정이 일어나던 밤. 조정엔 이미 정보가 입수돼있었습니다. 역모의 움직임에 고발하는 한 통의 상소를 받은 광해군. 인조반정의 기미도 다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다’고 하죠. 광해군이 역모의 고변을 물리친 데는 상궁 김개시란 한 여인이 개입돼 있었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왜 일개 상궁의 말에 역모의 고변을 물리쳤을까요? 그것은 광해군의 측근이 비리로 인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북파의 영수였던 이이첨은 김개시에게 뇌물을 주어 결탁하고 봉당 경쟁에서 왕의 권력을 등에 업기 위해 살해사건을 역모사건으로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역모사건에 광해군은 범인을 직접 취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이런 판국에 중립외교로 전쟁을 피할 수는 있었겠지만 조선의 정신적 바탕인 성리학으로 이루어진 질서를 뒤흔들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광해군 지금이라면 청문회에 세우고 싶습니다.(발언자의 흥분한 모습에 웃음) 개돼지만도 못한 오랑캐와 타협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찬성측2** : 반대 측 발언 끝까지 듣고 있기 민망합니다. 토론의 ‘토’자도 모릅니까?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논제는 광해군의 중립외교 옳은 선택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 아닙니까? 찬성 측인 우리 모듬은 임진왜란 후 30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정묘호란과 같은 전쟁의 상태를 막아보고자 후금과 명 사이에서 중립을 취한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광해군의 생각이 옳았다는 예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와 서인정권은 옳다고 항변하는데 그렇다면 왜 『광해군일기』의 중초본에 서인에게 불리한 것은 붉은 줄로 지웠을까요. 광해군의 임진왜란 때의 훌륭한 업적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광해군일기』는 정말이지 역사란 승리한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 차례의 호란으로 북부 지역이 황폐해지고 왕자와 신하 등 많은 사람이 청에 인질로 잡혀갔다. 또한 조선은 해마다 많은 양의 공물을 청에 바쳐야 했었죠.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속환문제도 계속된 문제입니다. 전쟁에서도 지고 그 때문에 끌려간 백성들을 나 몰라라 팽개치는 군주가 훌륭한 군주인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조선이 처한 국제적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오늘날 강대국의 틈바구니 사이에 존재한 우리나라가 현명한 외교 정책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에 좋은 역사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경험을 통해 전쟁이 백성들에게 남긴 상처와 밑바닥 민심을 몸소 체험한 광해군은 개혁을 강행하죠. 대내적으로는 대동법으로 민생을 살피고, 대외적으로는 실리를 챙기는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펼친 것이니 그 누구보다 현명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측에서는 궁궐을 짓는 바람에 민심이 파탄이 났다고 했는데, 대동법을 실시하여 민생을 돌본 것은 정책 아닙니까? 배심원 여러분도 중립외교의 실리적인 면을 택할 것을 기원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사회자** : 오늘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 **선생님** : 생각보다 열심히 토론을 진행해서 시간이 초과되었어요. 오늘 제비뽑기에서 1번을 택한 찬성 ○○팀과 반대 측 ◇◇팀의 소집단 찬반토론은 반대 측이 중립외교가 옳지 못하다는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신공격적인 면도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는 최종발언에서 논제와 다른 이야기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자료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론에 반영하려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작전타임을 두 번씩 주었는데도 모둠 상호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1모듬의 토론 결과는 찬성 ○○팀의 승리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2모듬과 3모듬도 계속 토론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2모듬과 3모듬 내용은 생략)
- **선생님** : 무엇보다 준비가 철저하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토론에 잘 응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토론 주제로 삼은 것은 여러분이 자료를 선택하거나 준비할 때 쉽게 구할 수 있고 서로 상반된 서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 가지 주장이 분명해지면 그 책을 준비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논제를 정리하고 개요를 쓰는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들은 준비과정에서 소개했던 『광해군, 그 위험한 거울』 과 『광해군, 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 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쓰여 졌고, 오향녕 교수는 자신을 가리켜 현재의 반정세력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두 책을 읽어보으로써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수업을 잘 따라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립외교의 옳바르지 못한 점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면을 보인 반대 모듬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토론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진행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해 주십시오. 책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패널토론은 찬성 팀 3모듬과 반대 팀 3모듬에서 양쪽 6명의 대표를 뽑아 진행할 것이니 대표들은 제대로 준비해 오도록 합니다.

## V 수업 정리 및 평가

- **교사** : 다음 시간에는 배심원(청중)이 토론에 참여하는 패넬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들 중 질문자로 뽑힌 사람은 진지하게 질문해주시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는 수업을 마무리 하면서 ‘현명한 외교 정책이란 어떤 것인가?’ ‘백성을 위해 진정한 군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 등으로 생각을 확장해 보도록 유도한다.

### 1. 배심원 판정 기준

| 영역              | 항목                                  | 판정    |       |
|-----------------|-------------------------------------|-------|-------|
|                 |                                     | 찬     | 반     |
| 입론              | ▶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이유, 정보의 양이 충분한가?   | 3 2 1 | 3 2 1 |
|                 | ▶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논리적으로 구성, 설득력이 있나? | 3 2 1 | 3 2 1 |
| 반론              | ▶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에 대한 출처나 진위를 확인하였나?    | 3 2 1 | 3 2 1 |
|                 |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효과적인 질문이 얼마나 있나? | 3 2 1 | 3 2 1 |
|                 | ▶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및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졌나?    | 3 2 1 | 3 2 1 |
| 최종<br>변론        | ▶ 자기주장의 타당성 부각과 근거, 이유의 재구성이 잘 되었나? | 3 2 1 | 3 2 1 |
|                 | ▶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과 논리적 부조리를 부각시켰나?      | 3 2 1 | 3 2 1 |
| 팀 운영<br>및<br>예절 | ▶ 팀원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잘 되었나?            | 3 2 1 | 3 2 1 |
|                 | ▶ 언행이 예의 바르고 단정했나?                  | 3 2 1 | 3 2 1 |
|                 |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였나?       | 3 2 1 | 3 2 1 |
| 합계              |                                     |       |       |

### 2. 패넬토론 진행순서

| 순서                  |                  | 비고                                                                                                                                                                                                                    |
|---------------------|------------------|-----------------------------------------------------------------------------------------------------------------------------------------------------------------------------------------------------------------------|
| ① 찬성측 입론(3분)        | ② 반대측 입론(3분)     | * 각 모둠별 3분씩<br><br>* 각 모둠별 속의 시간을 2분간 1회 요청할 수 있다.<br>* 질문은 간결하게 하고 30초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br>* 답변은 두괄식으로 하고 1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먼저 하고자하는 말의 결론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에 대한 부연 설명을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지 않으면 말이 엉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 ④ 찬성측 1차 답변(1분)     | ③ 반대측 1차 질문(30초) |                                                                                                                                                                                                                       |
| ⑤ 찬성측 1차 질문         | ⑥ 반대측 1차 답변      |                                                                                                                                                                                                                       |
| ⑧ 찬성측 2차 답변         | ⑦ 반대측 2차 질문      |                                                                                                                                                                                                                       |
| ⑨ 찬성측 2차 질문         | ⑩ 반대측 2차 답변      |                                                                                                                                                                                                                       |
| ⑫ 찬성측 3차 답변         | ⑪ 배심원 반대측 1차 질문  |                                                                                                                                                                                                                       |
| ⑬ 배심원 찬성측 1차 질문     | ⑭ 반대측 3차 답변      |                                                                                                                                                                                                                       |
| ⑯ 찬성측 4차 답변         | ⑮ 배심원 반대측 2차 질문  |                                                                                                                                                                                                                       |
| ⑰ 배심원 찬성측 2차 질문     | ⑯ 반대측 4차 답변      |                                                                                                                                                                                                                       |
| ⑳ 찬성측 최종발언(2분)      | ㉑ 반대측 최종발언(2분)   |                                                                                                                                                                                                                       |
| - 모둠에 대한 학생 논평 (2명) |                  | - 선생님 총평 및 정리                                                                                                                                                                                                         |

## VI 다른 단위 적용사례

| 교과서 단위                  | 교과서 단위에 따른 기타 토론 논제                                                                                                                                                                                                                                          |
|-------------------------|--------------------------------------------------------------------------------------------------------------------------------------------------------------------------------------------------------------------------------------------------------------|
| 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p>◎ 죄수들로 군대를 편성하는 것은 인권 보호에 어긋난다.<br/>                     -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br/>                     * 찬성측: 한 무제 때 고조선을 침략한 죄수들로 구성된 순체의 군대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어긋난다.<br/>                     * 반대측: 범죄자로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진정한 애국일 수도 있으므로 인권보호에 어긋나지 않는다.</p> |
| II. 삼국의 성립과 발전          | <p>◎ 삼국시대라는 명칭은 올바른 명칭이다.<br/>                     * 찬성측: 가야는 연맹국가의 단계에 머물렀으므로 삼국시대 명칭이 올바르다.<br/>                     * 반대측: 가야는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아 사국시대라는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p>                                                                           |
| III. 통일신라와 발해           | <p>◎ 신라의 삼국통일은 진정한 민족통일이다.<br/>                     * 찬성측: 삼국통일은 영토의 축소는 가져왔지만 나당 전쟁을 통해 고구려와 백제 유민과 함께 이룬 민족 통일이다.<br/>                     * 반대측: 삼국통일은 영토축소, 외세 개입, 민족 이산 등의 문제로 보아 진정한 민족통일이 아니다.</p>                                                    |
| IV. 고려의 성립과 발전          | <p>◎ 고려의 북진정책은 계승되어야 한다.<br/>                     * 찬성측: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서 북진정책은 당연히 계승해야 한다.<br/>                     * 반대측: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아 영토를 회복하려면 끊임없는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할 수 있다.</p>                                                                            |
| V. 고려사회의 변천             | <p>◎ 서경천도운동에서 서경파 묘청의 주장은 타당하다.<br/>                     * 찬성측: 서경파는 칭제건원, 금과의 전쟁 등을 주장해 고구려의 기상을 중시했으므로 서경파 주장은 타당하다.<br/>                     * 반대측: 도읍을 옮기고 궁궐을 건설하는 공사는 백성들의 고통이 커지며 금과의 전쟁에서 정벌 당할 수도 있어 반대한다.</p>                                      |
| VI. 조선의 성립과 발전          | <p>◎ 병자호란 당시 주화파와 척화파의 논쟁<br/>                     * (주화파): 백성과 사직의 안위를 고려해 평화적인 외교방식을 취해야 한다.<br/>                     * (척화파): 명과의 대의명분을 지키고, 여진족에게 군신관계는 허용할 수 없으므로 전쟁이 필요하다.</p>                                                                         |
| VII. 통일제국의 형성과 세계종교의 등장 | <p>◎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라티퐁디움 경영에 반대하고 농지법 개혁의 추진을 주장하였다. 평민파와 귀족파로 나뉘어 토론해보자.<br/>                     * 찬성측(평민파) VS 반대측(귀족파)</p>                                                                                                                                  |
| VIII.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 <p>◎ 루브르는 과연 프랑스의 박물관인가?<br/>                     * 찬성측: 문화재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기에 현재 소유한 자가 주인이므로 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이다.<br/>                     * 반대측: 약탈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루브르 박물관은 순수한 프랑스 박물관이라고 할 수 없다.</p>                                                               |
| IX. 교류의 확대와 전통사회의 발전    | <p>◎ 신대륙 발견에 대한 평가 - (가)와 (나) 중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여 그 근거를 말해보자.<br/>                     * (가): 콜럼버스의 날 기념행사<br/>                     * (나): 콜럼버스의 날 반대 시위</p>                                                                                                     |

## VII 활동지

### 학생 읽기 자료 1

오늘의 우리 또한 격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격변의 핵심은 중국의 부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웅변하는 용어가 바로 ‘G2’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정치,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버금가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태풍의 눈이다. 그래서 일본은 부산하다, “떠오르는 중국의 행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고 아우성을 친다. 그리고 지금 중일 관계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 이른바 센카쿠 열도와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은 동아시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이 된다면? 또 그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사사건건 부딪힌다면? 그 와중에 일본이 ‘보통 국가’를 넘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면? 여전히 ‘끼여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병자호란 무렵처럼 국제질서의 판이 바뀌던 시기, 우리 선조들이 보였던 대응의 실상을 찬찬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명기의 역사평설 『병자호란』)

‘G2’는 미국과 중국을 가리킨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초강대국인 미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나라라는 의미로 생겨난 용어이다. 세계 경제 질서와 안보 등 세계의 주요 이슈를 이끌어 가는 영향력 있는 두 나라라는 의미로, 미국과 중국을 가리킨다. ‘G2(Group of Two)’라는 용어는 2006년 무렵 미국 학계에서 처음 대두되었고, 2009년 1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행사에서 지미 카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G2 회의’를 주창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연례 전략대화를 열고 모든 차원에서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G2론’이 더욱 부각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이 엄청난 속도와 팽창력으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자 기존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신흥강국인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경제위기·중동사태·기후변화·핵확산 등 각종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왔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말이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학생 읽기 자료 2

### • 강홍립 사건

파병요청을 받은 이듬해 1619년 2월, 광해군의 왕의 통역관으로 일해 온 충신 강홍립을 총사령관인 도원수에 임명하고 명으로 1만 3천여 명의 병사를 보냈다. 더불어 강홍립에게 은밀하게 메시지를 전했다. “전쟁 상황을 보아 후금에 투항해도 좋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신하들은 일체 모르게 한 ‘왕의 밀지’였다.

오랑캐 후금에게 항복한 강홍립은 천하의 역적이 됐다. 처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때 광해군은 강홍립의 편을 들면서 명분론에만 사로잡힌 대신들을 향해 크게 호통을 쳤다.

“적의 군사력이나 전략이 당해내기 어려우니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닥칠지 예측할 수가 없다. 나라를 위해서는 상하가 합심하여 오로지 부국강병에만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생각하지 않고 강홍립의 처자를 벌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내 속으로 헛웃음이 나온다.”

『광해군 일기』, 광해군 11년(1619) 4월 8일

“명나라를 섬기기를 더욱 정성껏 함과 동시에 한창 기세가 왕성한 적을 잘 다독여야 한다. (...) 지금 적이 매우 사납게 날뛰지만 현명하고 유능하게 대응한다면 고려 때처럼 재앙을 막고 국가를 지켜 전쟁의 재난을 입지 않을 것이다.”

- 『광해군 일기』, 광해군 11년(1619) 4월 9일

결국 광해군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고립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명에서 요청해온 2차 파병을 거부했다. 광해군의 의중을 파악한 후금은 조선으로 향하려던 발걸음을 명나라 쪽으로 돌렸다. 쇠퇴해가는 명과 신흥 강자 후금의 사정을 정확히 꿰뚫고 대처한 국왕 덕분에 조선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 • 수정본 실록의 존재

광해군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와 서인 세력은 오로지 ‘재조지은(再造之恩, 거의 망하게 된 것을 구하여 도와준 은혜)’을 고수했다. 광해군 때 편찬된 『선조실록』은 북인이 주도하여 만든 실록이라 믿을 수 없다며 선조의 실록을 『선조수정실록』으로 다시 편찬했다. 남인들이 『현종실록』을 만들자 서인들은 나중에 개수하여 『현종개조실록』을 만들었다. 소론들이 『숙종실록』을 만들자 노론들이 『숙종실록보궐정오』를 편찬하였다. 『광해군 일기』는 중초본과 정서본이 남아있어 두 가지를 다 비교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비교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광해군에게 유리하고 서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붉은 먹으로 지운 흔적이 있다.

### 학생 읽기 자료 3

#### • 새롭게 조명 받는 광해군

광해군이 새롭게 조명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서다. 일제강점기 한 일본인 학자가 광해군을 ‘실용주의 외교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힌 군주’라고 평가했고, 이후 국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광해군의 치적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오늘날 한국의 국사 교과서는 물론 북한의 역사서도 외교 업적과 관련해서는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후 강력하게 복구정책을 펼쳐 나갔고,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외교력을 발휘해 조선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았던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정하자는 것이다.

광해군은 21세기 들어 거듭 부활하여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04년 이라크 파병 여부를 놓고 찬반론이 나뉘었을 때다. 이후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개봉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면서 지도자로서 광해군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대해 연구해온 명지대 사학과 한명기 교수는 “광해군 시대의 한반도나 오늘 우리가 사는 한반도나 여전히 주변 열강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소명의식을 갖춘 지도자, 자주외교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이 계속해서 광해군을 불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맞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 오항녕 전주대 언어문화학부 교수는 광해군의 외교정책은 강대국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 외교’였다고 비판한다. 궁궐 재건 등

무리한 토목공사로 민생을 파탄 냈고 신하들과 국정 토론을 하는 경연도 계을 리했던 무능한 군주였다는 것이다.

광해군은 그는 과연 성군일까 폭군일까? 그 판단에 앞서 적어도 이것만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의 격랑 속에서 광해군은 앞으로도 거듭 호출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 『역사e』 역사채널e

#### • 청나라로 끌려간 포로 속환문제

“비록 본심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절의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 『인조 실록』

“이미 절개를 잃었으면 남편과 의리가 끊어진 것이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다.”

- 『인조 실록』

| 처음 생각쓰기                   |                                                                                     | 1학년 ( )반 ( )번 이름 :                                                                                          |    |
|---------------------------|-------------------------------------------------------------------------------------|-------------------------------------------------------------------------------------------------------------|----|
|                           |                                                                                     | 모둠 이름                                                                                                       |    |
| 1. 논제(토론 주제)              |                                                                                     |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은 옳은 선택이었다.                                                                                     |    |
| 2. 입장                     |                                                                                     | 찬성 / 반대                                                                                                     |    |
| 3. 입장정리                   | <b>이유나 근거</b><br>우리들의 생각이 맞아요. 왜냐하면~~~<br>이런 점들을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입장에 동의할 거예요. 설득해 보겠어요! | 1)                                                                                                          |    |
|                           |                                                                                     | 2)                                                                                                          |    |
|                           |                                                                                     | 3)                                                                                                          |    |
| 4. 예상되는 반론의 근거들           |                                                                                     | 1)                                                                                                          |    |
|                           |                                                                                     | 2)                                                                                                          |    |
|                           |                                                                                     | 3)                                                                                                          |    |
| 5. 상대 모둠 반론에 대한 우리 모둠의 대책 |                                                                                     |                                                                                                             |    |
| 평점                        | 평가기준                                                                                | 평가 내용                                                                                                       | 배점 |
| 개별과제<br>( )점              | ▪ 주제이해 능력                                                                           | - 제시된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2  |
|                           | ▪ 종합적 사고 및 논증구성 능력                                                                  | - 자신의 주장을 자신이 알고 있는 바와 연결, 종합적으로 생각을 전개시켜 나가는가?<br>- 제시된 근거가 사실 및 논리적으로 타당한가?<br>- 주장에 따른 근거가 바르게 제시되어 있는가? | 3  |
|                           | ▪ 창의적·비판적 사고능력                                                                      | - 자신의 주장을 새로운 관점과 개념으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전개시키고 있는가?<br>- 제시된 문제 또는 사회적 통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가? 아니면 비판적 입장에서 논증하는가?      | 3  |
|                           | ▪ 문장 및 표현 능력                                                                        | - 문장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2  |

## 패널토론 내용 정리하기

1학년 ( )반 ( )번 이름( )

|    |                                 |                       |
|----|---------------------------------|-----------------------|
| 논제 | 광해군의 중립외교정책은 옳은 선택이었다.          |                       |
|    | 〈1〉 찬성 측에서 제시된 논거(입론)           | 〈2〉 반대 측에서 제시된 논거(입론) |
|    | 〈4〉 답변(찬성 측 1차 답변)              | 〈3〉 반박질문(반대 측 1차 질문)  |
|    | 〈5〉 찬성 측 1차 질문                  | 〈6〉 반대 측 1차 답변        |
|    | 〈8〉 찬성 측 2차 답변                  | 〈7〉 반대 측 2차 질문        |
|    | 〈9〉 찬성 측 2차 질문                  | 〈10〉 반대 측 2차 답변       |
|    | 〈12〉 찬성 측 3차 답변                 | 〈11〉 배심원 반대 측 1차 질문   |
|    | 〈13〉 배심원 찬성 측 1차 질문             | 〈14〉 반대 측 3차 답변       |
|    | 〈16〉 찬성 측 4차 답변                 | 〈15〉 배심원 반대 측 2차 질문   |
|    | 〈17〉 배심원 찬성 측 2차 질문             | 〈18〉 반대 측 4차 답변       |
|    | 〈20〉 찬성 측 최종 변론                 | 〈19〉 반대 측 최종 변론       |
|    | 오늘 패널토론이 끝난 후 나의 입장             | 찬성 / 반대               |
|    | 🍷 내가 뽑은 오늘의 '토론 왕' : ( )모듬의 ( ) |                       |



## 【참고문헌】

- 한명기(2000), 『광해군』, 학고재
- 김훈(2007), 『남한산성』, 학고재
- 김기흥, 박종기, 신병주 지음(2007), 『제왕의 리더십』, 휴머니스트
- 이정옥(2008), 『토론의 전략』, 문학과 지성사
- 박시백(2008), 『조선왕조실록 11 광해군 일기』, 휴머니스트
- 염정섭(2008), 『아! 그렇구나. 우리역사 조선 2』, 여유당
- 김성학(2009),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 새로운 디자인
- 반기성(2010), 『날씨가 바꾼 어메이징 세계사』, 플래닛 미디어
- 역사문제연구소 기획(2011),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3』, 응진지식하우스
- 김태희(2011), 『왜 광해군은 억울해했을까』, 자음과 모음
- EBS·국사편찬위원회 공동기획(2013), 『역사e』, 북하우스
- 한명기(2013), 『병자호란』 1·2, 푸른 역사
- 국역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Ⅰ 만든 사람들 Ⅰ

### ✦ 기획위원

|       |              |          |
|-------|--------------|----------|
| 조 용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교육과정연구부장 |
| 홍 숙 정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연구사    |
| 황 영 희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연구사    |
| 권 오 채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연구사    |
| 한 인 수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연구사    |
| 김 정 원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연구사    |
| 한 한 우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연구사    |

### ✦ 개발위원

|       |          |      |
|-------|----------|------|
| 나 영 주 | 송곡고등학교   | 교사   |
| 박 영 란 | 서울공업고등학교 | 수석교사 |

### ✦ 집필위원

|       |        |      |
|-------|--------|------|
| 나 영 주 | 송곡고등학교 | 교사   |
| 조 덕 일 | 석관중학교  | 수석교사 |
| 윤 경 숙 | 목동중학교  | 수석교사 |
| 정 미 선 | 동대문중학교 | 수석교사 |
| 김 성 은 | 동대문중학교 | 교사   |
| 유다하리  | 송파중학교  | 교사   |

### ✦ 편집위원

|       |        |    |
|-------|--------|----|
| 나 영 주 | 송곡고등학교 | 교사 |
|-------|--------|----|

## 즐거운 토의·토론, 행복한 수업

발행일 2014년 02월 19일  
발행처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우100-873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회현동)  
전화 : 02-3111-374 모사전송 : 02-3111-307  
누리집 : <http://www.serii.re.kr>